


정책연구 2004-68-1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

진미석 김나라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우리 사회는 고학력화와 더불어 석·박사급 고급인적자원의 활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급인적자원의 미활용 문제는 국가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한 박사학위자가 개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고급인적자원의 미활용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학업과 일간의 연계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2-3년간 박사학위자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특히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에 관한 분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취업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은 향후 고급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정책에 기초 자료로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또한 직업과 학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고자 2002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사업에서는, 학과편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기회에 관한 학과정보를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공하여 왔다. 석·박사 대상의 본조사를 통해 대학 졸업생뿐만 아니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선택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진행과정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관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관계자 및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김호근 과장님, 김송미 연구사님 이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최선을 다해 연구진을 도와준 박정식 연구조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04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1

제2절 표집방법과 절차·3

제3절 조사도구·5

제4절 조사과정·8

제2장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실태 조사

제1절 석사학위 취득과정·13

제2절 석사취득 이후 진로 상황·25

제3절 석사학위 취득자의 학위 효용 가치 및 취업 전망·45

제4절 소결·54

제3장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실태 조사

제1절 박사학위 취득과정·61

ii 목차

제2절 박사취득 이후 진로 상황·74

제3절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 효용 가치 및 취업 전망·93

제4절 소결·102

제 4장 결론 및 제언

부 록·115

참고문헌·143

<표목차>

- <표 I-1>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 석사4
- <표 I-2>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 박사5
- <표 I-3> 조사도구의 세부 항목 및 내용6
- <표 I-4> 석사 성별, 전공별 원자료 및 가중치 표집 현황10
- <표 I-5> 박사 성별, 전공별 원자료 및 가중치 표집 현황11

- <표 II-1> 석사학위 진학 동기14
- <표 II-2> 교수가 되기 위한 석사과정 진학동기 성별, 계열별 비교15
- <표 II-3> 석사과정 중 학업 중단 이유19
- <표 II-4> 계열별 석사학위 경비 및 조달 방법21
- <표 II-5> 지역별 석사학위 경비 및 조달 방법22
- <표 II-6> 배경변인별 석사과정중 취업유형 분포24
- <표 II-7> 석사과정 중 주로 했던 일의 유형 분포24
- <표 II-8> 석사학위 취득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출신대학원별, 전공계열별).26
- <표 II-9> 석사학위 세부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28
- <표 II-10> 석사학위 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로짓회귀분석30
- <표 II-11> 석사 졸업생들의 직업유형 : OES중분류 (n=413)31
- <표 II-12> 석사학위취득자의 직업유형(상위 15개) (n=413)32
- <표 II-13> 현재 일과 석사학위 전공과의 관련도34
- <표 II-14> 현재 일의 수준과 석사학위 수준의 적합도35
- <표 II-15> 현재 일에 적합한 학력35
- <표 II-16> 석사 취업자의 정규직취업까지의 기간 및 응시횟수36
- <표 II-17> 석사 취업자의 성별, 계열별 소득 비교37
- <표 II-18> 석사 취업자의 소득 회귀분석38
- <표 II-19> 석사 취업자의 현재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39
- <표 II-20> 석사 취업자의 옮기려는 직장 유형40
- <표 II-21> 석사 취업자의 직장을 옮기려는 첫 번째 이유40
- <표 II-22>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불완전취업 요인 인식41

iv 목차

- <표 II-23>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원하는 취업유형42
- <표 II-24>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직장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42
- <표 II-25>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취업준비활동43
- <표 II-26>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취업관련 정보원44
- <표 II-27>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취업예상 기간44
- <표 II-28> 예상 기간 내 취업이 안 될 경우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계획45
- <표 II-29> 세부전공별 석사학위 효용가치평가48
- <표 II-30>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전공분야 취업 예상51
- <표 II-31> 석사학위취득자가 본 향후 5년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의 취업
전망52
- <표 II-32> 석사 세부전공별 향후 취업전망53

- <표 III-1> 박사학위 진학 동기62
- <표 III-2> 박사과정 중 학업 중단 이유68
- <표 III-3> 박사학위 취득 경비 및 조달 방법 - 계열별 비교70
- <표 III-4> 박사학위 취득 경비 및 조달 방법 - 지역별 비교71
- <표 III-5> 배경변인별 박사과정중 취업유형73
- <표 III-6> 전체 박사학위취득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 전공계열별)76
- <표 III-7> 박사 취득자중 신규입직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
전공계열별)77
- <표 III-8> 박사 취득자의 세부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78
- <표 III-9> 박사 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로짓회귀분석80
- <표 III-10> 현재 일과 박사학위 전공과의 관련도82
- <표 III-11> 현재 일의 수준과 박사학위 수준의 적합도83
- <표 III-12> 현재 일에 적합한 학력83
- <표 III-13> 박사 취업자의 정규직취업까지의 기간 및 응시횟수84
- <표 III-14> 박사학위 취업자의 성별, 계열별 소득 비교85
- <표 III-15> 박사 취업자의 소득 회귀분석86
- <표 III-16> 박사 취업자의 현재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87
- <표 III-17> 박사 취업자의 옮기려는 직장 유형88
- <표 III-18> 박사 취업자의 직장을 옮기려는 첫 번째 이유88

- <표 III-19> 박사 불완전취업자의 불완전취업 요인에 대한 인식89
- <표 III-20> 박사 미취업자의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 유형90
- <표 III-21> 박사 미취업자의 직장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90
- <표 III-22> 박사 미취업자의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91
- <표 III-23> 박사 미취업자의 취업관련 정보원92
- <표 III-24> 박사 미취업자의 취업예상 기간92
- <표 III-25> 예상 기간 내 취업이 안 될 경우 박사 미취업자의 계획93
- <표 III-26> 세부전공별 박사학위 효용가치평가96
- <표 III-27> 박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전체 취업처로의 취업 예상97
- <표 III-28> 박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대학교원으로의 취업 예상99
- <표 III-29> 박사학위취득자가 본 향후 5년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의 취업 전망99
- <표 III-30> 박사 세부전공별 향후 취업전망101

- <부록표 1-1>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및 회수율 - 석사115
- <부록표 1-2> 전공별 표집 현황 - 박사117
- <부록표 1-3>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2) - 석사119
- <부록표 1-4>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2) - 박사120

[그림 목차]

- <그림 I-1> 설문조사 진행 흐름도.9

- <그림 II-1> 석사과정 진학동기.14
- <그림 II-2> 전공별 석사학위 전공변경 여부.16
- <그림 II-3> 석사학위 전공변경이유(n=90).17
- <그림 II-4> 석사학위 전공 만족도(n=629).18
- <그림 II-5> 석사과정 중 배경변인별 학업중단여부.19
- <그림 II-6> 석사학위 경비 조달 방법 (n=625).20
- <그림 II-7> 석사 과정 중의 취업실태 (n=623).23
- <그림 II-8> 석사취득자의 졸업후 진로 (n=621).25
- <그림 II-9> 석사취업자의 취업형태(n=409).29
- <그림 II-10> 석사 취업자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n=423).33
- <그림 II-11> 현재 직장의 취업 시기(n=397).34
- <그림 II-12> 석사 취업자의 취업정보원(n=337).36
- <그림 II-13> 석사 취업자의 직장을 옮길 계획(n=339).39
- <그림 II-14> 석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46
- <그림 II-15> 계열별 석사학위의 효용가치 평가.47
- <그림 II-16> 박사학위 취득계획.50
- <그림 II-17> 석사학위 전공분야 취업 가능성이 낮은 이유(n=583).52

- <그림 III-1> 박사과정 진학동기.63
- <그림 III-2> 계열별 박사진학 동기.64
- <그림 III-3> 박사학위 전공변경 여부(n=368).65
- <그림 III-4> 박사학위 전공변경이유(n=36).66
- <그림 III-5> 박사학위 전공만족도(n=371).67
- <그림 III-6> 박사 과정 중 학업중단 여부(배경변인별).68
- <그림 III-7> 박사학위 취득 경비 조달 방법(n=367).70
- <그림 III-8> 박사 과정 중의 취업실태(n=370).72
- <그림 III-9> 박사과정 중 주로 했던 일의 유형(n=257).74

- <그림 Ⅲ-10> 전체 박사취득자의 졸업 후 진로 상황(n=362)·75
- <그림 Ⅲ-11> 박사 취업자의 취업형태(n=306)·79
- <그림 Ⅲ-12> 박사 취업자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n=297)·81
- <그림 Ⅲ-13> 박사 취업자의 현재 직장의 취업 시기(n=202)·82
- <그림 Ⅲ-14> 박사 취득자의 취업정보원(n=187)·84
- <그림 Ⅲ-15> 박사 취업자의 직장을 옮길 계획(n=199)·87
- <그림 Ⅲ-16> 박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94
- <그림 Ⅲ-17> 계열별 박사학위의 효용가치 평가95
- <그림 Ⅲ-18> 박사학위 전공분야 취업 가능성이 낮은 이유98

【요약】

1. 개요

본 사업은 「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수행된 바,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직업세계-대학원의 세계 책자를 발간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학 및 대학교에 제공하여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석·박사급 인력의 활용, 수급전망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아울러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서 석사 750명, 박사 750명을 표집 규모로 하여 5개 권역에서 20개 대학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에서 5개 계열 22개 주요학과의 학생의 2단계 유층표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조사는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1월 20일 까지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석사 630명, 박사 430명이었다.

2.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실태 조사

가. 석사학위 취득과정

석사 진학동기에 대한 석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국내 석사취득자에게 있어 석사는 박사과정을 가기 위하여 거쳐 가는 과정이라기보다,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보

다 강하게 드러난다. 석사 가운데 교수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이 5명중 4명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최근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나타내듯, 어려운 취업상황을 감안하여 일정한 정도 유예하는 과정으로서 석사과정을 선택한 학생들도 10명중의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진학동기에서 볼 때, 전공계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 열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수로 연결되는 길로 석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았고, 공학계열의 경우, 직장에서의 승진 등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석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10명의 8명의 석사들은 학업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평균 1,379만원, 2년 3개월의 기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학생들의 소요경비를 부모나 자기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고,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전체 소요경비의 30%에 지나지 않는다. 소요경비의 40%이상을 부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석사취득 이후 진로 상황

석사학위 취득이후의 진로는 학위 취득 후 1년 반 지난시점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72.5%에 이르고 있고, 23.4%는 박사과정에 진학중이거나 진학준비중이며, 구직 중에 있는 실업률이 6.7%에 이르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80%가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고, 비정규 풀타임직업활동을 하는 비율은 16%에 이르고 있고 파트타이머로 4%가 활동하고 있다.

졸업 후 취업현황은 전공계열별, 성별, 출신대학원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일수록, 지방대학원 출신일수록, 인문사회계열일수록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대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박사과정에 재학(준비)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학위취득이후 약 2.8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응시횟수는 5.10번으로 나타난다. 구직기간이 대학졸업자들의 평균 2.4개월

에 비하면 약 0.5개월 더 길게 나타난다.

취업한 석사학위자 가운데 4명중 1명이 민간대기업체에 취업하고 있고, 5명중 1명이 중소기업에, 13%는 국공립연구기관에 취업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와 전공과의 유관성에 대하여 관련성이 낮다고 반응한 사람은 13%에 지나지 않고 65%는 관련성이 있다고 반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공과 직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수준에 대하여 62%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해 35%의 석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학력수준이 학사이하의 학력수준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현재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직장을 옮기고자 하고 있고, 이직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대기업체로 나타난다. 이직의 동기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이 보수와 안정성이다.

취업한 석사들의 평균 소득은 2,596만원으로 나타난다. 평균소득은 성별, 전공계열별, 출신대학원별,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일수록, 공학계열일수록, 수도권 대학원 출신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박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예상할 수 있듯이 고용형태, 즉 정규직여부가 소득 수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이나 전공계열, 출신대학원등, 관련배경변인들은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정규직 취업자나 파트타임 취업자, 구직자 등 불완전취업자들은 자신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좋은 직장을 기다리는 자신의 눈높이, 전공분야의 취업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희망취업기관으로 10명중 4명은 국공립연구기관, 5명중 1명은 민간대기업체를 기업체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업선택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정성과 전공과 직무관련성을 들고 있다.

불완전취업석사들이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59%는 어학과 전공공부를 하고 있고, 21%는 취업정보 수집을 주로 하고 있다. 취업정보원으로 이들 미취업자중 50%이상이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고, 4명중

1명은 동료나 선배 등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도교수나 학교 추천 등 학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에 취업한 석사들이 취업 시 활용한 정보원에 비해 불완전취업 석사들은 인터넷활용이 20% 포인트 정도 더 높고, 그 대신 지도교수나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20%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난다. 이는 곧 졸업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인적으로 취업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학교와의 네트워크는 멀어짐을 반영한다. 50%의 불완전취업자는 1년 이내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석사도 4명중 1명을 넘어서고 있다. 예상하는 기간 내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42%는 눈높이를 조정하여 취업하겠다고 반응하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14%정도로 나타나며, 19%는 자신의 학위와 상관없는 일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향후 박사진학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정도는 이미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계획하고 있고, 50%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계획이 없다고 반응하고 있다. 앞서 진학동기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박사과정 진학계획역시 인문계열이 높은 데 비해, 공학계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다. 석사학위 취득자의 학위 효용 가치 및 취업 전망

석사학위의 효용성에 대하여 대체로 석사들은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자기발전적인 측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는 사회적 인정가치나 자기발전측면에서의 유용성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의 석사들은 이공계열 석사들에 비해 경제적인 효용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한다. 향후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전망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자신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이 50%에 불과하고 있고,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경향이 높았다. 5년 이후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의 취업전망은 더욱 어둡게 보고 있는데 석사들의 32%만이 취업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44%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비해 이공계열,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라. 시사점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득과정, 취득결과, 향후전망 및 계획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석사과정은 전통적으로 기대했던 바와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기 위한 중간단계로 선택하고 있는 경향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그렇다고 자신을 업무능력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직근로자의 자기향상 과정으로 선택하는 경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대신, 신규입직자들이 석사학위를 받고 더 경쟁력을 갖추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취업준비단계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석사학위가 경제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선택행위인가에 대한 대답은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상당히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석사학위 취득이후 2여년이 지난 후에 4분의 3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이들 가운데 80%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즉, 3명중 2명은 정규직에 취업하게 되는 데, 이들은 평균 근로소득이 2,600여만 원으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급여인 2,300여만 원에 비해 300만 원 정도 상회한다. 그러나 5명중 1명인 비정규직 풀타임은 근로소득의 평균이 2,000여만 원, 파트타임은 900여만 원으로 대학졸업생의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6.7%는 구직중인 실직자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4명중 1명에게는 석사학위는 당장 취업활동에서의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석사들의 40% 만이 석사학위의 경제적인 효용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에서도 일정한 정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자들의 소극적인 반응을 감안할 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석사학위에 진학하였다는 학생들이 10%라는 적지 않은 석사들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한 사람들에 비해,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서 유의한 정도에서 낮게 나타나 석사 프리미엄의 효과는 소득 면에서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취업한 석사 가운데 3명중 1명은 자신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어 적어도 취업 측면에서 교육 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정한 정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석사학위자들은 경제적인 효용가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사회적 인정이나 자기발전적인 측면의 가치를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곧, 전반적으로 보아 석사들은 취득한 석사학위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선택행위가 반드시 경제적인 효과성의 잣대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적인 인식, 일정한 정도 이미 고학력 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길로 동승하고자 하는 심리 등, 사회심리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점차 석사학위 진학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불완전한 취업상황에 있는 석사들의 취업활동지원에 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석사학위자들의 중요한 취업정보원이 인터넷채용사이트 이긴 하지만, 특히 불완전한 취업상황에 있는 석사들의 인터넷 채용사이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에 비해 학교나 지도교수와의 네트워킹이나 지원활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취업자를 위한 채용사이트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불완전취업자가운데, 여의치 않으면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4명중 1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취업전망이나 박사진학과정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3.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실태 조사 결과

가. 박사학위 취득과정

진학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박사학위는 교수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종전의 기대는 상당히 약화된 것을 보여준다. 교수되기 위해 진학하였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 박사들은 60%에 지나지 않아 2000년도의 선행조사 95%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높은 청년실업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박사과정을 선택하였다는 비율도 12명중의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진학동기에서 볼 때, 전공계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수로 연결되는 길로 박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았고, 공학계열의 경우, 직장에서의 승진등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박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나. 박사취득 이후 진로 상황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결과중 하나는 적지않은 수의 박사가 박사과정 진학당시 이미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기취업자라는 점이다. 즉, 10명중 3명은 박사과정 진학시 기취업자이며 박사학위 취득이후 신규로 취업해야 하는 경우는 10명중의 7명은 새로이 취업해야 하는 인력이다.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기취업자와 신규취업자는 취업현황에

있어서나 박사학위의 투자가치 등에 있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태조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10명중 4명의 박사들은 학업에 주로 전념하지만 10명중 5명은 풀타임으로 취업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취업과 병행한 비율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이공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박사과정의 수학 기간은 평균 65.3개월로 11학기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며, 인문계열의 경우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공계열 특히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 5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학생들의 소요경비를 부모나 자기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고,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전체 소요경비의 17%에 지나지 않는다. 박사과정의 학생들이라도 부모로부터 소요경비의 18%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사학위 취득이후의 진로는 학위 취득 후 1년 반 지난시점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88%에 이르고 있고,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55.4%이며, 비정규직에 12.3%, 시간강사 등의 파트타임이 17.3%에 이르고 있다. 박사취득자가운데 10명중 1명은 포스트 닥에 진학하고 있고, 구직 중에 있는 비율은 2.7%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신규입직자로 국한하여 볼 때, 정규직 취업률은 37%에 그치고 있고, 43%가 비정규직 취업이나 파트타임 취업은 불완전 취업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신규입직자들 가운데 정규직 취업률은 24%에 그치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은 58%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의 차이는 일정한 정도 전공계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바, 인문계열의 경우정규직의 취업률이 낮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취업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예상할 수 있듯이 고용형태, 즉 정규직여부가 소득결정에 매우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난다. 성이나 전공계열, 출신대학원 등, 관련배경변인들은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정규직 취업자나 시간강사, 구직자 등 불완전 취업자 혹은 미취업

자들은 자신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박사에 대한 차별과 전공분야 취업처 부족, 그리고 불공정 임용 등의 구조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취업처를 기다리고 있다는 즉, 자신의 눈높이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실력부족, 인간관계 부족, 자신의 노력부족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희망취업기관으로 10명 중 4명은 국공립연구기관, 4명 중 1명은 4년제 대학을 들고 있다. 이들의 직업선택기준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정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취업준비로 70%는 논문 등 연구실적쌓기, 그리고 20%는 취업정보수집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미취업자 중 57%가 취업정보수집을 위해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고, 30%는 동료나 선배 등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도교수나 학교 추천 등 학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은 7%에 불과하였다. 40%의 미취업자는 1년 이내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박사도 4명 중 1명을 넘어서고 있다. 예상하는 기간 내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3.5%는 눈높이를 조정하여 취업하겠다고 반응하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20%정도로 나타나며, 17%는 자신의 학위와 상관없는 일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 박사학위의 효용가치와 향후 전망

박사학위의 효용성에 대하여 대체로 박사들은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자기발전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는 사회적 인정 가치나 자기발전측면에서의 유용성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등 기초학문계열의 박사들이 사회계열이나 공학계열 박사들에 비해 경제적인 효용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한다.

향후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전망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이 27%에 불과하고, 특히 인문 계열의 경우 10%만이 취업전망이 높다고 반응하고 있어 취업전망을 매우 어렵게 보고 있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취업전망에 대해 더욱 어렵게 평가하고 있어 8.3%만이 대학교원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낮아 4%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라.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득과정, 취득결과, 향후전망 및 계획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박사학위의 의미의 변화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고자 하는 진학동기가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박사취득자들의 향후 취업전망에 대한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박사학위 취득자 특히 국내 박사 학위자들이 3년 이내에 대학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어도 이제 박사학위는 바로 교수라는 등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적어도 국내 박사의 경우 3분의 1정도는 이미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학위과정을 하고 학위를 취득한다는 사실은 학사취득-석사취득-박사학위취득-교수(연구원)의 경로와 같은 단선적인 커리어이외에 학사취득-석사취득-취업-박사취득-취업과 같이 학업과 취업간의 관계가 쌍방향적으로 연계되는 복합적인 커리어 유형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음을 보인다.

한편,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반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 취득자의 3분의 1이상이 그리고 신규입직

박사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나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불완전한 취업 상황에 있어 박사학위자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박사나 인문계열의 박사들이 경우 시간강사의 비율이 40%에 다다르고 있다. 더욱이 불완전취업자들의 3분의 2이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박사취득이후 2~3년간의 기간, 특히 신규입직자들의 절반이상은 매우 불완전한 취업상황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강사의 소득은 1,700여만 원,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자는 2600여만 원 학사들의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사 취득이후 2-3년간의 불안정한 시기는 박사취득자 개인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또한 고급인력의 활용이라는 국가 인적자원관리라는 관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강사의 지위가 최근 들어 개선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가장 왕성하게 연구활동과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대로 활용할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트 닥 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강사를 과도기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 자체를 독자적인 지위로 인정하고 대우할 필요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미취업박사들의 미취업원인에 대한 반응에서 국내 박사 차별의 관행이나 불공정한 임용이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일정한 정도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내박사 차별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에 대한 처방이 뒤따라져야 할 것이다.

불완전한 취업상황에 있는 박사들의 취업활동에 대한 반응에서나 미취업요인에 대한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구직등 채용정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하이브레인넷과 같은 민간부문의 고급인력채용지원사이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전공별, 학위급별, 성별등으로 더 다양한 채용지원사

트들이 개설 운영되어 취업정보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채용지원사이트는 학술진흥의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4. 정책적 제언

본 조사 결과의 교육적인 의미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박사학위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으로 박사학위는 중국교육으로서, 그리고 석사학위는 박사학위의 중간과정으로서, 대학교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조사의 결과, 박사, 특히 국내 박사학위자의 경우 박사학위가 대학교수로의 준비과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진학동기에서,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이후 교수로의 취업전망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박사학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기대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박사학위자의 공급과 대학교원의 수요 간의 심각한 격차가 현실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진로로 박사학위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석사학위가 거쳐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온전한 관심이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석사학위과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진학동기나 취업실태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전반적으로 학위과정에 대한 진학동기나 취업실태에서 나타난 전공계열별 뚜렷한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이라는 중분류 영역 내에서의 차이, 기초학문분야와 응용학문분야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초학문,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학문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교수준비라는 진학동기가 뚜렷한데 비해 취업실태

의 여러 측면, 즉, 취업률, 임금, 향후 취업전망 등에서 적어도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학위의 효용가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거시적인 박사인력수급에 관련한 선행연구가 재확인되면서, 기초학문,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노동시장 성취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은 이미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활용 촉진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문차원보호 차원에서 우수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최근에 정책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논의와는 달리, 이공계열의 경우,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진학동기도 실용적이지만, 취업률이나, 소득, 임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정한 정도는 정확한 상태에서 비롯된 논의인지 재검토하고 이를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석·박사 전공에 대한 만족도나 전반적인 효용가치에 있어서 계열을 막론하고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학위과정은 경제적인 가치이외에도 자기발전이나 자신의 전문성 실현 등 비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선택, 즉 인력공급을 예측할 때 우리 사회의 학력에 대한 문화적 기반과 인식에 대한 깊이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석사 학위 취업자와 박사학위자 취업자의 3분의 1정도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반응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간접경비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향후, 어떤 대상들이 학력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가? 학력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요청되는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석·박사 취득자, 특히 미취업 학위취득자들의 취업정보원으로 인터넷이 주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채용지원사이트가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여섯째, 석·박사 취업실태에서 나타난바 대로 상당수의 학위취득자가 학위취득이후 2년 가까운 시점에서 불안정한 취업상황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학위취득자들은 학위취득이후 대학으로부터의 취업지원서비스나 상담서비스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대학들은 석·박사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의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이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취업지원센터의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요청된다 하겠으며 신설되는 각 대학 인력개발종합센터에서 석·박사 대상의 지원활동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는 1,200여명 석·박사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취업률이나 세부전공별 진로현황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박사의 경우, 약 20%로 추정되는 국외박사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급인적자원에 대한 졸업후 추적조사는 조사의 대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석·박사 등 고급인력의 실태조사는 응답자에 대한 접근율과 거절율도 높아 상당히 난항을 겪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와 밀접한 연계활동을 바탕으로 학교를 통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연구기관에서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의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조사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는, 즉 조사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의 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정보

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중앙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인적자원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이 요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적으로 대학원 세계에 대한 안내서를 개발하고, 향후 전공의 확대와 표집수를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각 대학과 대학원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원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서 발간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조사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석·박사급 고급인적자원의 활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3년 연구에 따르면 2만 4천여 명의 박사취득자들이 시간강사 등의 불완전한 취업상태에 있다(진미석·윤형한 2003). 향후 박사인력의 주 활용처인 대학의 교원 수요 증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박사과정 입학생과 재학생의 유지 내지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박사인력의 미활용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고급인적자원의 미활용 문제는 국가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한 박사학위자 개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급인적자원의 미활용 현상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학업과 일간의 연계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2~3년간 박사학위자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특

히 석사 학위 취득자의 취업에 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취업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은 향후 고급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정책에 기초 자료로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이에 따라 석·박사급 인력의 활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실태분석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석·박사 졸업자들의 진로 및 취업현황은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정보이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 최고급 학력층인 박사학위자 역시 박사과정선택시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를 갖지 못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진학하였음을 볼 때¹⁾,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해서도 졸업 후 진로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하겠다.

직업과 학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고자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사업²⁾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기회에 관한 학과정보를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공하여 왔다. 석·박사과정의 진학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대학원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역시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에서 다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더욱 석·박사 대상의 졸업생 취업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석·박사 학위취득자의 졸업 후 진로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의 직업세계」-대학원의 세계 책자를 발간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학생 및 대학교에 제공하여 대학원 진학을 계획

1) 실제로 박사학위취득자 대상의 설문조사결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진로에 대하여 응답한 학위취득자 95%가 대학교수로 임용할 것을 기대하고 진학하였으며, 진학시 취업전망을 현실과는 달리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진미석의 2000). 이와 같은 결과들은 석사와 박사과 같은 고급인적 자원들에게도 학위과정 선택시 향후 취업전망에 관한 정보와 안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래의 직업세계 총괄보고서(진미석의, 2005) 참조

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석·박사급 인력의 활용, 수급전망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표집방법과 절차

본 조사를 위해서 석사 750명, 박사 750명³⁾을 표집 규모로 하여 대학, 학생의 2단계 유층표집을 실시하였다. 표집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조사대상 학교의 표본추출

본 조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5대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국공립·사립 그리고 박사학위 배출 규모를 고려하여 20개 대학⁴⁾을 추출하였다. 지역과 학교 유형을 고려하고 석·박사 배출규모를 고려하여 수도권 9개교, 충청권 3개교, 영남권 5개교, 호남권 2개교, 강원권 1개교를 선정하였다. <부록1>은 표집된 대학 및 학과에서 배출하는 석·박사 취득자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집 대학에서 전국에서 배출되는 석·박사 학위자의 5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2. 학과표집

학과는 석·박사급 인력의 배출규모를 고려하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기타계열로 구분하고 각 계열별로 대표적인 학과를 선정하였다. 석·박사 고급인력의 배출이 계열 및 학과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고, 본 연구

3) 조사의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한 규모임

4) 조사에 협조한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한남대, 한양대, 호남대이다

4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

는 일차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학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표집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공계열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중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활용하고, 의학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은 제외하였다. 세부전공역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소분류체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으며⁵⁾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국문, 영어영문, 역사학, 철학, 외국어 문학, 사회계열은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을 선정하였고, 이학계열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선정하였으며, 공학계열은 기계공학, 전기전자전과, 정보통신컴퓨터, 토목, 건축공학, 생명공학⁶⁾, 화학공학을, 마지막으로 기타계열로 약학과 교육학을 선정하였다.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고 해당대학별로 배출규모를 고려하여 석사 907명, 박사 622명의 학위취득자 총 1,529명을 최종 샘플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⁷⁾

<표 I-1>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 석사

계열	전국			20개 대학			표본			회수(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문계열	417	851	1,268	224	458	682	73	83	156	63(86.3)	71(85.5)	134(85.9)
사회계열	3,681	1,295	4,976	1,901	765	2,666	92	100	192	78(84.8)	74(74.0)	152(79.2)
자연계열	986	703	1,689	506	407	913	64	133	197	60(93.8)	95(71.4)	155(78.7)
공학계열	8,003	1,347	9,350	3,475	637	4,112	136	171	307	133(97.8)	120(70.2)	253(82.4)
기타계열	1,470	2,705	4,175	400	1,128	1,528	21	34	55	20(95.2)	23(67.6)	43(78.2)
총계	14,557	6,901	21,458	6,506	3,395	9,901	386	521	907	354(91.7)	383(73.5)	737(81.3)

5) 다만, 심리학의 경우, 연구진과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사회계열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6) 최근 급변하는 생물·생명 관련학과의 특성으로 인해 생물학과 생명공학은 같은 범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7) 구체적인 학과표집 현황은 <부록1> 참조

<표 I-2>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 박사

계열	전국			20개 대학			표본			회수(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문 계열	284	247	531	176	149	325	64	62	126	51 (79.7)	45 (72.6)	96 (76.2)
사회 계열	546	94	640	239	57	296	102	40	142	69 (67.6)	25 (62.5)	94 (66.2)
자연 계열	367	116	483	222	60	282	68	60	128	48 (70.6)	31 (51.7)	79 (61.7)
공학 계열	1,160	74	1,234	637	38	675	144	38	182	127 (88.2)	22 (57.9)	149 (81.9)
기타 계열	129	128	257	69	79	148	18	26	44	17 (94.4)	16 (61.5)	33 (75.0)
총계	2,486	659	3,145	1,343	383	1,726	396	226	622	312 (78.8)	139 (61.5)	451 (72.5)

제3절 조사도구

본 조사의 내용은 크게 석·박사 학위 취득과정, 석·박사학위 이후 진로활동,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향후 취업전망,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3>과 같다⁸⁾.

8) 조사도구는 <부록2>와 <부록3>참조

<표 I-3> 조사도구의 세부 항목 및 내용

영역	구분	조사 내용
학위 취득과정	진학동기	-석·박사과정 진학 동기
	전공일치도	-석·박사 과정 전공과 학부 전공과의 일치 여부 -전공을 바꾼 이유
	석·박사과정 중 취업유형	-석·박사 학위 취득까지의 기간 및 휴학
	학위취득 소요기간과 경비	-석·박사 학위 취득까지의 기간 및 휴학 -소요경비(직접경비, 생활비) -소요경비 조달방법(장학금 출처)
학위취득이후 진로활동	학위 효용가치	-현재 일과 학위 전공과의 관련성 -일의 수준과 학위간의 적합도 -현재 일의 수준에 적합한 학력 -학위의 효용가치에 대한 판단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직업생활 만족도	-현재 직업 활동의 만족도
	취업상황	-세전 근로소득 -현재의 취업상황
	정규직 취업자	-재직기간 -학위취득과 취업과의 관계 -학위취득과 승진/급여 인상 여부 -전직횟수와 전직 이유(가취업자) -학위취득 후 정규직 취업까지의 기간 -응시 횟수 -전직회수와 전직 이유(신규취업자) -전직 계획 -전직 계획 이유

<표 계속>

영역	구분	조사 내용
학위취득이후 진로활동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취업직종 -구직시 우선고려요인 -정규직 취업지원회수 -미취업이유 -취업정보원 -취업기대기간 -현재 가장 어려운 점 -학위취득이 정규직 취업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시간강의 시수 -원하는 분야 취업 대기시간 -원하는 분야 취업안 될 시 계획
학위취득자의 취업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학위 전공 분야에서의 전공분야 취업 비율 전망(전체, 대학교원) -취업가능성이 낮은 주된 이유 -향후 5년 후 취업전망
배경변인	개인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출신 학부 및 석·박사 학위취득 대학 -석·박사 학위 과정 진학 연도 -석·박사 학위 취득 연도 -석·박사 학위 전공 분야 -결혼 여부 -자녀수 -배우자의 취업유형
	부모의 배경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교 시절의 부모의 직업 -중·고교 시절 및 박사 진학 당시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제4절 조사과정

1. 조사 기간

조사는 2004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2. 조사 절차

본 조사의 특징은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와 유기적인 연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특성상 졸업 후 취업활동에 대한 조사는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신대학의 취업정보센터나 혹은 해당학과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조사의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2005년도 향후 졸업생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가기 위해서는 출신대학의 취업정보센터가 조사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를 인적자원정보수집의 인프라 구축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통계연보사업⁹⁾에서 이 일을 일정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집을 선정하여 졸업생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학 측의 업무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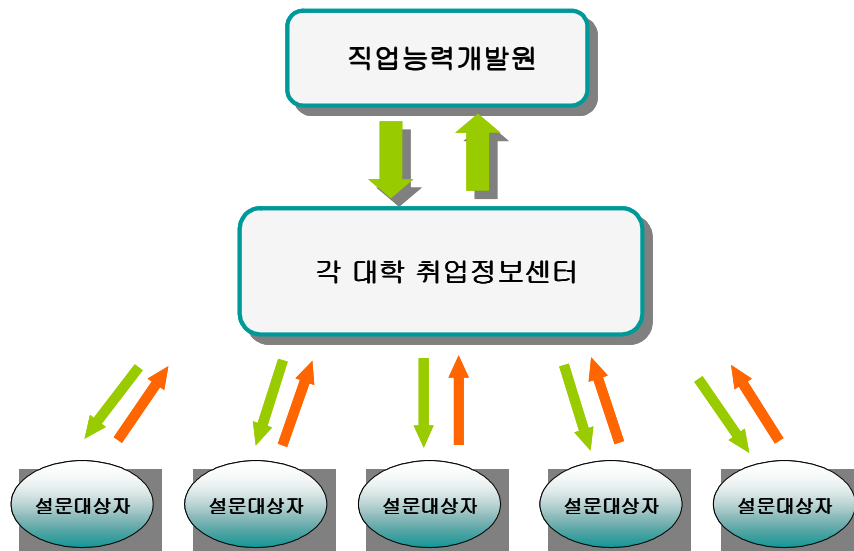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진에서 2차에 걸쳐 20개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담당자에게 이 조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를 의뢰하였다.¹⁰⁾

9) 현재 학사 학위취득자의 경우는 모두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에서 통계를 내고 있으나, 석·박사 학위취득자의 경우는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취업정보센터 또는 대학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석·박사 학위취득자 조사에서도 동아대, 연세대, 영남대, 청주대, 호남대 등 6개 학교에서는 대학원에서 협조해 주었음.

10) 이 조사사업을 위하여 각 취업정보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인력(아르바이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음.

또한 대학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을 대학(총장)에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작업을 토대로, 연구진들이 해당대학을 방문하여 해당년도의 석·박사 졸업생 명부에서 전공학과별 성별로 유층화한다음 무선으로 2-3명을 추출하였다. 접촉이 안될 경우를 생각하여 2차 대상자, 3차 대상자를 함께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대학 취업정보센터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취업정보센터에서 각 학과로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하였다¹¹⁾. 해당 학과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된 설문지를 취업정보센터로 보고하고, 이를 연구진에게 회송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I-1] 설문조사 진행 흐름도



11)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취업정보센터에서 직접 설문 대상자와 접촉하여 설문을 진행하거나 각 학과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는 방법 2가지를 병행하였다.

3. 설문지 회수 결과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통계연보상의 학과명과 취득자현황 등이 각 대학에서 보유한 학위취득자 명부와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해당 표본이 해외 유학, 외국인인 경우, 또는 연락처 미상 및 연락처 변동으로 전혀 접촉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2차 3차 대상자로 대상범위를 넓혔으나 어떤 대학에서는 졸업생 자체가 너무 작아 더 이상 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약 1,300여개이며 설문 회수율이 석사 81%, 박사 72% 정도였다¹²⁾.

학과별 전공을 고려하여 표집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전반적인 석사학위 취득자 전집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분석에서는 두 유형의 표집을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석사학위취득자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공계열¹³⁾과 성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서 표집을 조정하고, 22개의 세부전공별로 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가중치를 주지 않은 표집을 활용하였다. 회수된 원자료와 가중치를 주어 구성한 표집은 아래 <표 I-20>, <표 I-21>과 같다.

<표 I-4> 석사 성별, 전공별 원자료 및 가중치 표집 현황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전체
원자료	남자	54(8.6)	65(10.3)	55(8.7)	125(19.8)	299(47.5)
	여자	64(10.2)	66(10.5)	88(14.0)	113(17.9)	331(52.5)
	전체	118(18.7)	131(20.8)	143(22.7)	238(37.8)	630(100.0)
가중치	남자	35(5.5)	146(23.1)	39(6.2)	239(37.9)	459(72.7)
	여자	15(2.4)	55(8.7)	23(3.6)	79(12.5)	172(27.3)
	전체	50(7.9)	201(31.9)	62(9.8)	318(50.4)	631(100.0)

12) 자세한 설문 회수율은 <부록 1> 참조.

13) 교육계열의 교육학과와 의약계열의 약학은 학과별 분석에서 활용하고 전체 표집에서는 다루지 않았음.

<표 I-5> 박사 성별, 전공별 원자료 및 가중치 표집 현황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전체
원자료	남자	43(11.7)	55(14.9)	42(11.4)	113(30.7)	253(68.8)
	여자	40(10.9)	24(6.5)	31(8.4)	20(5.4)	115(31.3)
	전체	83(22.6)	79(21.5)	73(19.8)	133(36.1)	368(100.0)
가중치	남자	46(12.3)	56(15.0)	45(12.1)	159(42.6)	306(82.0)
	여자	22(5.9)	13(3.5)	17(4.6)	15(4.0)	67(18.0)
	전체	68(18.2)	69(18.5)	62(16.6)	174(46.6)	373(100.0)

제 2 장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실태 조사

제1절 석사학위 취득과정

1. 석사과정 진학동기 및 석사과정 취득과정

가. 석사과정 진학동기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석사과정 진학동기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 II-1>이다. 대체로 석사학위 취득자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위해서 혹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고 반응하고 있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혹은 석사학위라는 명예를 취득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진학하였다는 반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안이 없어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는 반응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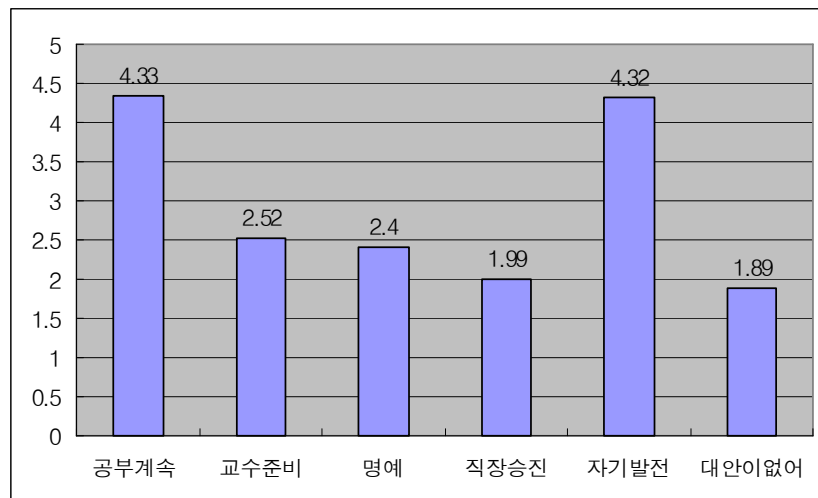
<표 II-1> 석사학위 진학 동기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1.8	1.4	5.0	45.2	46.6	100.0	4.33	.79	1
교수가 되기 위해	20.8	33.0	24.5	16.5	5.3	100.0	2.52	1.15	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	23.8	33.3	24.0	16.6	2.2	100.0	2.40	1.09	4
당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47.0	22.2	17.9	11.2	1.8	100.0	1.99	1.12	5
전문성 신장(자기발전)을 위해서	.7	.6	7.5	48.5	42.8	100.0	4.32	.70	2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46.4	30.4	13.1	8.2	1.9	100.0	1.89	1.04	6

주: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

[그림 II-1] 석사과정 진학동기



주: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

석사과정 진학동기를 배경변인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교수가 되기 위해서라는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고 또한 이공계열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II-2> 교수가 되기 위한 석사과정 진학동기 성별, 계열별 비교

구분	남자 (421)	여자 (153)	인문계열 (107)	사회계열 (115)	자연계열 (129)	공학계열 (219)	수도권 (258)	지방대 (312)
평균	2.43	2.27	3.03	2.74	2.60	2.46	2.73	2.50
표준편차	1.12	1.79	1.18	1.22	1.14	1.11	1.14	1.17
	F=11.053, p=.001		F=6.215, p=.000				F=8.522, p=.004	

주: ()는 사례수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당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진학하였다는 반응이 공학계열(평균2.19)에서 타 계열(인문계열:1.64, 사회계열 1.75, 자연계열 1.89)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한편, 전체적으로 선택지가 없어서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는 반응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출신대학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는 반응이 여성(평균 2.07)이 남성(평균=1.80)에 비해 유의미하게(p=.003)하게 높게 나타나고 지방대학생 석사 취득자들이 수도권 석사취득자들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2.02 vs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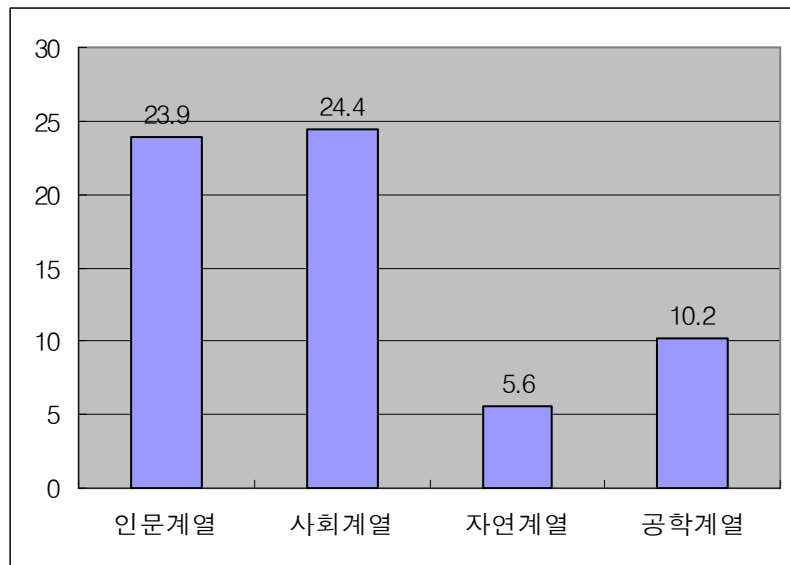
나. 전공변경 여부 및 전공 만족도

석사학위 취득자 중의 85.3%가 학부전공과 일치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14.7%가 변경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일수록 전공을 변경한 비율이 높아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의 경우 적어도 5명중 1명은 학부

전공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공계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전공을 변경한 학생은 5.6%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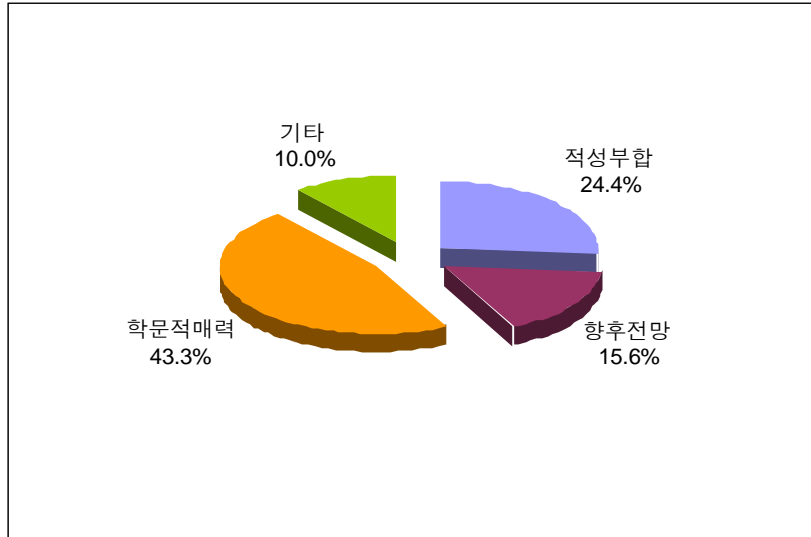
[그림 II-2] 전공별 석사학위 전공변경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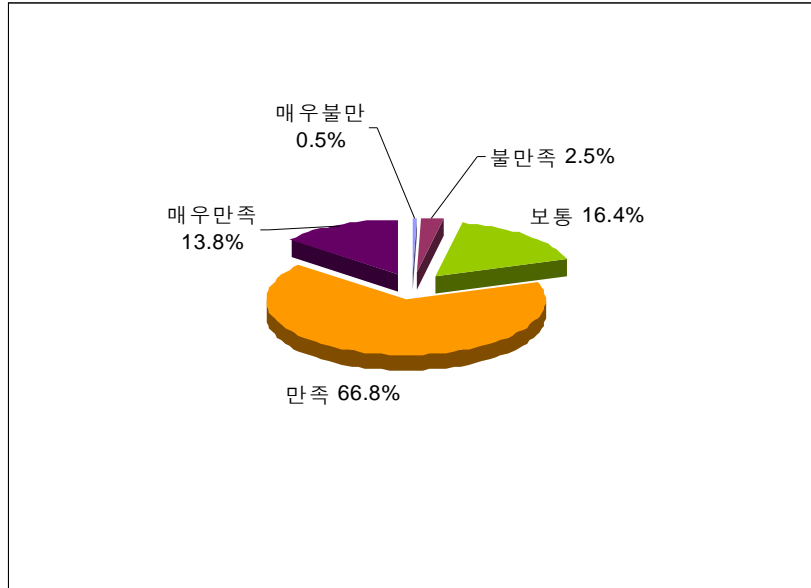
석사전공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전공의 학문적 매력에 이끌려 바꾸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적성에 더 맞아서, 그리고 향후 전망이 좋아서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입학하기 쉬워서거나 향후 석사학위 취득이 쉬어서 전공을 변경하였다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공변경자들은 전공변경에 대하여 85.8%가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림 II-3] 석사학위 전공변경이유(n=90)



자신의 석사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6%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반응하고 있어 대체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전공에 대한 불만족 요인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있어 주로 석사학위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석사학위 과정 중에 배우는 내용들이 실제 업무와 크게 연관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다수 있었다.

[그림 II-4] 석사학위 전공 만족도(n=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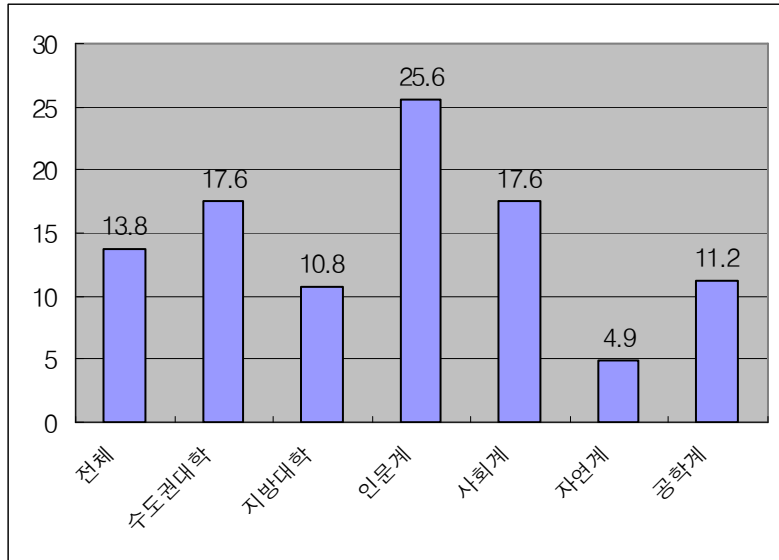
2. 석사학위 취득기간 및 경비

가. 취득기간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약 13.8%로 대체로 학생들은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중단없이 학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계열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바 인문계나 사회계 등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이공계열에 비해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이 높고 자연계열이 낮게 나타나 인문계석사의 경우 4명중 1명 정도는 석사과정도중에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비해 자연계열의 경우 학업중단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았다. 또한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대 학생들에 비해 학업중단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 석사과정 중 배경변인별 학업중단여부

단위 : %



석사과정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세분화되지 않은 기타이유를 든 응답이 55.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취업 12.0%, 경제적 이유 10.8%를 들고 있다.

<표 II-3> 석사과정 중 학업 중단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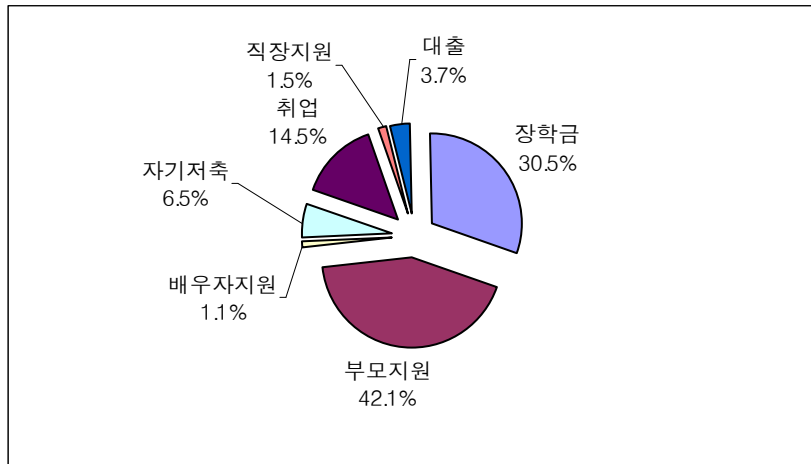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취업	10	12.0
가사 및 육아	6	7.2
질병	5	6.0
군복무	7	8.4
경제적 이유	9	10.8
기타	46	55.4
합계	83	100.0

석사취득기간은 77.9%가 2년, 13.0%가 2년 6개월로 나타나, 90%학생들이 5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위취득기간은 평균 26.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난다. 석사학위 취득기간은 계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의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취득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연계열은 평균 25.7개월, 공학계열은 평균 24.7개월, 인문계열은 평균 34.8개월, 사회계열은 평균 26.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총 경비

직접경비는 평균 1,379만원, 생활비 1,177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석사학위 동안의 경비는 아래그림과 같이 부모지원 평균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장학금으로 충당한 비중은 30.5%로 나타난다. 이전 취업을 통한 저축이나 취업하여 충당한 부분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대출은 3.7%를 차지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 석사들은 석사학위 취득 경비의 3분의 2는 자기(부모)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6] 석사학위 경비 조달 방법 (n=625)



경비충당 비율은 계열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이공계열일수록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인문사회계열에서 취업을 하여 충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II-4> 계열별 석사학위 경비 및 조달 방법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전체
직접 경비(단위: 만원) ***	1241.18	1276.79	1199.92	1499.27	1379.13
경비 조달: 장학금 (단위: %)**	22.24	27.65	37.68	32.20	30.52
경비 조달: 부모지원 (단위: %)	31.11	43.30	43.32	42.79	42.10
경비 조달: 배우자 지원(단위: %)*	4.13	1.27	.00	.71	1.08
경비 조달: 석사과정 이전의 저축(단위: %)	9.46	5.34	5.07	7.01	6.47
경비 조달: 과정 중 취업 (단위: %)***	27.05	18.69	10.98	10.63	14.51
경비 조달: 직장 지원 (단위: %)	1.84	.52	1.58	1.97	1.46
경비 조달: 대출 (단위: %)	4.18	3.00	1.51	4.57	3.74

주: *** P<.001, ** p<.01, * P<.05

출신대학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지방대학출신일 수록 석사학위 취득 경비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비충당은 수도권학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지방학생들은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5> 지역별 석사학위 경비 및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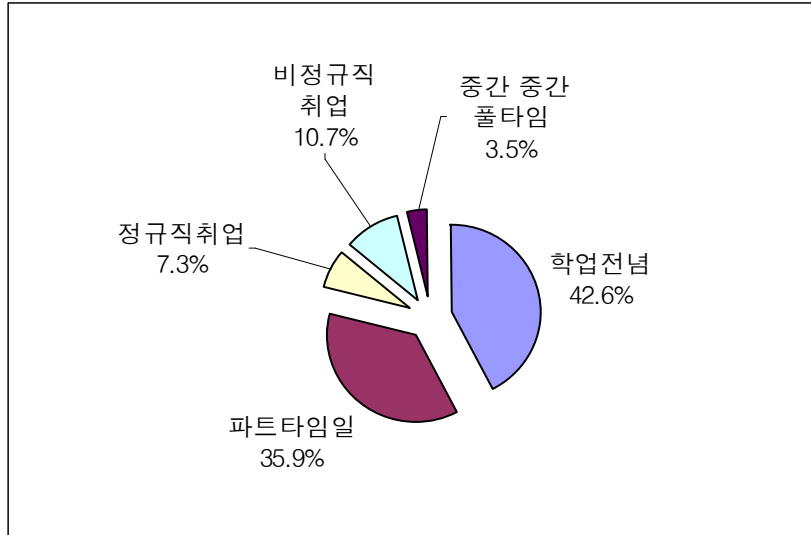
출신석사-대분류	서울소재 대학	지방소재 대학
직접 경비 (단위: 만원)***	1656.41	1180.13
경비 조달: 장학금 (단위: %)	29.79	31.04
경비 조달: 부모지원 (단위: %)**	48.59	37.39
경비 조달: 배우자 지원(단위: %)	.83	1.26
조달: 석사과정 이전의 저축 (단위: %)*	4.56	7.86
경비 조달: 과정 중 취업 (단위: %)*	11.75	16.52
경비 조달: 직장 지원 (단위: %)	1.35	1.53
경비 조달: 대출 (단위: %)	2.98	4.30

주: *** P<.001, ** p<.01, * P<.05

다. 석사과정 중의 취업실태

석사과정 재학 중에 한 일에 대해 일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2.6%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으로 가끔 일을 했지만 대체로 풀타임으로 학업에만 전념했다는 경우가 35.9%에 이르고 있어서 대다수의 학생 즉, 78.5% 정도의 석사학생들은 석사과정에 주로 학업에 전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사과정 중 취업을 병행한 학생들은 약 18.0%이며,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한 학생들은 7.3% 정도이고 석사과정동안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한 학생들은 10.7%이다.

[그림 II-7] 석사 과정 중의 취업실태 (n=623)



또한, 지방대학원 출신일수록, 여학생일수록 학업에만 전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여학생일수록 학업에만 전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학업에만 전념하는 비율이 높고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취업과 병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연계열학생들 54.1%가 학업에만 전념하였다고 반응한데 비해, 인문계열 학생들의 16.7%만이 학업에만 전념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으로나 비정규직으로 지속적으로 풀타임 일한 비율은 인문계열 학생의 30%를 넘어서는 데 비해, 자연계열 학생들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공계열의 특성상 취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6> 배경변인별 석사과정중 취업유형 분포

구분	수도권	지방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남자	여자
학업에만전념	38.5%	45.5%	16.7%	29.4%	54.1%	52.7%	43.7%	39.2%
일시적아르바이트	44.6%	29.5%	43.8%	43.8%	32.8%	30.4%	33.1%	43.3%
정규직취업	3.8%	9.9%	12.5%	12.9%	1.6%	4.2%	8.8%	3.5%
비정규직취업	10.4%	11.0%	18.8%	10.4%	9.8%	9.6%	10.4%	11.7%
간헐적 폴타임취업	2.7%	4.1%	8.3%	3.5%	1.6%	3.2%	4.0%	2.3%
	p<.01		p<.001				p<.05	

석사 과정 중에 주로 했던 일의 유형으로는 절반이상이 대학의 유급조교가 가장 많았고, 학원강사,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일반기업체의 회사원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도 차이를 볼 수 있는 바, 인문계열의 경우 타계열에 비해 대학의 유급조교로 일하는 비율이 낮은 대신 학원강사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표 II-7> 석사과정 중 주로 했던 일의 유형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대학의 유급조교	53.9	29.6	62.6	50.0	52.1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8.4	7.4	1.1	11.1	15.6
기업(민간)연구소의 연구원	4.1		4.4	5.6	5.2
일반기업체의 회사원	5.1		6.6	5.6	5.2
초·중·고등학교 교사	1.7	11.1			1.0
개인사업(창업)	1.3	3.7	2.2		
학원강사	9.2	29.6	5.5	16.7	5.2
대학의 시간강사	0.5				1.0
기타	15.0	18.5	17.6	11.1	14.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계열별 차이는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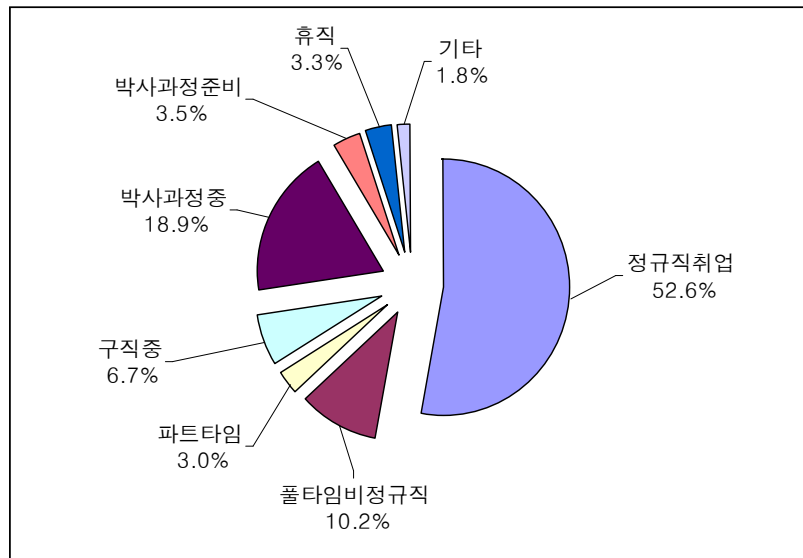
제2절 석사취득 이후 진로 상황

1. 현재 진로상황

가. 진로유형

학위취득이후 1년 반 경과후의 현재 진로의 진로를 살펴본 결과 다음 그림과 같다. 전체 석사중 2명중 1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고, 박사과정으로 재학중이거나 박사과정 준비 중인 사람이 22.4%이며, 10%가 풀타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3%는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6.7%는 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은 71.7%에 이르고 있다.

[그림 II-8] 석사취득자의 졸업후 진로 (n=621)



졸업 후의 진로현황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출신대학원별, 전공계열별 진로상황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그리고 지방대학원 출신이 수도권출신에 비해, 인문계열및 사회계열이 공학계열에 비해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준비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인문계열 석사의 17.4%만이 정규직에 취업하고 39.1%는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학계열은 67.1%가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고, 14.9%가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있다.

<표 II-8> 석사학위 취득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출신대학원별, 전공계열별)

구분	성별		출신석사-대분류		석사전공-대분류			
	남자	여자	서울소재 대학	지방소재 대학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정규직취업	54.9	46.2	60.0	47.1	17.4	42.9	36.7	67.1
플타임 비정규직 취업	8.8	13.5	5.0	13.8	15.2	11.1	21.7	6.6
파트타임취업	2.2	5.3	1.5	4.1	6.5	4.5	3.3	1.3
구직 중	7.1	5.8	6.2	7.2	6.5	9.6	6.7	5.1
박사과정 중	19.7	17.0	16.2	20.9	39.1	18.7	25.0	14.9
박사과정 진학 준비 중	3.3	4.1	5.8	1.9	4.3	5.6	1.7	2.2
건강, 집안사정 집에서 쉬고 있음	2.2	6.4	2.3	4.1	10.9	4.0	5.0	1.6
둘 이상에 해당	1.8	1.8	3.1	.8		3.5		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p<.001		p<.001			

나. 세부전공별 취업상황

세부전공별로 다양한 취업관련지표로 정리하여 살펴본 결과를 <표 II-9>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공학계열의 전공, 특히 건축공학과 전기전자공학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90%를 상회하고, 이에 비해 외국문학과 국문학, 역사철학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40%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정규직 취업자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자 및 전체취득자 가운데에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공학계열의 학과들이 80%를 상회하는 정규직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 문학이나 역사철학, 물리학이나 생물학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학과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에는 취업률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영문학, 국문학, 심리학, 생명과학, 물리학은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취업률이 40% 포인트 이상이 높아져 이들 학과에서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직 중에 있다고 명확하게 밝힌 실업자의 비율은 영문학, 외국문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생명과학, 물리학, 건축공학에서 높게 나타난다.

<표 II-9> 석사학위 세부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취업률 ¹⁾	취업률 ²⁾	고용률 ¹⁾	고용률 ²⁾	실업률 ¹⁾	실업률 ²⁾
국문학	41.4*	33.3*	83.3	13.8*	34.5*	0*	0*
영문학	61.3	21.1*	52.6*	12.9*	32.3*	21.1	12.9
외국문학	40.9*	33.3*	44.4*	13.6*	18.2*	22.2	9.1
역사철학	38.9*	57.1	78.6	22.2	30.6*	7.1	2.8
법학	66.7	75.0	83.3	50.0	55.6	12.5	8.3
행정학	52.0*	53.8	76.9*	28.0	40.0*	23.1	12.0
사회학	53.8	71.4	85.7	38.5	46.2	14.3	7.7
심리학	81.3	23.1*	61.5*	18.8*	50.0	15.4	12.5
경제학	60.0	66.7	88.9	40.0	53.3	0*	0*
경영학	76.9	60.0	85.0	46.2	65.4	10.0	7.7
생명과학	61.5	37.5	84.4	23.1	51.9	12.5	7.7
물리학	57.7	33.3*	73.3*	19.2*	42.3	13.3	7.7
수학	55.6	70.0	90.0	38.9	50.0	0*	0*
화학	76.4	73.8	92.9	56.4	70.9	7.1	5.5
기계공학	64.0	93.8	100.0	60.0	64.0	0*	0*
건축공학	90.7	77.6	87.8	70.4	79.6	12.2	11.1*
토목환경	77.8	81.0	90.5	63.0	70.4	9.5	7.4
화학공학	77.3	82.4	94.1	63.6	72.7	5.9	4.5
전기전자	91.2	83.9	90.3	76.5	82.4	6.5	6.5
정보통신	77.9	83.0	90.6	64.7	70.6	1.9*	1.9*
전체	67.6	65.5	84.5	44.3	57.1	9.2	9.2

주: 1) 취업률¹⁾=(정규직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x100

취업률²⁾=(정규직+비정규직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x100

고용률¹⁾=(정규직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x100

고용률²⁾=(정규직+비정규직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x100

실업률¹⁾=(구직자/경제활동참가자)x100

실업률²⁾=(구직자/전체학위취득자)x100

2) 음영은 해당항목 상위 5개 학과, *은 해당항목 하위 5개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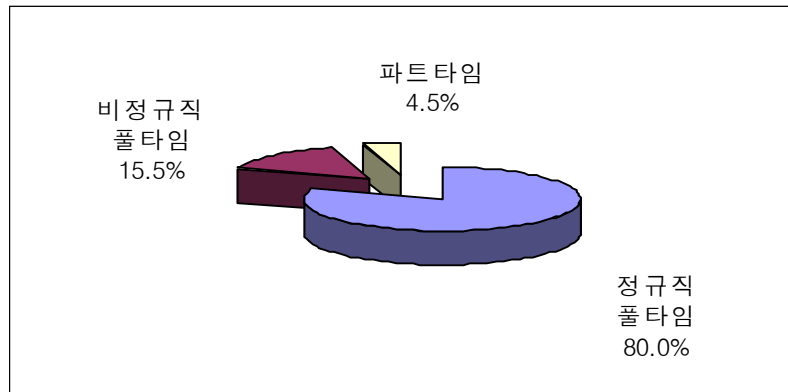
2. 취업자의 취업상황

현재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비정규직포함)대상으로 그들의 고용 및 임금상황을 살펴보았다.

가. 고용형태

전체 취업 석사 409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석사가 80.0%이고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을 하고 있는 석사가 15.5%. 파트타이머가 4.5%에 이르고 있다. 곧, 취업자중 5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이머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9] 석사취업자의 취업형태(n=409)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데 관련을 갖고 있는가? 아래 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파트타이머 포함)을 나누는 요인들에 대한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한 요인은 전공계열, 성별, 출신대학원(수도권대학원 vs 지방대학원), 석사학위 취득당시 직업유무, 졸업 후 기간(졸업후 4학기 후 vs 졸업후 3학기

후), 진학동기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성, 계열, 출신대학, 진학동기중 교수준비요인, 직장승진 도움 요인으로 나타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남자는 여자 보다 정규직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 공학계열에 비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의 정규직취업 확률이 낮아진다. 또한, 수도권대학원 출신은 지방대학원 출신보다, 교수를 하기 위해서 석사를 진학하지 않을수록, 직장승진을 위해서 진학하지 않을수록 정규직 취업확률이 높아진다.

<표 II-10> 석사학위 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B	Std. Error	유의도	Exp(B)
상수	.599	.811	.460	
성(남자)	1.227	.361	.001	3.412
인문계열	-2.151	.703	.002	.116
사회계열	-1.474	.394	.000	.229
자연계열	-2.008	.497	.000	.134
출신대학	1.771	.398	.000	5.876
졸업학기	-.183	.460	.692	.833
취업경력	.012	.382	.975	1.012
교수준비(1)	.993	.425	5.448	.020
교수준비(2)	.492	.472	.297	1.636
직장승진(1)	.150	.469	.749	1.162
직장승진(2)	1.554	.683	.023	4.732
다른대안없음(1)	-.726	.541	.180	.484
다른대안없음(2)	-.931	.657	.156	.394

주: 성(남자:1, 여자), 계열(공학계열기준), 출신대학원(수도권대학:1지방대:0), 졸업학기(2002년 2학기:0, 2003년 1학기:1), 취업경력(과정중 취업병행 1:학업전념0), 교수준비(1:아님.2:그저그림 3: 그림 기준), , 직장승진(1:아님.2:그저그림 3: 그림 기준), 다른대안없음(1:아님.2:그저그림 3: 그림기준)

나. 직업 및 취업기관 유형

1) 직업유형

석사학위 취득자들에게 졸업후의 직업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OES대분류 수준에서 살펴보면, 경영·회계·사무관리직의 경우가 18.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이 17.9%, 건설관련직이 16.4%, 정보통신관련직이 15.2%를 차지하였다.

<표 II-11> 석사 졸업생들의 직업유형 : OES중분류 (n=413)

순위	대분류	백분율(%)
1	경영·회계·사무 관리직	18.6
2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	17.9
3	건설관련직	16.4
4	정보통신관련직	15.2
5	기계관련직	7.5
6	화학관련직	5.1
6	전기·전자관련직	5.1
8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4.6
9	금융·보험 관리직	4.0
10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0
11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1.1
12	영업 및 판매관련직	1.0
13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0.5
14	보건·의료 관련직	0.4
15	관리직	0.2
15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0.2
15	군인	0.2
	합계	100.0

석사 졸업생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OES 소분류 수준과, 세분류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소분류 수준에서 살펴보면, 건축가·도시계획·토목 및 측량관련기술자(엔지니어)가 1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경영관련관리직이 14.5%,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관련직이 11.0%,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가 7.5%,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이 6.8%,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와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가 5.1%,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이 4.7%,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가 4.2%,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이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석사졸업생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세분류 수준에서 살펴보면, 건축공학기술자가 9.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가 7.5%,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응용소프트웨어엔지니어)가 7.4%, 토목공학기술자(지질공학포함)이 5.9%, 일반행정사무원이 5.2%,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와 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가 5.1%, 생명과학관련연구원이 4.5%, 총무사무원이 4.4%, 사회과학연구원이 3.5%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공학기술자가 많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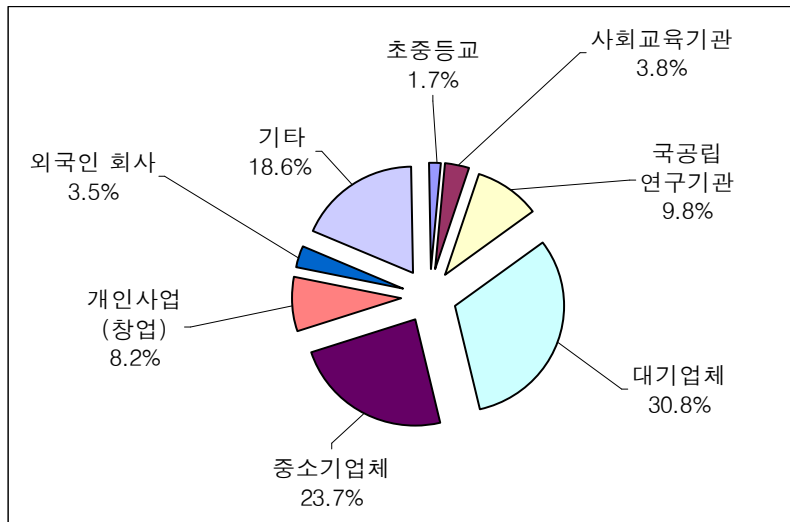
<표 II-12> 석사학위취득자의 직업유형(상위 15개) (n=413)

직업유형(소분류)	백분율	직업유형(세분류)	백분율
1. 건축가·도시계획·토목 및 측량 관련기술자(엔지니어)	15.5	1. 건축공학기술자	9.1
2. 경영관련관리직	14.5	2.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	7.5
3.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관련직	11.0	3.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엔지니어)	7.4
4.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	7.5	4. 토목공학기술자(지질공학포함)	5.9
5.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6.8	5. 일반행정사무원	5.2
6.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5.1	6.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5.1
6.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5.1	6. 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5.1
8.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4.7	8. 생명과학관련연구원	4.5
9.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엔지니어)	4.2	9. 총무사무원	4.4
10.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2.6	10. 사회과학연구원	3.5

2)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에 대해 민간 대기업체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 정도 되고, 그 다음으로 민간중소기업체, 국공립연구기관 9.8%, 개인사업(창업)을 하는 비율이 8.2%가 되고 있다.

[그림 II-10] 석사 취업자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n=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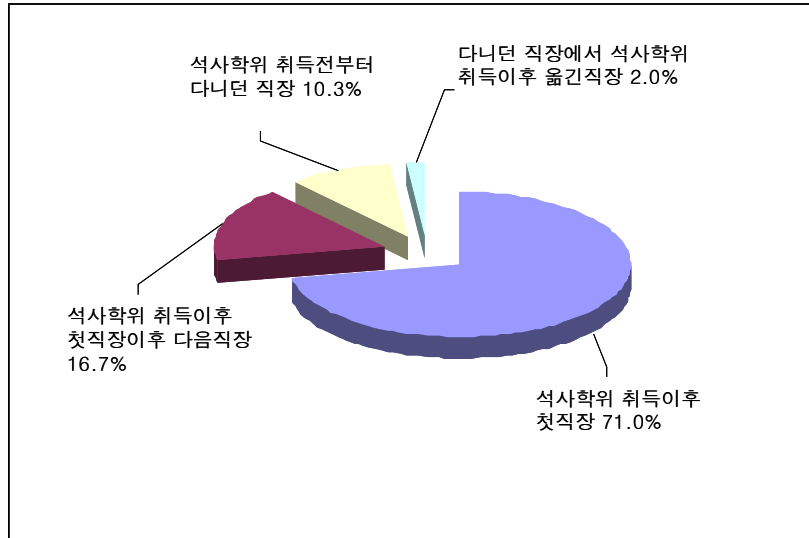


또한, 취업하고 있는 석사가운데, 석사취득이후에 직장을 처음 구한 석사들의 비율, 즉, 신규입직 석사의 비중은 87%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13%정도가 석사학위취득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거나 박사학위 취득이후에 다니던 직장을 옮겼다고 반응하고 있다.

3) 현재 일의 전공관련도 및 적정 학력수준

현재 일과 석사학위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397명 중 155명 (39.0%)이 석사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매우

[그림 II-11] 현재 직장의 취업 시기(n=397)



높다가 104명(26.2%), 그저 그렇다가 85명(21.4%), 낮은편이다가 29명(7.3%), 매우 낮다가 24명(6.0%)이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석사 전공과의 관련도는 전체 평균 5점 만점 중 3.72로 나타났다.

<표 II-13> 현재 일과 석사학위 전공과의 관련도

구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빈도(명)	24	29	85	155	104	397		
백분율	6.0	7.3	21.4	39.0	26.2	100.0	3.72	1.1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수준과 석사학위 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94명중 252명으로 64.0%를 차지하였고,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37명(34.8%), 일의 수준이 학위수

준보다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명(1.3%)이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수준에 적합한 학력에 대해서는 전체 145명의 응답자 중에서 126명(86.9%)이 학사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전문대졸이 11명(7.6%), 고졸이 5명(3.4%), 기타가 3명(2.1%)이었다.

<표 II-14> 현재 일의 수준과 석사학위 수준의 적합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하다	252	64.0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137	34.8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5	1.3
합계	394	100.0

<표 II-15> 현재 일에 적합한 학력

구분	빈도	백분율
학사	126	86.9
전문대졸	11	7.6
고졸	5	3.4
기타	3	2.1
합계	145	100.0

3) 구직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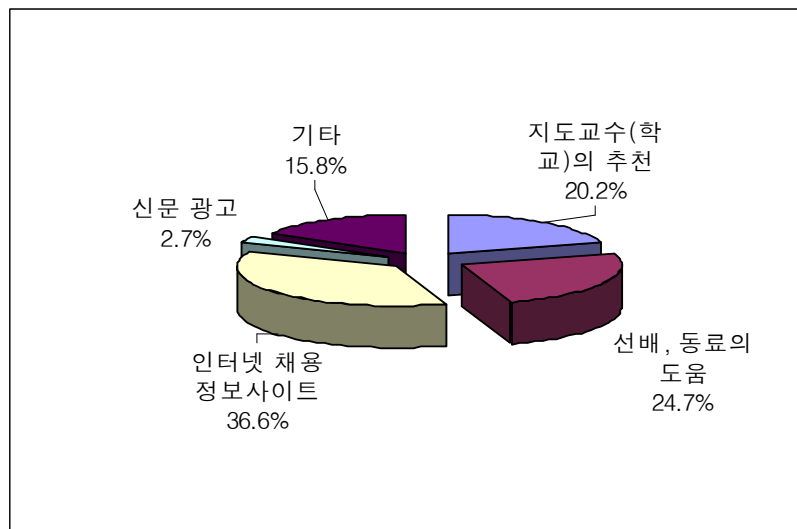
대체로 신규졸업자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까지 평균 2.88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응시회수는 5.03번이다. 현 직장을 구할 때 취업정보원으로 3명 중 1명은 인터넷 채용정보를 통해 찾았고, 19.9%는 지도교수의 추천, 24.7%는 선배나 동료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공계열의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응시횟수도 적은 편이다.

<표 II-16> 석사 취업자의 정규직취업까지의 기간 및 응시횟수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전체
정규직취업까지의 기간	3.52	3.69	2.31	2.71	2.88
응시횟수	1.92	8.67	4.85	3.98	5.03

주: 구직기간 $p < .580$, 응시횟수 $p < .001$

[그림 II-12] 석사 취업자의 취업정보원(n=337)



다. 소득

취업한 석사들의 평균 소득은 2,596만원으로 나타난다. 평균소득은 성별, 전공계열별, 출신대학원별,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일수록, 공학계열일수록, 수도권 대학원 출신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 300여만 원 소득이 낮고, 공학계열에 비해 자연계열이 약 300여만 원 낮게 나타난다. 지방대학원 출신이 수도권대학원 출신에 비해 200여만 원 가량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자는 정규직 풀타임

취업자에 비해 약 700여만 원 가량 소득이 낮다.

<표 II-17> 석사 취업자의 성별, 계열별 소득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수도권	지방대	정규직	비정규 풀타임	파트타 이머
평균	2,596.6	2680.3	2377.0	2432.2	2545.8	2299.1	2681.5	2717.4	2508.6	2782.2	2002.2	961.0
표준 편차	1022.9	952.2	1164.4	1252.7	1351.7	923.6	804.0	1072.9	1978.0	933.2	951.9	853.8
		p=.009		p=.151				p=.047		p=.000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규직여부이며,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석사에 진학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적게 나타난다. 성이나 계열, 출신지역 등은 정규직여부에 영향을 미쳐 회귀분석에서는 정규직여부를 통하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8> 석사 취업자의 소득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993.812	690.443		5.784	.000
공부 계속	-103.885	80.168	-.082	-1.296	.196
교수 준비	81.017	61.822	.086	1.310	.191
명예취득	-1.735	62.988	-.002	-.028	.978
직장 승진	74.442	49.088	.083	1.516	.130
전문성 신장	-89.830	87.337	-.059	-1.029	.304
다른 대안 없음	-114.929	56.343	-.118	-2.040	.042
정규직-비정규직	-1007.075	151.688	-.379	-6.639	.000
성별	-12.354	125.907	-.005	-.098	.922
사회계열(인문기준더미)	-243.785	287.609	-.104	-.848	.397
자연계열(인문기준더미)	-268.231	332.259	-.071	-.807	.420
공학계열(인문기준더미)	-113.016	290.048	-.054	-.390	.697
출신대학원	-16.778	113.310	-.008	-.148	.882
졸업학기	251.351	152.799	.008	1.645	.101
취업경험	164.513	131.056	.070	1.255	.210

주: 성(남자:1, 여자:0), 계열(공학계열기준), 출신대학원(수도권대학기준), 졸업연도(1:2002년 2학기, 0:2003년 1학기):1, 취업경험(1:과정중 취업병행, 0:학업전념), 공부계속(1:전혀아님, 5:매우그림), 교수준비(1:전혀아님, 5:매우그림), 명예취득(1:전혀아님, - 5:매우그림), 직장승진(1:전혀아님, - 5:매우그림), 전문성신장(1:전혀아님, - 5:매우그림), 다른대안없음(1:전혀아님 - 5:매우그림), 정규직-비정규직(1:정규직, 0:비정규직)

라. 직업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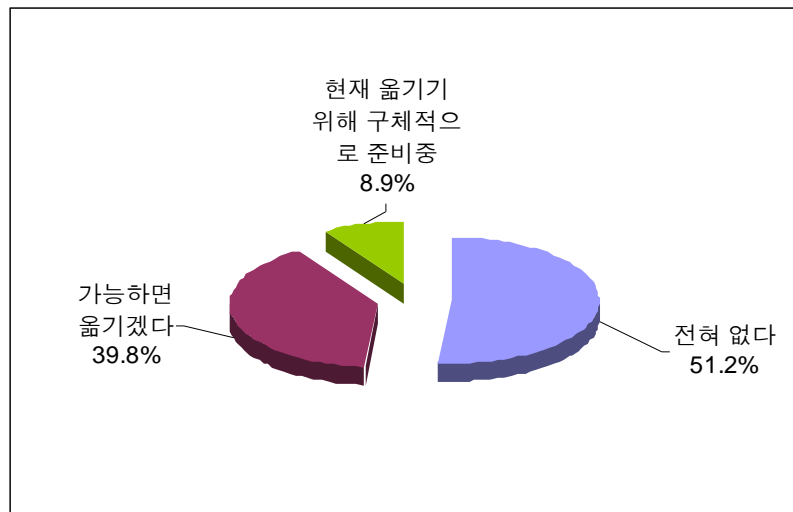
절반 정도의 취업하고 있는 석사 3분의 2정도는 대체로 직업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불만스럽다는 반응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체로 직업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9> 석사 취업자의 현재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스럽다	불만스러운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빈도(명)	4	37	105	214	37	397	3.61	.82
백분율	1.0	9.3	26.4	53.9	9.3	100.0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옮길 계획이 없는 석사학위자가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50%는 가능하면 옮기거나 현재 옮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II-13] 석사 취업자의 직장을 옮길 계획(n=339)



옮기고자 하는 기관으로 민간대기업체가 30.2%, 국공립 연구기관이 28.4%, 기타가 14.2%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20> 석사 취업자의 옮기려는 직장 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초·중·고등학교	4	2.2
사회교육기관	5	2.6
국공립 연구기관	51	28.4
민간 대기업체	54	30.2
민간 중소기업체	11	6.4
개인사업체	1	.8
창업	5	2.5
외국인 회사	23	12.6
기타	25	14.2
합계	179	100.0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보수와 안정성이
다. 40% 정도가 보수를 들고 있고 20%가 안정성을 들고 있다.

<표 II-21> 석사 취업자의 직장을 옮기려는 첫 번째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보수	70	37.4
안정성	38	20.5
사회적 인정도	9	4.9
가족거주지와의 거리	14	7.7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17	9.3
직장 분위기	15	8.1
업무부담	10	5.1
직장의 사정상	2	1.3
기타	11	5.7
합계	187	100.0

3. 불완전취업자(미취업자, 구직자등)의 실태

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요인

구직자나 파트타이머, 임시직 등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불완전취업자들은 자신이 정규직에 취업하지 않은 요인으로 첫 번째 요인으로는 당장 취업할 곳은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기다린다고 한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고, 전공분야 취업처가 부족하다고 한 경우가 24.0%로 그 다음 순위다. 전공분야의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취업을 위한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등 자신의 문제로 응답하고 있는 비율이 15%에 이른다.

<표 II-22>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불완전취업 요인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당장 취업할 곳은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기다림	45	34.8
전공분야의 취업처 부족	31	24.0
취업시 학연, 지연 등 불공정한 임용	7	5.7
전공분야의 자신의 실력부족	9	6.8
취업을 위한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부족	10	7.4
좁은 인간관계 폭	-	-
가사와 육아부담	1	1.1
취업정보의 부족	2	1.2
학부 전공과의 불일치	7	5.7
연령	7	5.1
성차별 관행	-	-
기타	11	8.3
합계		100.0

나. 취업 희망 직장 형태 및 직장 선택시 고려 사항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 형태에 대해 국공립 연구기관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1.8%, 민간 대기업체가 19.6%, 기타가 19.5%, 사회교육기관이 5.7%, 외국계 회사가 4.7%순이었다.

<표 II-23>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원하는 취업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초·중·고등학교	3	2.1
사회교육기관	8	5.7
국공립 연구기관	55	41.8
민간 대기업체	26	19.6
민간 중소기업체	2	1.2
개인사업체	2	1.6
창업	5	3.8
외국인 회사	6	4.7
기타	26	19.5
합계	132	100.0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안정성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8.4%로 가장 많았고,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28.3%, 보수가 18.1%, 사회적 인정도가 4.7%, 가족 거주지와의 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응답자가 2.4%였다.

<표 II-24>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직장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보수	24	18.1
안정성	51	38.4
사회적 인정도	6	4.7
가족거주지와의 거리	3	2.4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37	28.3
기타	11	8.2
합계	132	100.0

석사학위가 정규직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는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이 3.44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석사학위가 정규직에 취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32.5%,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12.5%,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가 9.3%,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2.5%였다.

라. 구직 노력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어학공부 및 전공공부가 59.0%로 가장 많았고, 취업 정보 수집이 21.0%, 교수님과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강화가 10.2%, 기타가 8.7%, 면접 준비가 1.0% 순이었다.

<표 II-25>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취업준비활동

구분	빈도	백분율
어학공부 및 전공공부	79	59.0
교수님과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14	10.2
취업 정보 수집	28	21.0
면접 준비	1	1.0
기타	12	8.7
합계	133	100.0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얻는 경우가 56.2%로 가장 많았고, 선배, 동료의 도움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22.7%, 지도교수(학 교)의 추천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8.2%, 신문광고의 경우가 1.5%로 나타났다.

<표 II-26>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취업관련 정보원

구분	빈도	백분율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11	8.2
선배, 동료의 도움	29	22.7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73	56.2
신문 광고	2	1.5
기타	15	11.5
합계	130	100.0

라. 취업 예상 기간 및 향후계획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응답한 경우가 30.6%로 가장 많았고, 1-2년 사이가 23.7%, 1년 이내가 21.1%, 3년 이상이 12.8%, 2~3년 사이가 11.7% 이었다.

<표 II-27>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취업예상 기간

구분	빈도	백분율
6개월 이내	40	30.6
1년 이내	28	21.1
1~2년 사이	31	23.7
2~3년 사이	15	11.7
3년 이상	17	12.8
합계	131	100.0

예상하고 있는 기간 내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눈높이를 조정해서 풀타임 직장으로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겠다는 응답이 18.9%, 계속 기다리겠다는 응답이 15.5%,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13.9%, 기타 의견이 14명(9.5%)이었다.

<표 II-28> 예상 기간 내 취업이 안 될 경우 석사 불완전취업자의 계획

구분	빈도	백분율
계속 기다리겠다	20	15.5
눈높이를 조정해서 풀타임 직장으로 취업	56	42.4
박사과정으로 진학	18	13.9
석사학위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함	25	18.9
기타	12	9.3
합계	1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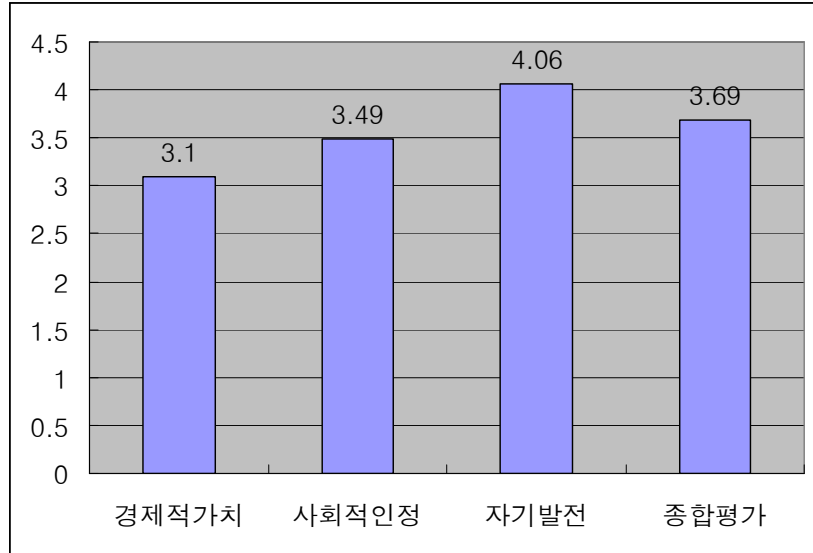
제3절 석사학위 취득자의 학위 효용 가치 및 취업 전망

1. 석사학위 효용 가치에 대한 평가

가. 전반적 평가

본인의 석사학위 효용 가치를 경제적 측면, 자기발전적 측면, 사회적 인적 측면, 종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석사들은 자기발전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5점:매우 유용함1: 전혀유용하지 않음의 5점척도)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인정, 경제적인 측면(3.1)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비교적 유용한 편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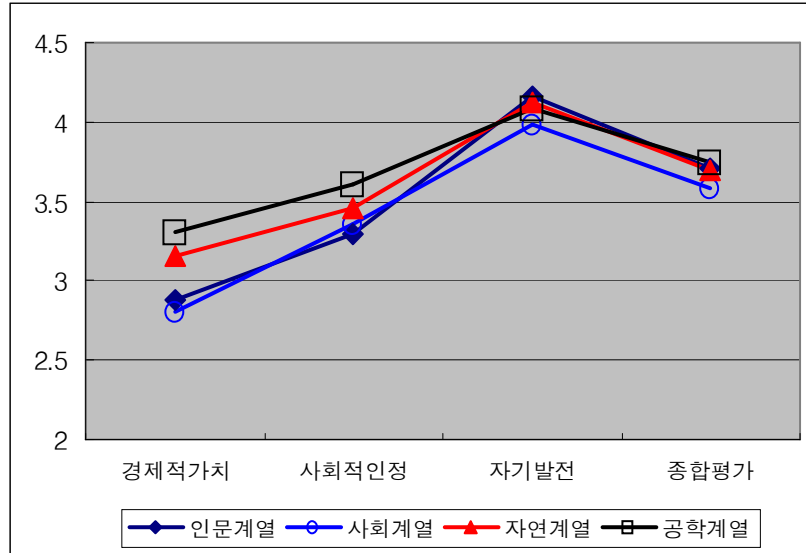
[그림 II-14] 석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



주: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열별로 석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판단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공계열 석사들이 석사 학위 효용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원 출신이 수도권대학원 출신보다 수도권 대학원 출신들이 석사학위의 경제적 가치(평균 2.98 vs 3.18, $p < .05$)와 사회적 인정가치(3.41 vs 3.56, $p < .05$)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림 II-15] 계열별 석사학위의 효용가치 평가



주: 1) 경제적 가치 $p < .001$, 사회적 인정가치 $p < .01$, 종합적 평가 $p < .05$
 2)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나. 세부전공별 석사학위 효용가치평가

세부전공별로 석사학위 효용평가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29>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학, 국문학, 토목공학, 영문학, 역사철학 등이 상위 5개 학과이며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학과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공학, 화학, 기계공학이 상위 5개 학과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인정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학과는 순위만 다를 뿐, 경제적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5개 학과와 같게 나타났다. 한편 자기 발전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상위 5개 학과에는 사회학, 경제학, 국문학, 영문학, 기계공학으로 인문사회계열의 학과가 대거 포함되었다. 그리고 석사학위 효용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경제학, 화학공학, 정보통신, 사회학, 영문학이 상위 5개 학과로 나타난다. 한편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5개 학과는 경제학과,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공학, 수학과로

나타난다.

<표 II-29> 세부전공별 석사학위 효용가치평가

석전종계	석사학위 전공과 학부전공 일치 여부	석사전공 에 대한 만족도	석사학위 효용가치: 경제적인 측면	석사학위 효용가치: 사회적 인정 측면	석사학위 효용가치: 자기 발전의 측면	석사학위 효용가치: 종합적	평균소득
국문학	0.14	4.07(3)	2.59*	3.17*	4.28(3)	3.62	2406.36
영문학	0.33	4.06(4)	3.19	3.58	4.26(4)	3.81	2571.43
외국문학	0.23	3.86	2.77*	3.36	4.05	3.59(5)	2431.43
역사철학	0.25	4.00(5)	2.89	3.31*	4.03	3.69*	1798.46
법학	0.17	3.97	3.03	3.44	3.86*	3.65	2672.86
행정학	0.08	3.88	2.68*	3.36*	3.96*	3.44*	1912.00
사회학	0.46	3.92	2.91	3.36*	4.46(1)	3.82(4)	2537.20
심리학	0.31	3.69*	2.50*	3.50	3.94*	3.38*	1645.91
경제학	0.27	4.20(1)	3.20	3.67(4)	4.33(3)	4.00(1)	3146.67 ¹⁾
경영학	0.35	3.88	2.73*	3.12*	3.69*	3.46*	2554.00
생명과학	0.12	3.81*	3.02	3.55	4.02	3.62	1832.00
물리학	0.08	3.73*	3.12	3.32*	3.92*	3.76	1670.00
수학	0.11	3.94	2.94	3.56	4.06	3.72	2850.00 ⁵⁾
화학	0.00	3.85	3.33(4)	3.60(5)	4.15	3.72	2456.49
기계공학	0.13	3.88	3.32(5)	3.60(5)	4.16(5)	3.72	2892.19 ⁴⁾
건축공학	0.02	3.91	2.91	3.40	4.00	3.65	2116.83
토목공학	0.04	4.07(1)	3.15	3.44	3.96*	3.52*	2534.21
화학공학	0.05	3.82*	3.41(3)	3.77(1)	4.14	4.00(1)	2346.75
전기전자	0.06	3.94	3.53(1)	3.76(2)	4.09	3.79	3054.48 ²⁾
정보통신	0.21	3.85	3.52(2)	3.70(3)	4.01	3.84(3)	2965.63 ³⁾
전체	0.15	3.91	3.09	3.50	4.05	3.69	2596.6

주: 1) () 안의 숫자는 해당항목의 순위로, 1~5위까지의 학과만 표기함.

2) *는 해당항목의 하위 1~5위 학과

3) 만족도 - 1 매우 불만, 2 불만, 3 그저 그렇, 4 만족, 5 매우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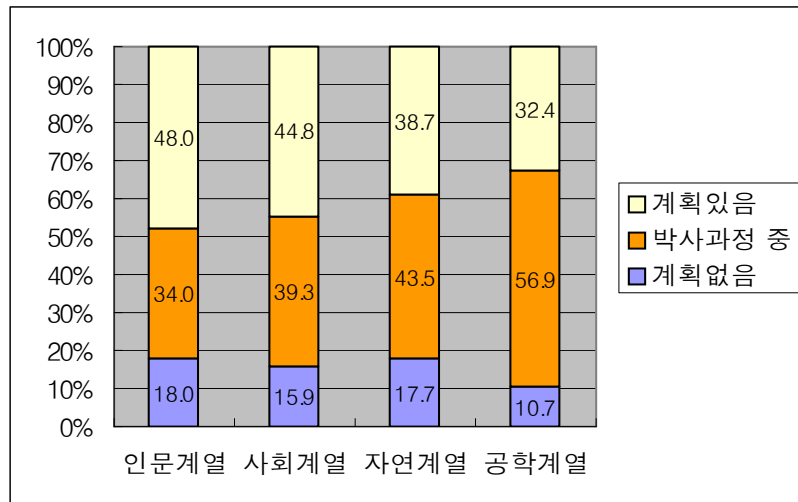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해 보면, 3개 항목에서 상위 5위권에 든 학과는 영문학, 경제학, 기계공학, 정보통신으로 나타났다. 반면 4개 항목에서 하위 5위권에 든 학과는 행정학, 심리학, 경영학이었고, 3개 항목에서 하위 5위권에 든 학과는 물리학으로 나타난다.

2. 향후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계획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계획 여부에 대해, 38.2%는 박사학위 취득계획이 있다고 반응하고 있고, 13.6%는 박사과정 중에 이미 있고, 48.4%는 박사취득 계획이 없다고 반응하고 있다. 곧, 석사학위 취득자의 절반정도는 적어도 졸업 후 1년 반의 시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중국교육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사학위 취득 계획은 계열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공학계의 56.9%가 박사학위 취득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반면, 인문계열의 34%만이 박사학위 취득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II-16] 박사학위 취득계획

(단위 %)



3. 향후전망

가. 향후 전공분야의 전반적인 전망

1) 석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전공분야로의 취업 전망 비율

자신의 학위 전공분야에서 올해 배출되는 석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전공분야로의 취업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31.2%, 낮은 편이다가 14.7%였다. 전공분야로의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이 3.38로 약간 높은 편이었다. 계열별로 볼 때,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문사회계열 특히 인문계열 석사들의 취업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

타난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학원 출신들의 석사들의 취업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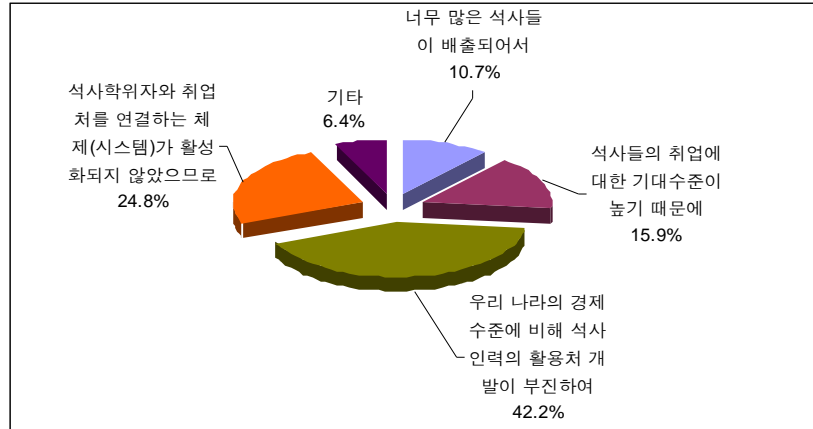
<표 II-30>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전공분야 취업 예상

단위 : %

구분	전체 (623)	인문계열 (50)	사회계열 (194)	자연계열 (61)	공학계열 (318)	수도권 (258)	지방대 (367)
매우낮다	4.0	24.0	4.1	3.3	.9	2.7	4.9
낮은편이다	14.7	28.0	22.2	13.1	8.5	12.0	16.6
그저그렇다	31.2	30.0	42.8	37.7	23.3	29.8	32.2
높은편이다	39.7	12.0	29.9	36.1	50.6	41.1	38.7
매우높다	10.4	6.0	1.0	9.8	16.7	14.3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44.676, p=.000				F=9.556, p=.002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석사들의 취업가능성이 낮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석사 인력의 활용처 개발이 부진하여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자와 취업처를 연결하는 체제(시스템)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가 24.8%, 석사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인가 15.9%, 너무 많은 석사들이 배출되어서가 10.7%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II-17] 석사학위 전공분야 취업 가능성이 낮은 이유(n=583)



2) 석사학위 취득자가 본 향후 5년 전공분야 학부졸업자의 취업전망

한편, 향후 5년 자신의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들의 취업 전망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628명 중 278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밝은 편이다가 179명(28.5%), 어두운 편이다가 128명(20.4%), 매우 어둡다가 23명(3.7%), 전망이 매우 밝다가 20명(3.2%)이었다.

<표 II-31> 석사학위취득자가 본 향후 5년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의 취업 전망
단위 : %

구분	전체 (628)	인문계열 (50)	사회계열 (199)	자연계열 (61)	공학계열 (318)
매우 어둡다	3.7	8.0	4.0	4.9	2.5
어두운 편이다	20.4	36.0	24.1	19.7	15.7
그저그렇다	44.3	36.0	50.8	49.2	40.8
밝은 편이다	28.5	16.0	20.1	24.6	36.1
매우 밝다	3.2	4.0	1.0	1.6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F=10.899, p=.000

주: ()는 사례수

나. 세부전공별 취업전망

세부전공별로 향후 취업전망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것이 아래 표이다. 앞서 살펴본 계열별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건축공학 등 공학계열 석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석사학위 취업전망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문학, 국문학, 역사철학, 사회학, 수학 석사는 석사학위 취업전망을 어렵게 보고 있다.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전망과 동일전공분야의 학부 학생들의 취업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렵게 보고 있으나 세부전공별 전망은 석사 취업전망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국문학, 역사철학 등의 석사들은 석사 취업전망보다는 학사취업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반면, 건축공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등 공학계열 석사들은 자신의 전공분야 학사의 취업전망을 두드러지게 낮게 전망하고 있다.

<표 II-32> 석사 세부전공별 향후 취업전망

석전중계	전공분야 학위취득 3년 이후 5년 후 전공분야		(A-B)
	이내 취업가능 비율: 전공분야(A)	학부졸업생의 취업전망(B)	
국문학	2.28*	2.45*	-0.17
영문학	3.13	3	0.13
외국어문학	2.27*	3.05	-0.78
역사철학	2.34*	2.61*	-0.27
법학	2.88	2.89	-0.01
행정학	2.88	2.68	0.2
사회학	2.69*	2.62*	0.07
심리학	3.31	3.06	0.25
경제학	3.2	3.07	0.13
경영학	3.2	3.23	-0.03
생명과학	3.23	2.79*	0.44
물리학	3.28	2.8	0.48
수학	2.72*	2.89	-0.17
화학	3.78	3.06	0.72

기계공학	3.44	3.48	-0.04
건축공학	3.7	2.76*	0.94
토목환경	3.78	2.85	0.93
화학공학	3.59	3.32	0.27
전기전자	3.94	3.88	0.06
정보통신	3.85	3.38	0.47
합계	3.28	3.01	0.27

주: 1) 5 매우 높다, 4 높다, 3 그저그렇다, 2 낮다, 1 매우 낮다
2) 음영은 상위 5개학과, *는 하위 5개 학과

전공분야 학위취득 3년 이내 취업가능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학과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건축공학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 후 학부졸업생의 취업전망도가 높은 상위 5개 학과는 전기전자, 기계공학, 정보통신, 화학공학, 경영학과로 나타났다. 반면 학위취득 3년 이내 취업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하위 5개 학과로는 외국어문학, 국문학, 역사철학, 사회학, 수학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 후 학부졸업생의 취업전망이 낮은 5개 학과로는 국문학, 역사철학, 사회학, 건축공학, 생명과학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 졸업생에 비해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전망이 낮게 나타난 학과로는 외국어문학, 역사철학, 국문학, 수학 등으로 나타났다.

제4절 소결

1. 요약

본 장에서는 학위취득 후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석사의 진학동기, 석사학위 취득과정, 취득이후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석사과정 진학동기로, 국내 석사취득자에게 있어 석사는 박사과정을 가기

위하여 거쳐 가는 과정, 즉,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로 가는 비교적 정해진 길이라기,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에 있어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과정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석사 가운데 교수가 되고자 진학하였다는 반응은 5명중의 1명 정도에 불과하고 교수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이 5명중 4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본 조사의 대상이 일반대학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존 직업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사 결과는 취업준비로서의 석사과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진학동기 중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최근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고려할 때, 어려운 취업상황을 감안하여 일정한 정도 유예하는 과정으로서 석사과정을 선택한 학생들도 10명중의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진학동기에서 볼 때, 전공계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수로 연결되는 길로 석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았고, 공학계열의 경우, 직장에서의 승진 등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석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10명의 8명의 석사들은 석사과정 중 학업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평균 1379만원, 2년 3개월의 기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학생들의 소요경비를 부모나 자기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고,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전체 소요경비의 30%에 지나지 않는다. 소요경비의 40%이상을 부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사학위 취득이후의 진로는 학위 취득 후 1년 반 지난시점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72.5%에 이르고 있고, 23.4%는 박사과정에 진학중이거나 진학준비중이며, 구직 중에 있는 실업률이 6.7%에 이르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80%가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고, 비정규 풀타임 직업활동을 하는 비율은 16%에 이르고 있고 파트타이머로 4%가 활동하고 있다. 졸업 후 취업현황은 전공계열별, 성별, 출신대학원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일수록, 지방대학원 출신일수록, 인문사회계열일수록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대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박사과정에 재학(준

비)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학위취득이후 약 2.8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응시횟수는 5.10번으로 나타난다. 구직기간이 대학졸업자들의 평균 2.4개월에 비하면 약 0.5개월 더 길게 나타난다.

취업한 석사학위자 가운데 4명중 1명이 민간대기업체에 취업하고 있고, 5명중 1명이 중소기업에, 13%가 국공립연구기관에 취업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한 석사학위자 가운데 87%는 신규 입직 학위취득자로 나타난다. 현재 직무와 전공과의 유관성에 대하여 관련성이 낮다고 반응한 사람은 13%에 지나지 않고 65%는 관련성이 있다고 반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공과 직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수준에 대하여 62%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해 35%의 석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학력수준이 학사이하의 학력수준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현재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직장을 옮기고자 하고 있고, 이직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대기업체로 나타난다. 이직의 동기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이 보수와 안정성이다.

취업한 석사들의 평균 소득은 2596만원으로 나타난다. 평균소득은 성별, 전공계열별, 출신대학원별,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일수록, 공학계열일수록, 수도권 대학원 출신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박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예상할 수 있듯이 고용형태, 즉 정규직여부로 나타난다. 성이나 전공계열, 출신대학원등, 관련배경변인들은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대안이 없어서 석사과정'을 선택하였다는 진학동기가 강할수록 근로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취업자나 파트타임 취업자, 구직자 등 불완전취업자들은 자신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좋은 직장을 기다리는 자신의 눈높이, 전공분야의 취업차 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희망취업기관으로 10명중 4명은 국공립연구기관, 5명중 1명은 민간대기업체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업선택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정성과 전공과 직무관련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59%는 어학과 전공공부를 하고 있고 21%는 취업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취업정보원으로

이들 미취업자중 50%이상이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고, 4명중 1명은 동료나 선배등 개인적인 네트워킹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도교수나 학교 추천등 학교의 네트워킹을 이용하는 것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에 취업한 석사들이 취업시 활용한 정보원에 비해 인터넷활용이 20% 포인트 정도 더 높고, 그 대신 지도교수나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20%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난다. 이는 곧 졸업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인적으로 취업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학교와의 네트워킹은 멀어짐을 반영한다. 50%의 미취업자는 1년 이내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석사도 4명중 1명을 넘어서고 있다. 예상하는 기간 내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42%는 눈높이를 조정하여 취업하겠다고 반응하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14%정도로 나타나며, 19%는 자신의 학위와 상관없는 일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향후 박사진학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정도는 이미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계획하고 있고, 50%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계획이 없다고 반응하고 있다. 앞서 진학동기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박사과정 진학계획 역시 인문계열이 높은 데 비해, 공학계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석사학위의 효용성에 대하여 대체로 석사들은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자기발전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는 사회적 인정 가치나 자기발전측면에서의 유용성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의 석사들은 이공계열 석사들에 비해 경제적인 효용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한다.

향후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전망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자신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이 50%에 불과하고 있고,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전망을 어렵게 보고 있다. 5년 이후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의 취업전망은 더욱 어렵게 보고 있는데 32%만이 취업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44%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비해 이공계열,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2.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득과정, 취득결과, 향후전망 및 계획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사회에서 석사학위의 의미 변화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석사과정은 전통적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선택하는 경향은 이제 매우 약하고, 그렇다고 자신을 업무능력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직근로자의 자기향상 과정으로 선택하는 경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대신, 신규입직자들이 석사학위를 받고 더 경쟁력을 갖추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취업준비단계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석사과정은 경제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선택행위일까? 1300여만 원에 달하는 직접경비, 2년 이상에 달하는 교육기간, 이에 따르는 기회비용 약 3,500여만 원 등 적어도 5,000여만 원 달하는 교육경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에는 표집수의 한계나 조사항목의 한계 상으로 인하여 어려우며, 또한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상당히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석사학위 취득이후 2여년이 지난 후에 4분의 3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이들 가운데 80%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즉, 3명중 2명은 정규직에 취업하게 되는데, 이들은 평균 근로소득이 2,600여만 원으로 4년제 대학졸업생들의 평균 급여인 2,300여만 원을 300만 원 정도 상회한다. 그러나 5명중 1명인 비정규직 풀타임은 근로소득의 평균이 2,000여만 원, 파트타이머는 900여만 원 대학졸업생의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6.7%는 구직중인 실직자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4명중 1명에게는 석사학위는 당장 취업활동에서의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점은 석사들의 석사학위의 경제적인 효용가치에 대하여 40%만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서도 일정한 정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자들의 소극적인 반응을 감안할 때, 다른 선택지가 없

어서 석사학위에 진학하였다는, 10%라는 적지 않은 석사들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한 사람들에 비해,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소득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나, 이들에게 석사 프레이엄의 효과는 적어도 소득 면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취업한 석사 가운데 3명중 1명은 자신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어 적어도 취업측면에서 교육 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정한 정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석사학위자들은 경제적인 효용가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사회적인 정이나 자기발전적인 측면의 가치를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곧, 전반적으로 보아 석사들은 석사학위취득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다. 이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교육선택행위가 반드시 경제적인 효과성의 잣대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적인 인식, 일정한 정도 이미 고학력 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길로 동승하고자 하는 심리 등 사회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점차 석사학위 진학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불완전한 취업상황에 있는 석사들의 취업활동지원에 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석사학위자들의 중요한 취업정보원이 인터넷채용사이트이긴 하지만, 특히 불완전한 취업상황에 있는 석사들의 인터넷 채용사이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에 비해 학교나 지도교수와의 네트워킹이나 지원활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취업자를 위한 채용사이트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대학 측에서도 석·박사학위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불완전취업자 가운데, 여의치 않으면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4명중 1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석사학위과정을 선택한 경우, 취업측면에서도 여전히 불리함을 겪고 있는 것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취업전망이나 박사진학과정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정보

60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

가 필요하다 하겠다.

제 3장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실태 조사

제1절 박사학위 취득과정

1. 박사과정 진학동기 및 박사과정 취득과정

가. 박사과정 진학동기

우리 나라 학생들의 박사과정 진학 동기에 대해 살펴보면(표 Ⅲ-1, 그림 Ⅲ-1),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는 진학동기의 평균이 4.48(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가장 높았고, 전문성 신장(자기발전)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한 진학 동기는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평균 1.7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직장에 승진하기 위해서 진학하였다는 경향도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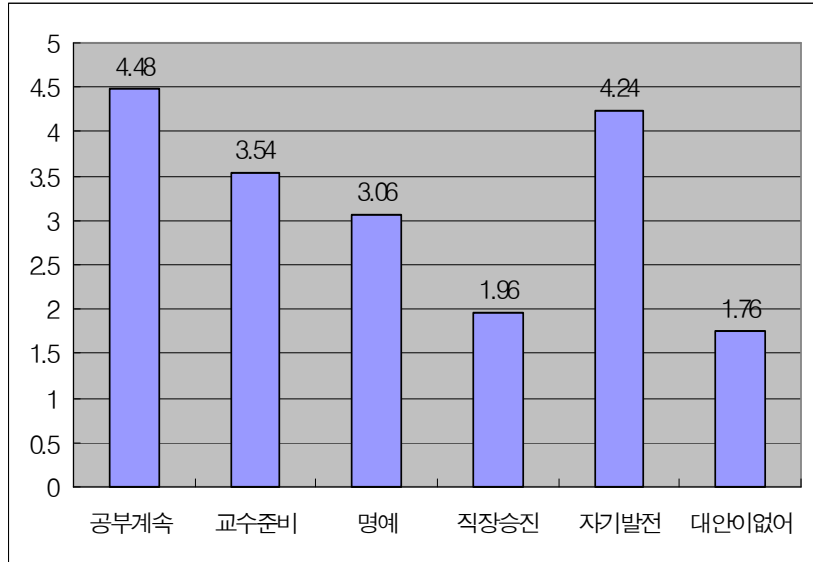
<표 III-1> 박사학위 진학 동기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	.7	6.5	36.6	56.2	100.0	4.48	.65	1
교수가 되기 위해	4.8	13.8	23.2	39.4	18.8	100.0	3.54	1.09	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	8.9	20.1	34.6	29.3	7.1	100.0	3.06	1.07	4
당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50.4	20.3	16.4	8.9	4.0	100.0	1.96	1.18	5
전문성 신장(자기발전)을 위해서	3.2	1.6	6.6	45.0	43.6	100.0	4.24	.89	2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51.9	30.0	10.3	5.4	2.4	100.0	1.76	1.00	6

주: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비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는 2000년도 선행조사(진미석 외, 2000)에서는 그 비율이 95%인 결과와 상당히 상이함을 보인다. 동일한 기준으로 표집이 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내박사들이 진학할 때 대학교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향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박사과정을 진학하였다는 박사는 약 8%에, 적어도 12명중의 1명 정도는 박사과정 진학에 있어 석사취득이후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고 반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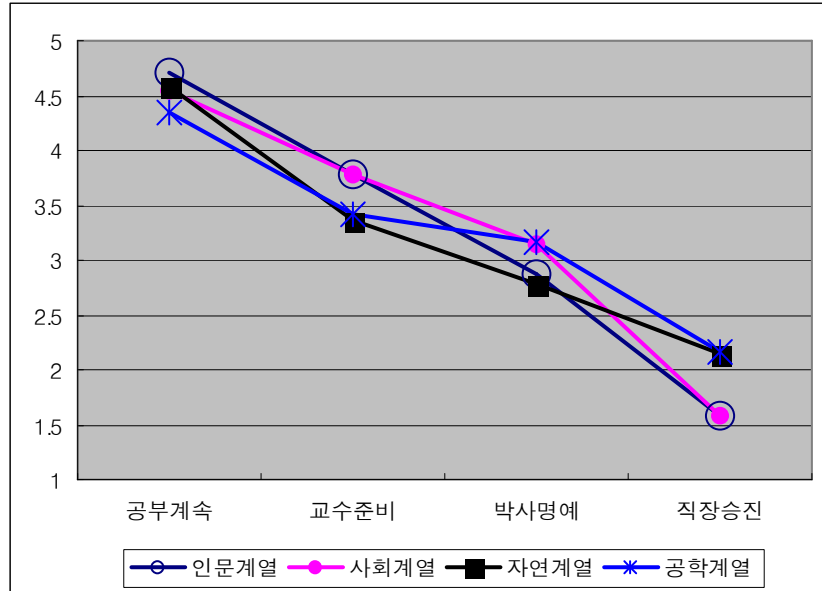
[그림 Ⅲ-1] 박사과정 진학동기



주: 5 매우 그렇다, 4 그런편이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박사과정 진학동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계열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이공계열의 경우 직장에 승진하기 위한 동기가 강한 반면, 교수가 되고자 하는 진학한 동기는 인문사회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2] 계열별 박사진학 동기



주: 1) 공부계속 $p < .000$, 교수준비 $p < .020$, 박사명예 $p < .009$, 직장승진 $p < .000$
 2) 5 매우 그렇다, 4 그런편이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한편, 전체적으로 선택지가 없어서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는 반응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출신대학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는 반응이 수도권대학 박사 취득자들이 지방대학 박사취득자들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p = .003$)으로 높게 나타난다(1.93 vs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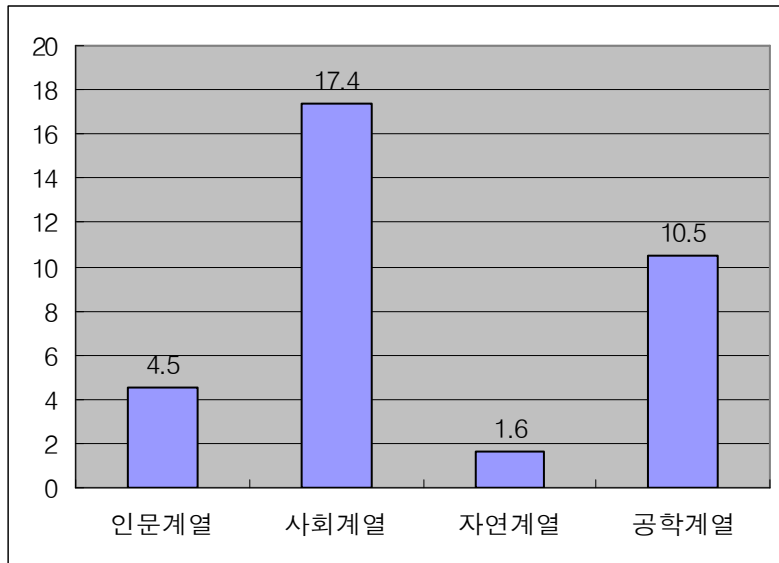
나. 전공변경 여부 및 전공 만족도

박사학위 취득자 중의 90.6%가 학부전공과 일치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9.4%가 변경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일수록 전공을 변경한 비율이 높아 공학계열의 경우는 10명 중 1명, 사회계열의 경우는 6명 중 1명은 전공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자연계열의 경우 전공을 변경한 학

생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3] 박사학위 전공변경 여부(n=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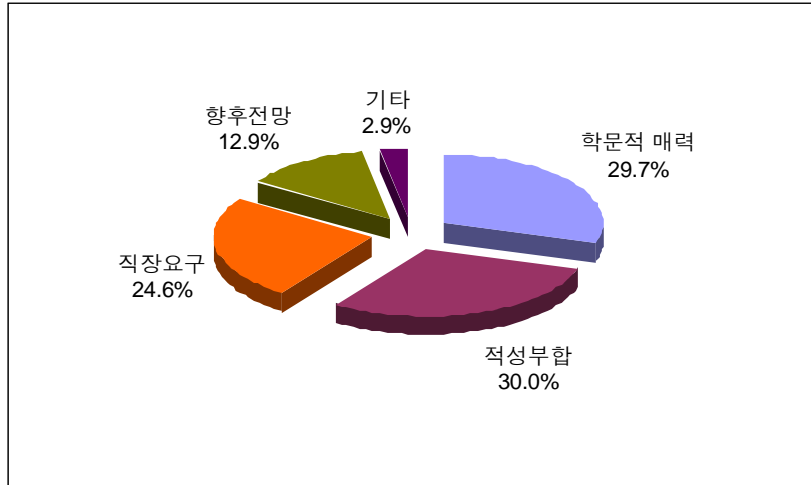
단위 : %



주: p<.008

학부전공에서 현재 전공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적성에 더 맞아서 바꾸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공의 학문적 매력에 이끌려 바꾸게 된 경우와 현재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공이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4명중 한명은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공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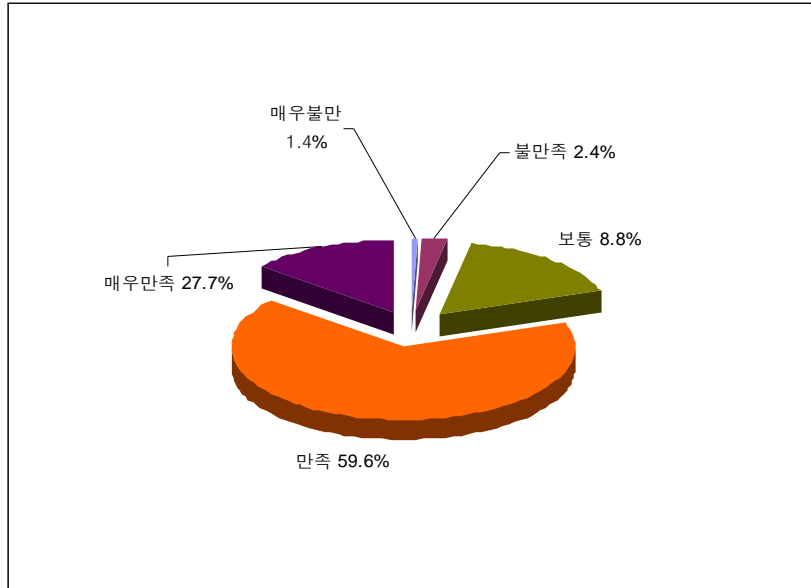
[그림 Ⅲ-4] 박사학위 전공변경이유(n=36)



전공변경자들은 전공변경에 대하여 88.9%가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신의 박사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7.3%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반응하고 있어 대체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전공에 대한 불만족 요인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있어 주로 박사학위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학업으로부터의 성취감 저하를 들고 있다.

[그림 Ⅲ-5] 박사학위 전공만족도(n=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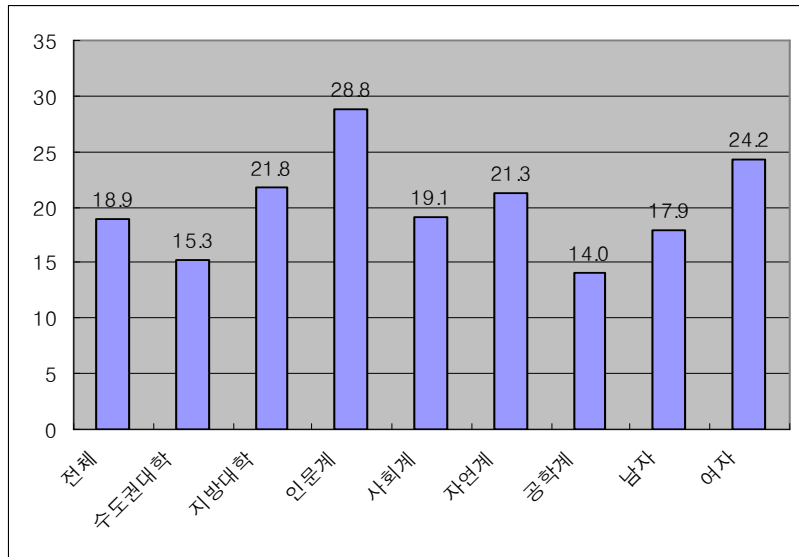
2. 박사학위 취득기간 및 경비

가. 취득기간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약 18.9%로 대체로 학생들은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중단 없이 학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전공계열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바 인문계나 사회계 등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학업중단률이 이공계열에 비해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이 높고 공학계열이 낮게 나타나 인문계박사의 경우 4명중 1명 정도는 박사과정도중에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나타난다. 또한 지방대 학생들이 수도권대 학생들에 비해 학업중단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6] 박사 과정 중 학업중단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



주: 지역별 p<.448, 전공별 p<.055, 성별 p<.234

박사과정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세분화되지 않은 기타이유를 든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 25.4%, 경제적 이유 17.9%를 들고 있다. 남녀별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자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50%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Ⅲ-2> 박사과정 중 학업 중단 이유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취업	14 (27.5)	3 (18.8)	17 (25.4)
가사 및 육아	-	8 (50.0)	8 (11.9)
질병	3 (5.9)	1 (6.3)	4 (6.0)
군복무	7 (13.7)	-	7 (10.4)
경제적 이유	11 (21.6)	1 (6.3)	12 (17.9)
기타	16 (31.4)	3 (18.8)	19 (28.4)
합계	51 (100.0)	16 (100.0)	67 (100.0)

주: ()는 해당항목의 비율,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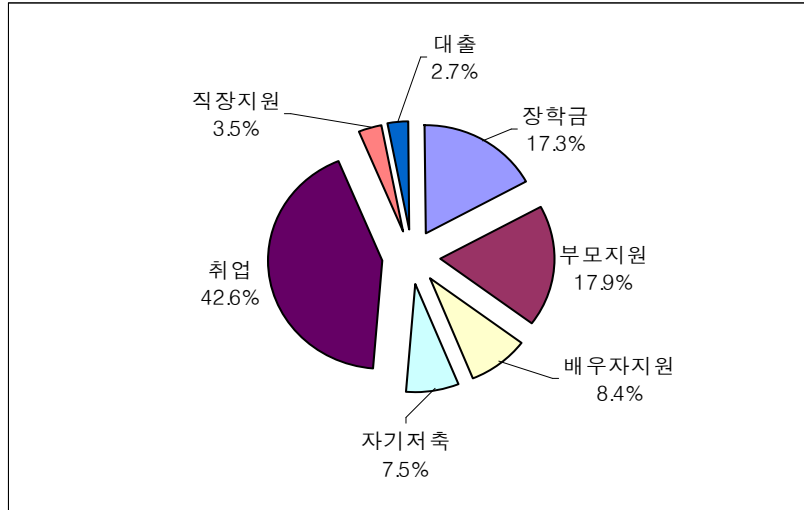
박사학위 취득기간은 평균 65.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난다. 박사학위 취득기간은 계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p=.000$),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의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취득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연계열은 평균 60.0개월, 공학계열은 평균 60.2개월, 인문계열은 평균 85.3개월¹⁴⁾, 사회계열은 평균 62.8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총경비

직접경비는 평균 2,47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표 III-3). 계열별 차이를 살펴보면,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이 평균을 상회하는데 비해 자연계열은 평균보다 약 400여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박사학위 동안의 경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신의 취업을 통해서가 평균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부모의 지원이 17.9%, 장학금으로 충당한 것이 17.3%로 나타난다. 이전 취업을 통한 저축이나 취업하여 충당한 부분이 약 50.0%를 차지하고 있고, 대출은 2.7%를 차지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 박사들은 박사학위 취득 경비의 4분의 3은 자기(부모)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 인문계열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학업자가 있어 평균값을 상당히 높이고 있음.

[그림 Ⅲ-7] 박사학위 취득 경비 조달 방법(n=367)



경비충당 비율은 계열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공계열일수록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취업을 하거나 부모나 배우자의 지원을 통해 충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Ⅲ-3> 박사학위 취득 경비 및 조달 방법 - 계열별 비교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전체
직접 경비(단위: 만원) *	2613.87	2420.79	2021.06	2584.46	2469.91
경비 조달: 장학금 (단위: %)**	9.7	17.0	16.5	20.8	17.3
경비 조달: 부모지원 (단위: %)	18.0	15.1	21.0	17.8	17.9
경비 조달: 배우자 지원(단위: %)*	10.5	10.8	4.6	7.9	8.4
경비 조달: 박사과정 이전의 저축(단위: %)	6.1	8.7	6.2	8.0	7.5
경비 조달: 과정 중 취업 (단위: %)	53.1	44.7	46.7	36.2	42.6
경비 조달: 직장 지원 (단위: %)*	-	-	4.9	5.8	3.5
경비 조달: 대출 (단위: %)	2.8	3.8	.4	3.2	2.7

주: *** P<.001, ** p<.01, * P<.05

또한 출신대학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지방대학출신일수록 박사학위 취득 경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비충당의 방법에서는 수도권학생들이 직장지원 비율이 높은 반면, 취업을 통한 충당 비율은 지방대학 출신이 높게 나타난다.

<표 III-4> 박사학위 취득 경비 및 조달 방법 -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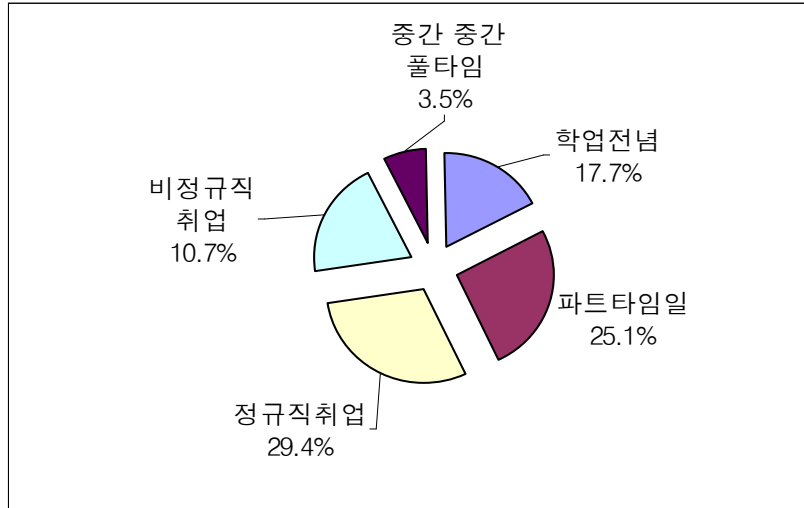
출신박사-대분류	서울소재 대학	지방소재 대학
직접 경비 (단위: 만원)***	2768.15	2212.90
경비 조달: 장학금 (단위: %)	19.2	15.8
경비 조달: 부모지원 (단위: %)	18.0	17.7
경비 조달: 배우자 지원(단위: %)	9.8	7.1
경비조달: 박사과정 이전의 저축 (단위: %)	8.1	7.0
경비 조달: 과정 중 취업 (단위: %)**	35.8	48.5
경비 조달: 직장 지원 (단위: %)**	6.5	.9
경비 조달: 대출 (단위: %)	2.4	3.0

주: *** P<.001, ** p<.01, * P<.05

다. 박사과정 중의 취업실태

박사과정 재학 중에 한 일에 대해 일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7.7%,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으로 가끔 일을 했지만 대체로 풀타임으로 학업에만 전념했다는 경우가 25.1%로 나타난다. 반면 박사과정 중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었다가 29.4%,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었다가 20.4%, 간헐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한 비율이 7.3%로, 학업에만 전념했다고 응답한 학생들(42.8%)보다 박사과정 중 일을 병행한 학생들(57.1%)의 비율이 다소 많게 나타난다. 그리고 박사과정 중에 이미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 즉 신규입직자가 아닌 기취업자 비율이 30%정도로 나타난다.

[그림 Ⅲ-8] 박사 과정 중의 취업실태(n=370)



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학업에만 전념하는 비율이 높고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취업과 병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공학계열의 경우 학업에만 전념하거나 대체로 전념한 비율이 48%에 이르는데 비해 인문계 32%, 사회계 35%에 불과하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계열간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지속적으로 취업한 비율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 장의 석사취득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공계열의 특성상 취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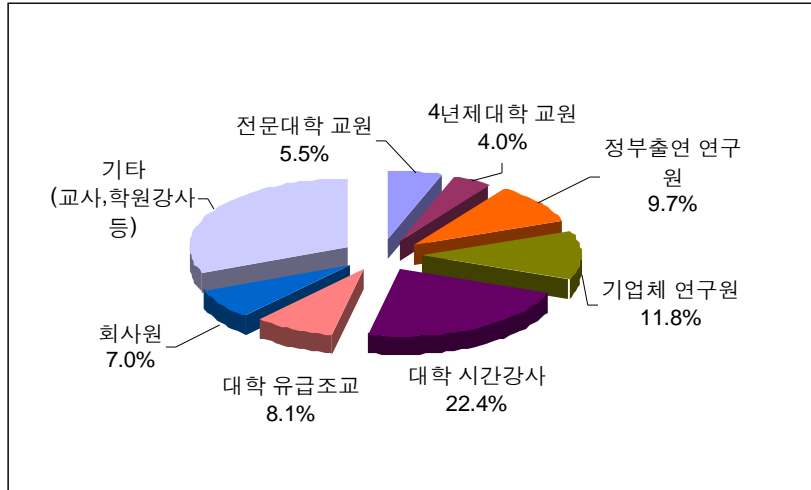
<표 III-5> 배경변인별 박사과정중 취업유형

구분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남자	여자
학업에만 전념	빈도	8	8	10	39	57	9
	%	12.1	11.4	16.4	22.7	18.8	13.6
일시적 아르바이트	빈도	14	17	16	46	73	20
	%	21.2	24.3	26.2	26.7	24.0	30.3
정규직 취업	빈도	18	24	18	49	95	14
	%	27.3	34.3	29.5	28.5	31.3	21.2
비정규직 취업	빈도	23	16	11	25	55	20
	%	34.8	22.9	18.0	14.5	18.1	30.3
간헐적 플타입취업	빈도	3	5	6	13	24	3
	%	4.5	7.1	9.8	7.6	7.9	4.5

주: 전공별 p<.120, 성별 p<.080

박사 과정 중에 주로 했던 일의 유형으로는 대학 강사가 가장 많았고,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정부출연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교원이나 4년제 대학 교원의 비율은 9.5%에 이르고 있다.

<그림 III-9> 박사과정 중 주로 했던 일의 유형(n=257)



제2절 박사취득 이후 진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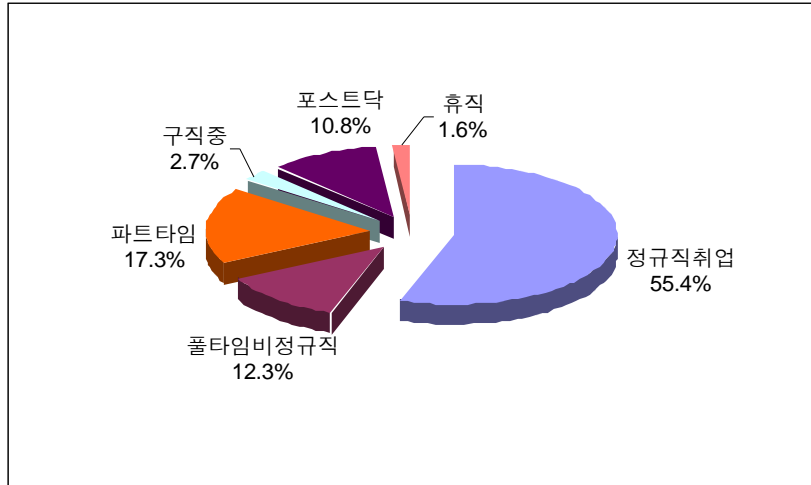
1. 현재 진로상황

가. 진로유형

1)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취득 이후 진로 상황

학위취득이후 1년 반 경과후의 현재 진로의 진로를 살펴본 결과 다음 그림과 같다. 전체 박사 중 55%가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30%, 포스트 닥으로 10%, 구직자가 2.6%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87.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10] 전체 박사취득자의 졸업 후 진로 상황(n=362)



졸업 후의 진로현황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출신대학원별, 전공계열별 진로상황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이 공학계열에 비해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포스트 닥 과정에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표 III-6> 전체 박사학위취득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 전공계열별)

단위 : %

구분	성별		박사전공-대분류				전체
	남자	여자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정규직 취업	58.9	37.5	31.8	50.7	52.5	66.9	55.1
플타임 비정규직 취업	10.8	18.8	22.7	15.9	10.2	7.7	12.2
파트타임 취업	14.5	29.7	39.4	26.1	6.8	8.3	17.2
포스트닥 과정	11.8	7.8	1.5	2.9	23.7	13.6	11.1
구직 중	2.7	3.1	-	2.9	3.4	3.6	2.7
집에서 쉬고 있음	1.3	3.1	4.5	1.4	3.4	-	1.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7		p<.000				

2) 신규입직자의 학위취득 이후 진로 상황

한편, 앞서 본 대로 박사과정중 이미 정규직에 취업한 기취업자를 제외하고 박사취득이후 직장을 찾아야 할 신규입직자들의 취업상황은 고급인력활용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III-7>은 신규입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학위취득이후 진로상황을 살펴 본 것이다.

신규입직자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은 36.5%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이머로 있는 경우가 40%를 넘어서고 있고, 구직중인 비율이 4%로, 졸업 후 1년 반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내 박사의 10명중의 4명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자 박사의 경우 취업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데, 신규입직 여자 박사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은 24%에 지나지 않고 58%가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자 박사들의 정규직 취업률은 44.8%이고 파트타임 비율은 19.8%에 그치고 있다. 남녀 간의 이와 같은 차이는 전공계열간의 차이를 일정한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계열별로 신규입직자의 경우 현재 진로현황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공학계열의 신규입직자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은 50%

를 상회하고 있고, 인문계열의 경우 17%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시간강사의 비율은 인문계열의 경우 50%에 이르고 있고, 공학계열의 경우 10%에 불과하다.

<표 III-7> 박사 취득자중 신규입직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 전공계열별)

구분	성별		박사전공-대분류				전체
	남자	여자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정규직 취업	44.6	24.0	17.0	37.8	34.1	53.3	36.5
플타임 비정규직 취업	13.7	24.0	25.5	20.0	12.2	10.8	17.1
파트타임 취업	19.6	34.0	48.9	35.6	9.8	11.7	25.8
포스트닥 과정	17.2	10.0	2.1	4.4	34.1	19.2	14.7
구직 중	3.4	4.0	-	2.2	4.9	5.0	3.6
집에서 쉬고 있음	1.5	4.0	6.4	-	4.9	-	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27		p<.000				

나. 세부전공별 취업상황

세부전공별로 다양한 취업관련지표로 정리하여 살펴본 결과를 <표 III-8>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회계열의 전공, 특히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과 공학계열의 정보통신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이공계열의 학과에서 낮은 경제활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학은 5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공계열 학위취득자들의 포스트닥 과정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규직 취업자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자(취업률1) 및 전체취득자(고용률1)가운데에서 살펴본 결과 대체로 화학공학, 전기전자, 정보통신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시간강사 비율은 국문학, 영문학, 역사철학, 법학, 수학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직 중에

있다고 명확하게 밝힌 실업자의 비율은 법학, 행정학, 물리학, 화학, 토목환경 전공에서 높게 나타난다.

<표 III-8> 박사 취득자의 세부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경제 활동	취업률 ¹⁾	취업률 ²⁾	파트 타이머비 율 ¹⁾	파트 타이머비 율 ²⁾	고용률 ¹⁾	고용률 ²⁾	실업률 ¹⁾	실업률 ²⁾
국문학	95.8	17.4*	43.5*	56.5	54.2	16.7*	41.7*	0*	0*
영문학	80.0	41.7*	50.0*	50.0	40.0	33.3*	40.0*	0*	0*
외국문학	94.1	75.0	75.0	25.0	23.5	70.6	70.6	0*	0*
역사철학	85.2	17.4	56.5*	43.5	37.0	14.8*	48.1*	0*	0*
법학	92.9	61.5	61.5*	30.8	28.6	57.1	57.1	7.1	7.7
행정학	86.7	69.2	69.2	23.1	20.0	60.0	60.0	6.7	7.7
사회심리	94.7	38.9*	72.2	27.8	26.3	36.8	68.4	0*	0*
경제학	100.0	33.3*	75.0	25.0	25.0	33.3*	75.0	0*	0*
경영학	100.0	63.2	73.7	26.3	26.3	63.2	73.7	0*	0*
교육학	100.0	52.4	76.2	23.8	23.8	52.4	76.2	0*	0*
물리학	76.5*	76.9	84.6	7.7*	5.9*	58.8	64.7	5.9	7.7
수학	88.2	33.3*	53.3*	46.7	41.2	29.4*	47.1*	0*	0*
생명과학	48.1*	61.5	100.0	0*	0*	29.6*	48.1*	0*	0*
화학	83.3	73.3	80.0	0*	0*	61.1	66.7	16.7	20.0
기계공학	72.2*	76.9	84.6	7.7*	5.6*	55.6	61.1	5.6	7.7
건축공학	76.2*	75.0	81.3	18.8	14.3	57.1	61.9	0*	0*
토목환경	82.4	57.1	71.4	14.3	11.8	47.1	58.8	11.8	14.3
화학공학	77.8*	85.7	92.9	7.1*	5.6*	66.7	72.2	0*	0*
전기전자	91.7	77.3	86.4	9.1	8.3	70.8	79.2	4.2	4.5
정보통신	100.0	82.8	93.1	6.9*	6.9	82.8	93.1	0*	0*
전체	85.0	58.4	74.3	22.7	19.3	49.6	63.2	2.5	2.9

주: 1) 취업률¹⁾=(정규직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100
 취업률²⁾=(정규직+비정규직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100
 파트타이머비율¹⁾=(파트타임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100
 파트타이머비율²⁾=(파트타임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100
 고용률¹⁾=(정규직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100
 고용률²⁾=(정규직+비정규직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100
 실업률¹⁾=(구직자/경제활동참가자)×100
 실업률²⁾=(구직자/전체학위취득자)×100
 2) 음영은 해당항목 상위 5개 학과, *은 해당항목 하위 5개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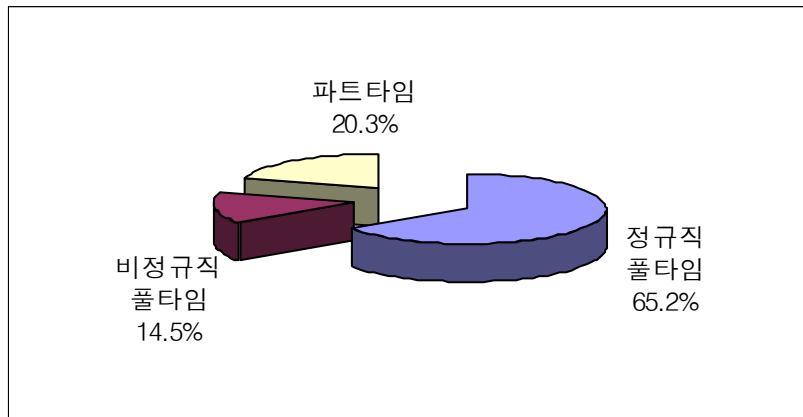
2. 취업자의 취업상황

현재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비정규직포함)대상으로 그들의 고용 및 임금상황을 살펴보았다.

가. 고용형태

전체 취업 박사 306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박사가 65.2%이고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을 하고 있는 박사가 14.5%. 파트타이머가 20.3%에 이르고 있다. 곧, 취업자가운데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이머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11] 박사 취업자의 취업형태(n=306)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데 관련을 갖고 있는가? 아래 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파트타이머 포함)을 나누는 요인들에 대한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한 요인은 전공계열, 성별, 출신대학원(수도권대학원 vs 지방대학원),

정규직기취업여부, 졸업 후 기간(졸업 후 4학기 후 vs 졸업 후 3학기 후), 진학 동기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정규직으로 기취업 여부, 성, 계열, 출신대학, 진학동기 중 교수준비요인으로 나타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박사과정중 이미 정규직에 취업한 사람일수록 정규직에 있을 확률이 높고 남자는 여자 보다 정규직에 있을 확률이 높고 공학계열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보다 정규직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교수를 하기 위해서 박사를 진학하지 않을수록 정규직 취업확률이 높아진다.

<표 III-9> 박사 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B	Std. Error	유의도	Exp(B)
상수	2.161	1.062	.042	
성(남자)	1.084	.447	.015	2.956
인문계열	-2.491	.513	.000	8.280E-02
사회계열	-1.070	.430	.013	.343
자연계열	-.250	.521	.631	.779
출신대학원	.385	.345	.265	1.469
졸업학기	-.175	.367	.634	.840
정규직 기취업여부	2.445	.556	.000	8.674E-02
교수준비(1)	1.713	.728	.019	5.545
교수준비(2)	.504	.435	.247	1.655
직장승진(1)	-.605	.712	.396	.546
직장승진(2)	-.675	.794	.395	.509
다른대안없음(1)	.580	.614	.345	1.786
다른대안없음(2)	.146	.756	.846	1.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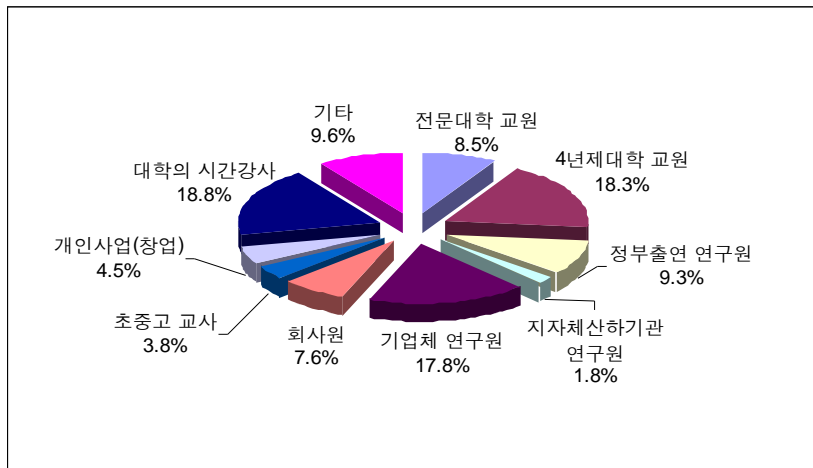
주: 성(남자 1:여자:0), 계열(공학계열기준), 출신대학원(수도권대학:1,지방대학:0기준), 졸업학기(2002년 2학기:1, 2003년 1학기:0), 정규직기취업여부(정규직기취업:1,미취업:0), 교수준비(1:아님, 2:그저그림, 3:그림기준), 직장승진(1:아님,2:그저그림, 3:그림기준), 다른대안없음(1:아님,2:그저그림, 3:그림기준)

나. 직업 및 취업기관 유형

1)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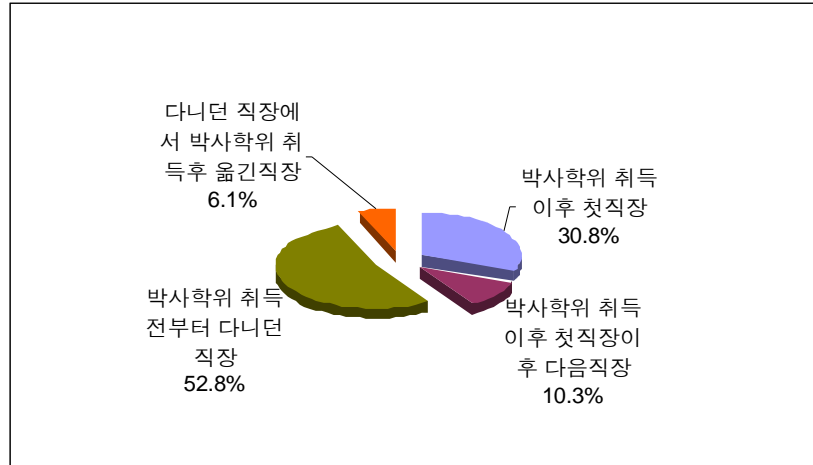
현재 다니고 있는 직업 유형에 대해 대학의 시간강사가 18.8%, 4년제 대학 교원이 18.3%, 민간 대기업체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7.8%로 나타나며, 전문대 교원이 8.5%, 일반 회사원이 7.6%, 개인사업이 4.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박사 취업자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n=297)



또한, 취업하고 있는 박사 가운데, 박사취득 이전부터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박사학위 취득이후 직장을 옮겼다고 반응한 비율이 58.9%이며, 직장을 처음 구한 박사들의 비율, 즉, 신규입직 박사의 비중은 41.1%로 나타난다.

[그림 Ⅲ-13] 박사 취업자의 현재 직장의 취업 시기(n=202)



2) 현재 일의 전공관련도 및 적정 학력수준

현재 일과 박사학위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299명 중 129명 (43.0%)이 박사 전공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높다가 125명(41.8%), 그저 그렇다가 33명(11.0%), 낮은편이다가 11명(3.6%), 매우 낮다가 2명(0.7%)이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박사 전공과의 관련도는 전체 평균 5점 만점 중 4.23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0> 현재 일과 박사학위 전공과의 관련도

구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빈도(명)	2	11	33	125	129	299	4.23	.831
백분율	.7	3.6	11.0	41.8	43.0	100.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수준과 박사학위 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03명중 200명으로 66.1%를 차지하였고,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3.3%,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0.5% 이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박사 학력수준과 맞지 않다고 반응한 응답자 가운데 82.1%는 석사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학사가 7%로 나타난다.

<표 III-11> 현재 일의 수준과 박사학위 수준의 적합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하다	200	66.1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101	33.3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2	.5
합계	303	100.0

<표 III-12> 현재 일에 적합한 학력

구분	빈도	백분율
학사	7	7.0
석사	84	82.1
기타	11	10.9
합계	102	100.0

3) 구직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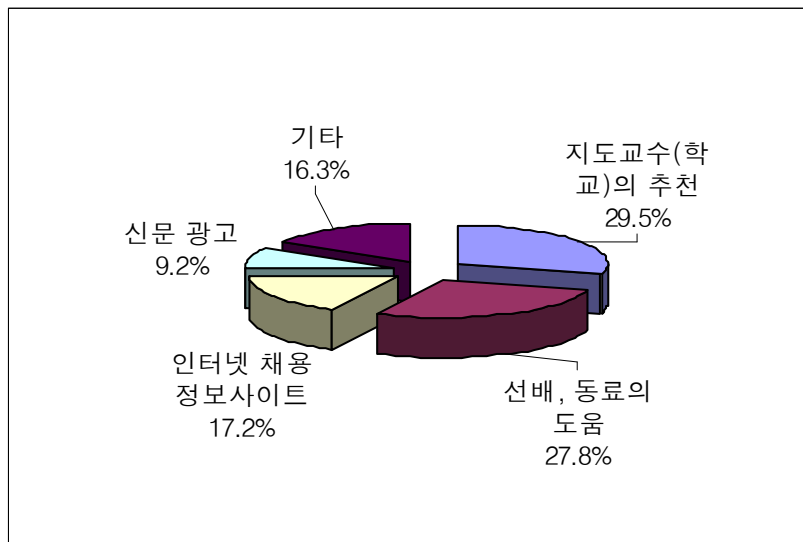
대체로 신규졸업자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까지 평균 6.74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응시회수는 3.74번이다. 현 직장을 구할 때 취업정보원으로 3명 중 1명은 지도교수(학교)의 추천을 받았고(29.5%), 선배, 동료의 도움이 27.8%, 인터넷 채용정보를 통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7.2%로 나타난다.

<표 III-13> 박사 취업자의 정규직취업까지의 기간 및 응시횟수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전체
정규직취업까지의 기간(개월)	17.33	6.34	3.90	5.70	6.74
응시횟수	1.60	5.04	2.73	3.70	3.74

주: 구직기간 $p < .4581$, 응시횟수 $p < .001$

[그림 III-14] 박사 취득자의 취업정보원(n=187)



다. 소득

취업한 박사들의 평균 소득은 3,733만원으로 나타난다. 평균소득은 성별, 전공계열별, 출신대학원별,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일수록, 공학계열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 1,150여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낮고, 공학계열에 비해 자연계열이 약 1,500여만 원이 낮게 나타난다.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자는 정규직 풀타임 취업자에 비

해 약 2,000여만 원, 그리고 시간강사는 정규직취업자에 비해 2,800여만 원 가
 량 소득이 낮다.

<표 III-14> 박사학위 취업자의 성별, 계열별 소득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정규직	비정규 풀타임	파트타 이머
평균	3733.3	3933.0	2789.4	2697.9	3915.2	3483.3	4170.7	4569.5	2624.0	1738.7
표준 편차	2022.5	2062.1	1513.9	1480.6	2953.1	1647.7	1626.8	1921.3	830.4	1087.4
		p=.000		p=.000				p=.000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
 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가 아래 <표 III-15>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현재의 정규직에 있을수록, 그리고 기취업자였을수록, 인문계
 열에 비해 사회계열이 더 높게 나타나며, 교수 진학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직장에 승진하기 위한 진학동기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5> 박사 취업자의 소득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7917.850	1256.120		6.303	.000
공부 계속	-60.508	179.374	-.019	-.337	.736
교수 준비	-366.781	104.400	-.195	-3.513	.001
박사학위 명예취득	83.611	101.283	.044	.826	.410
직장 승진	-181.158	103.945	-.099	-1.743	.083
전문성 신장	67.364	124.743	.029	.540	.590
다른 대안 없음	17.405	112.073	.008	.155	.877
정규직-비정규직	1696.393	261.658	.377	6.483	.000
성별	-291.602	288.909	-.052	-1.009	.314
사회계열(인문기준더미)	672.922	341.402	.129	1.971	.050
자연계열(인문기준더미)	-186.762	380.211	-.032	-.491	.624
공학계열(인문기준더미)	521.269	322.859	.124	1.615	.108
출신대학원	-217.049	213.661	-.052	-1.016	.311
졸업학기	-357.817	222.497	-.078	-1.608	.109
정규직 기취업여부	1281.653	261.686	.285	4.898	.000

주: 성(남자기준), 계열(공학계열기준), 출신대학원(수도권대학기준), 졸업학기(1:2002년 2학기, 0:2003년 1학기), 정규직기취업여부(정규직기취업 기준), 공부계속(1:전혀아님, 5:매우그림), 교수준비(1:전혀아님, 5:매우그림), 박사학위명예취득(1:전혀아님, 5:매우그림), 직장승진(1:전혀아님, 5:매우그림), 전문성신장(1:전혀아님, 5:매우그림), 다른대안없음(1:전혀아님, 5:매우그림), 정규직-비정규직(1:정규직, 0:비정규직),

라. 직업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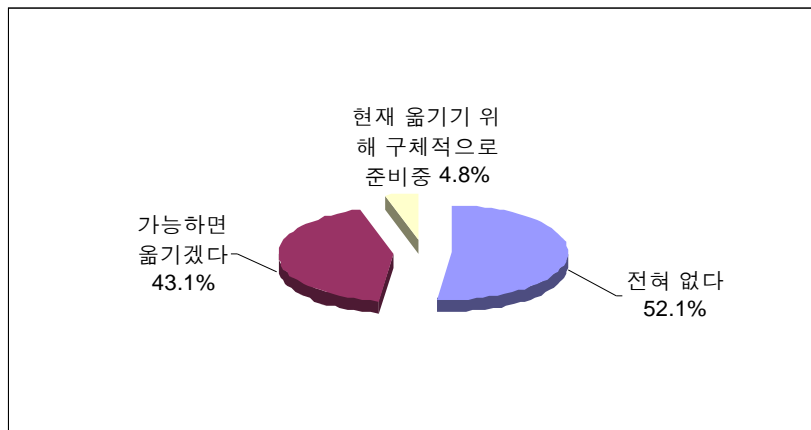
절반 정도의 취업하고 있는 박사 3분의 2정도는 대체로 직업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불만스럽다는 반응은 11%정도로 대체로 직업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6> 박사 취업자의 현재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스럽다	불만스러운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빈도(명)	6	29	70	155	44	303	3.66	.91
백분율	2.0	9.5	29.0	51.1	14.4	100.0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옮길 계획이 없는 박사학위자가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50%는 가능하면 옮기거나 현재 옮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III-15] 박사 취업자의 직장을 옮길 계획(n=199)



옮기고자 하는 기관으로 4년제 대학이 71.6%, 국공립 연구소가 8.7%, 기업체 연구소가 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박사 취업자의 옮기려는 직장 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전문대학	3	3.0
4년제 대학	67	71.6
국공립 연구소	8	8.7
기업체 연구소	4	4.5
개인사업	2	1.7
기타	10	10.5
합계	93	100.0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안정성을 들고 있다(36.6%). 다음으로는 사회적 인정도(17.1%),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13.6%), 보수(13.2%)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I-18> 박사 취업자의 직장을 옮기려는 첫 번째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보수	13	13.2
안정성	35	36.6
사회적 인정도	16	17.1
가족거주지와의 거리	3	2.9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13	13.6
직장 분위기	7	6.9
업무부담	5	4.8
직장의 사정상	1	1.1
기타	4	3.7
합계	96	100.0

3. 불완전취업자(미취업자, 구직자등)의 실태

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요인

구직자나 파트타이머, 임시직 등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불완전취업자들은 자신이 정규직에 취업하지 않은 요인으로 국내박사차별 관행을 가장 많이 지

적하였고(평균 4.2), 전공분야의 취업처 부족(평균 4.2),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기다린다(평균 3.8), 학연·지연 등의 불공정한 임용(3.6) 순이었다.

또한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은 이공계열보다 취업처의 부족을 큰 요인으로 지적한데 반해 이공계열은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기다린다가 보다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차별 관행 요인에 대한 남성박사에 비해 여성박사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19> 박사 불완전취업 자의 불완전취업 요인에 대한 인식

구분	남	여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공학계	전체
당장 취업할 곳은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기다림	3.8	3.6	3.5	3.5	3.8	4.1	3.8
전공분야의 취업처 부족	4.2	4.2	4.4	4.3	4.2	4.0	4.2
취업시 학연, 지연 등 불공정한 임용	3.6	3.7	3.8	4.0	3.4	3.4	3.6
전공분야의 자신의 실력부족	2.3	2.5	2.2	2.2	2.7	2.5	2.4
취업을 위한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부족	2.5	2.8	2.6	2.4	2.7	2.6	2.6
좁은 인간관계 폭	2.5	3.0	2.8	2.9	2.7	2.4	2.6
가사와 육아부담	2.0	2.5	2.8	1.8	2.6	2.0	2.1
포스트닥으로의 진학	2.7	2.5	1.6	2.1	3.5	3.1	2.6
취업정보의 부족	2.8	2.9	2.8	3.0	2.9	2.7	2.8
학부 전공과의 불일치	1.8	1.8	1.6	1.9	1.9	1.8	1.8
연령	2.6	2.6	2.7	2.7	2.5	2.5	2.6
성차별 관행	1.8	3.3	2.5	2.4	2.2	1.9	2.2
국내박사 차별 관행	4.2	4.3	3.9	4.0	4.1	4.5	4.2

주: 1점: 전혀 그렇디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그렇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기다림 (성별:p<.438, 전공별:p<.047), 취업처부족(p<.875, p<.117), 불공정한임용(p<.639, p<.049), 실력 부족(p<.340, p<.081), 적극적인노력부족(p<.041, p<.478), 좁은인간관계(p<.009, p<.190), 가사와 육아부담(p<.025, p<.053), 포스트닥진학(p<.617, p<.000), 취업정보부족(p<.722, p<.710), 학부 전공과의 불일치(p<.751, p<.634), 연령(p<.720, p<.843), 성차별관행(p<.000,p<.045), 국내석박사차별관행(p<.486, p<.075)

나. 취업 희망 직장 형태 및 직장 선택시 고려 사항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 형태에 대해 국공립 연구기관이라고 응답한 박사가 40.2%, 4년제 대학이 26.0%으로 나타나 미취업 박사 3분의 2가 4년제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눈높이를 낮추어 정규직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비율은 8.3%에 불과하다.

<표 III-20> 박사 미취업자의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 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전문대학	2	4.1
4년제 대학	12	26.0
국공립 연구소	19	40.2
기업체 연구소	3	7.0
일반 기업체	1	2.9
정규직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음	4	8.3
기타	5	11.5
합계	48	100.0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안정성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51.8%로 가장 많았고,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30.7%, 사회적 인정도가 3.0%, 보수가 18.1%, 가족 거주지와의 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응답자가 1.5%였다.

<표 III-21> 박사 미취업자의 직장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보수	3	7.0
안정성	25	51.8
사회적 인정도	4	9.0
가족거주지와의 거리	1	1.5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15	30.7
합계	49	100.0

박사학위가 정규직에 취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0.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지 그렇다가 27.5%,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가 15.7%,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가 4.0%, 도움이 안될 것이다가 2.9%였다.

다. 구직 노력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논문작성 및 학회발표 등의 연구실적 쌓기가 71.1%로 가장 많았고, 취업 정보 수집이 20.6%, 교수님과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강화가 4.2, 기타가 4.2% 순이었다.

<표 III-22> 박사 미취업자의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

구분	빈도	백분율
논문작성 학회발표등 연구실적 쌓기	34	71.1
교수님,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2	4.2
취업 정보 수집	10	20.6
기타	2	4.2
합계	47	100.0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얻는 경우가 56.5%로 가장 많았고, 선배, 동료의 도움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29.4%, 지도교수(학 교)의 추천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6.9%, 기타가 7.3%로 나타났다.

<표 III-23> 박사 미취업자의 취업관련 정보원

구분	빈도	백분율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3	6.9
선배, 동료의 도움	14	29.4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28	56.5
기타	4	7.3
합계	49	100.0

라. 취업 예상 기간 및 향후계획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1~2년 사이가 33.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가 23.8%, 1~6개월 이내로 응답한 경우가 16.1%, 3~5년 사이가 13.6%, 2~3년 사이가 11.6%, 5년 이상이 1.2% 였다. 학위취득한 이후 1년 반 경과한 시점에서 3분의 2 이상의 박사들은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 III-24> 박사 미취업자의 취업예상 기간

구분	빈도	백분율
6개월 이내	8	16.1
1년 이내	11	23.8
1~2년 사이	16	33.7
2~3년 사이	5	11.6
3~5년 사이	6	13.6
5년 이상	1	1.2
합계	47	100.0

예상하고 있는 기간 내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눈높이를 조정해서 풀타임 직장으로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겠다고 17.0%,

계속 기다리겠다는 응답이 13.5%, 기타 의견이 6.0%였다.

<표 III-25> 예상 기간 내 취업이 안 될 경우 박사 미취업자의 계획

구분	빈도	백분율
계속 기다리겠다	6	13.5
눈높이를 조정해서 풀타임 직장으로 취업	30	63.5
박사학위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함	8	17.0
기타	3	6.0
합계	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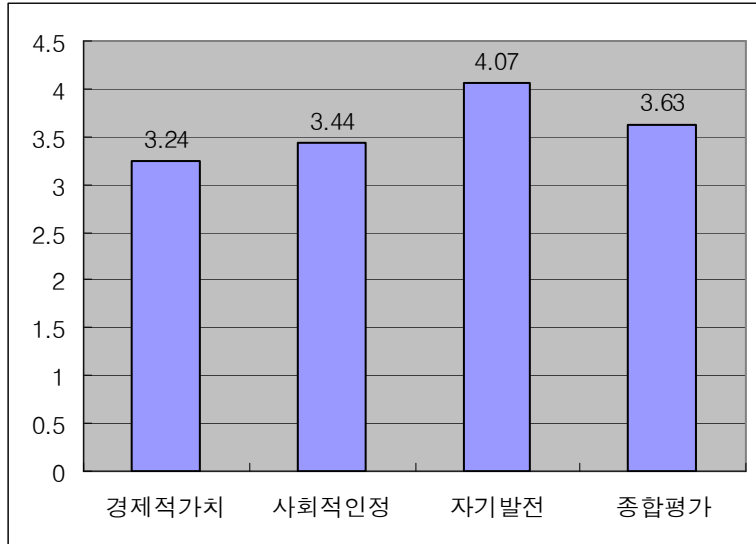
제3절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 효용 가치 및 취업 전망

1. 박사학위 효용 가치에 대한 평가

가. 전반적 평가

본인의 박사학위 효용 가치를 경제적 측면, 자기발전적 측면, 사회적 인적 측면, 종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박사들은 자기발전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5점:매우 유용함1: 전혀유용하지 않음의 5점척도)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인정, 경제적인 측면(3.24)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비교적 유용한 편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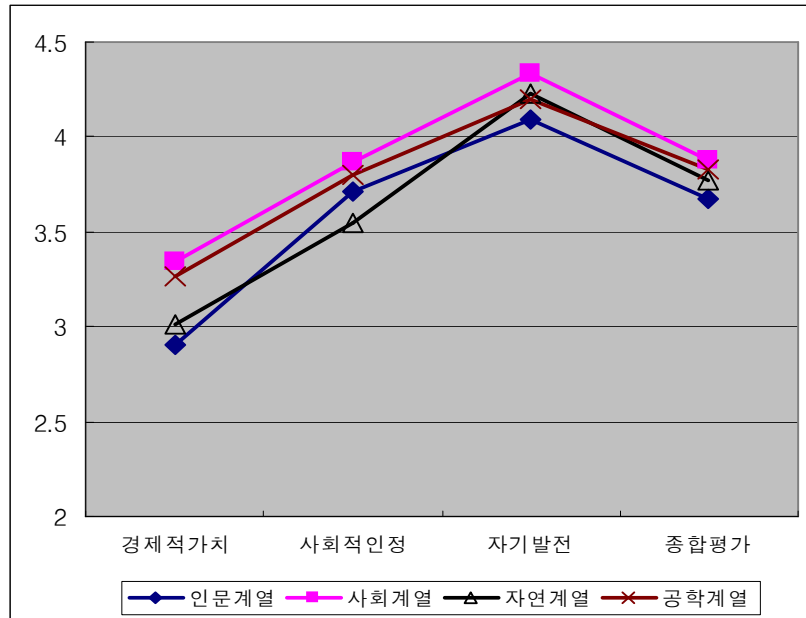
[그림 Ⅲ-16] 박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



주: 5 매우 그렇다, 4 그런편이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열별로 박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판단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의 박사들이 인문계열과 공학계열 박사들보다 박사 효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계열이 타 계열에 비해 전체적으로 박사효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림 Ⅲ-17] 계열별 박사학위의 효용가치 평가



주: 1) 경제적 가치 $p < .012$, 사회적 인정 $p < .359$, 자기발전 $p < .271$, 종합평가 $p < .440$
 2) 5 매우 그렇다, 4 그런편이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나. 세부전공별 박사학위 효용가치평가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역사철학 등이 상위 5개 학과이며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학과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공학, 법학, 행정학이 상위 5개학과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인정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학과는 외국문학, 정보통신,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이다. 한편 자기 발전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상위 5개 학과에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생명과학, 정보통신전공이며, 그리고 박사학위 효용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정보통신, 기계공학, 건축공학, 경영학, 교육학, 행정학, 법학 등이 박사학위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전공이다.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국문학, 외국문학, 사회심리, 이공계열에서는 수학, 토목공학으로 나타난다. 한편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5개 학과는 법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물리학, 전기전자 등으로 나타난다.

<표 III-26> 세부전공별 박사학위 효용가치평가

석전중계	박사학위 전공과 학부진공 일치 여부	박사전공 에 대한 만족도	박사학위 효용가치: 경제적인 측면	박사학위 효용가치: 사회적 인정 측면	박사학위 효용가치: 자기 발전의 측면	박사학위 효용가치: 종합적	평균소득
국문학	1.00	4.21	2.82*	3.48*	3.96*	3.71	2226.19
영문학	1.07	4.13	3.20	3.60	4.20	3.60*	2664.17
외국문학	1.06	3.94*	2.71*	4.18	4.18	3.59*	3356.67
역사철학	1.08	4.37	2.93	3.67	4.08*	3.73	2367.27
법학	1.21	4.29	3.43	4.00	4.43	3.93	5400.00
행정학	1.27	4.40	3.67	4.07	4.47	4.07	3668.18
사회심리	1.16	4.21	3.26	3.95	4.16	3.68*	3355.56
경제학	1.25	4.42	3.17	3.33*	4.50	3.83	2562.50
경영학	1.21	4.26	3.21	3.89	4.21	3.95	4115.79
교육학	1.25	4.10	3.14	3.76	4.19	3.95	2652.50
물리학	1.06	4.06	2.76*	3.41*	4.35	3.88	4187.27
수학	1.00	3.59*	2.88*	3.18*	3.88*	3.47	2126.67
생명과학	1.04	4.04	3.07	3.78	4.41	3.89	3241.67
화학	1.00	3.78*	3.22	3.61	4.33	3.72	3866.67
기계공학	1.11	3.89*	3.61	4.00	4.17	4.06	4725.00
건축공학	1.05	4.14	3.24	4.05	4.19	3.95	4128.57
토목공학	1.00	4.00	2.69*	3.44*	3.81*	3.50*	3983.33
화학공학	1.17	4.00	3.22	3.67	4.11*	3.78	4414.29
전기전자	1.13	3.96	3.38	3.67	4.25	3.67*	4169.05
정보통신	1.17	4.17	3.38	4.00	4.38	4.00	4000.00
전체	1.11	4.10	3.15	3.75	4.22	3.81	3733.3

주: 1) 음영은 해당학과 상위 5개 학과 * 하위 5개 학과
 2) *는 해당항목의 만족도 하위 5개 학과

2. 향후전망

가. 향후 전공분야의 전반적인 전망

1) 전체 취업처로 볼 때 박사학위취득자의 3년 이내 전공분야로의 취업 예상

자신의 학위 전공분야에서 올해 배출되는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학위 취득이후 3년 이내에 전공분야로의 취업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해 그저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32.7%로 가장 많았고, 낮은 편이다 29.1%, 높은 편이다 21.9%순이었다. 전체 취업처로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이 2.88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계열별로 볼 때, 공학계열이 3.45인데 반해 인문계열은 평균보다 낮은 2.16으로 나타나, 인문계열의 박사들이 타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대학원 출신들의 박사들이 취업전망을 어렵게 보고 있다.

<표 III-27> 박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전체 취업처로의 취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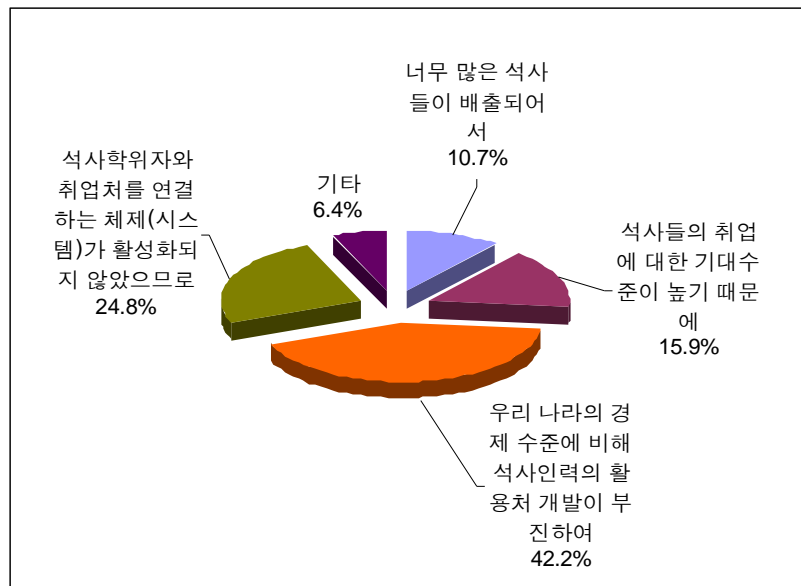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623)	인문계열 (81)	사회계열 (77)	자연계열 (73)	공학계열 (130)	수도권 (179)	지방대 (182)
매우낮다	9.4	25.9	3.9	11.0	1.5	9.5	9.3
낮은편이다	29.1	42.0	35.1	35.6	13.8	21.8	36.3
그저그렇다	32.7	22.2	33.8	35.6	36.9	33.0	32.4
높은편이다	21.9	9.9	18.2	17.8	33.8	27.4	16.5
매우높다	6.9	-	9.1	-	13.8	8.4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32.732, p=.000				F=7.581, p=.006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박사들의 취업가능성이 낮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박사 인력의 활용처 개발이 부진하여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0.4%로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자와 취업처

를 연결하는 체제(시스템)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가 23.5%, 너무 많은 박사들이 배출되어서 12.8%, 박사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인가 5.8%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18] 박사학위 전공분야 취업 가능성이 낮은 이유



2) 박사학위취득자의 3년 이내 전공분야 대학교원으로서의 취업 예상

박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대학교원으로서의 취업은 매우 낮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편이다가 32.0%인데 비해 대학교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비율은 8.3%로 그치고 있어 국내 박사학위자들의 대학 교원 취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계열별로 봤을 때는 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타 계열에 비해 다소 높은 기대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28> 박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대학교원으로의 취업 예상

단위 : %

구분	전체 (338)	인문계열 (73)	사회계열 (74)	자연계열 (65)	공학계열 (126)	수도권 (170)	지방대 (168)
매우낮다	41.1	58.9	35.1	49.2	30.2	37.6	44.6
낮은편이다	32.0	32.9	32.4	33.8	30.2	32.9	31.0
그저그렇다	18.6	4.1	23.0	7.7	30.2	18.2	19.0
높은편이다	7.1	4.1	6.8	7.7	8.7	9.4	4.8
매우높다	1.2	-	2.7	1.5	.8	1.8	.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8.530, p=.000	F=3.101, p=.079	

주: ()는 사례수

3) 박사학위 취득자가 본 향후 5년 전공분야 학부졸업자의 취업전망

향후 5년 자신의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들의 취업 전망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7%, 긍정적인 전망이 33%, 부정적인 전망이 30%로 그다지 밝게 보고 있지는 않다. 공학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보다 비교적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고, 인문계열은 전망이 어둡다고 보는 비율이 밝다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아 인문계열 취업전망이 어둡다고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표 III-29> 박사학위취득자가 본 향후 5년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의 취업 전망

단위 : %

구분	전체 (365)	인문계열 (83)	사회계열 (77)	자연계열 (73)	공학계열 (132)
매우 어둡다	5.8	12.0	3.9	2.3	5.8
어두운 편이다	23.8	36.1	26.0	14.4	23.8
그저그렇다	37.5	39.8	42.9	33.3	37.5
밝은 편이다	29.0	10.8	24.7	43.2	29.0
매우 밝다	3.8	1.2	2.6	6.8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F=15.245, p=.000

주: ()는 사례수

나. 세부전공별 취업전망

세부전공별로 향후 취업전망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것이 아래 표이다. 기계공학, 토목환경, 화학공학, 전기전자, 정보통신이 전공 박사들이 관련분야에 박사학위 전공자가 3년 이내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5개학과이며, 대학교원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학과는 기계공학, 건축공학, 정보통신, 행정학, 경영학으로 나타난다. 향후 5년, 자신의 전공분야 학부생의 전공분야 취업가능성에 대하여 경영학 생명과학, 기계공학, 전기전자, 정보통신등의 전공분야가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3년 이내에 취업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 하위 5개 학과로는 국문학, 영문학, 외국어문학, 역사철학, 수학기이며, 대학교원으로 취업할 가능성 평가에 대한 평가 하위 5개 학과에는 국문학, 영문학, 역사철학, 경제학, 수학기로 나타난다. 그리고 향후 5년, 자신의 전공분야 학부생의 전공분야 취업가능성에 대하여 국문학, 역사철학, 법학, 사회심리, 수학 등의 학과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학부졸업생에 비해 박사학위취득자의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학과로는 외국어문학, 수학, 경영학, 교육학, 물리학 등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학과는 두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건축공학, 토목환경,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으로 학사와 박사의 취업전망이 비교적 모두 좋으면서 박사의 취업전망을 더 낙관적으로 보는 전공과 경제학, 사회심리 등과 같이 학부와 석사의 취업전망이 모두 부정적이면서 특히 학사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강한 전공이다. 전자의 경우, 박사학위의 효용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표 III-30> 박사 세부전공별 향후 취업전망

석전종계	학위취득 3년 이내 취업가능 비율: 대학교원으로	학위취득 3년 이내 취업가능 비율: 전체취업처(A)	향후 5년 후 전공분야 학부졸업생의 취업전망(B)	(A-B)
국문학	1.33*	1.78*	2.38*	-.6
영문학	1.69*	2.60*	2.93	-.33
외국어문학	2.00	2.24*	2.88	-.64
역사철학	1.33*	2.19*	2.22*	-.03
법학	2.17	2.71	2.71*	0
행정학	2.33	2.93	2.93	0
사회심리	2.00	2.78	2.67*	.11
경제학	1.50*	3.17	2.83	.34
경영학	2.33	3.11	3.56	-.45
교육학	2.00	2.62	3.05	-.43
물리학	2.07	2.65	3.06	-.41
수학	1.71*	2.18*	2.76*	-.58
생명과학	1.88	3.04	3.19	-.15
화학	1.71*	2.67	2.94	-.27
기계공학	2.24	3.39	3.61	-.22
건축공학	2.24	3.14	2.95	.19
토목환경	1.71*	3.29	3.06	.23
화학공학	1.88	3.24	3.18	.06
전기전자	2.09	3.71	3.63	.08
정보통신	2.67	3.67	3.59	.08
합계	1.96	2.88	3.04	-.16

주: 1)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
 2) 음영은 상위 5개학과, *는 하위 5개 학과

제4절 소결

1. 요약

본 장에서는 학위취득 후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박사의 진학동기, 박사학위 취득과정, 취득이후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진학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박사학위는 교수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종전의 기대는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교수가 되기 위해 진학하였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 박사들은 60%에 지나지 않아 2000년도의 선행조사 95%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청년실업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박사과정을 선택하였다는 비율도 10명중의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진학동기에서 볼 때, 전공계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수로 연결되는 길로 박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았고, 공학계열의 경우, 직장에서의 승진등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박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박사과정 중에 정규직에 이미 취업하고 있는 기취업자가 30%라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을 해야 하는 신규입직자가 70% 이다.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기취업자와 신규취업자는 취업현황에 있어서나 박사학위의 투자가치 등에 있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태조사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들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고 고학력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신규입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대체로 10명중 4명의 박사들은 학업에 주로 전념하지만 10명중 5명은 풀타임으로 취업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취업과 병행한 비율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이공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박사과정의 수학 기간은 평균

65.3개월로 11학기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며, 인문계열의 경우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공계열 특히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 5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학생들의 소요 경비를 부모나 자기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고,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전체 소요경비의 17%에 지나지 않는다. 박사과정의 학생들이라도 부모로부터 소요경비의 18%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사학위 취득이후의 진로는 학위 취득후 1년 반 지난시점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88%에 이르고 있고,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55.4%이며, 비정규직에 12.3%, 시간강사 등의 파트타이머가 17.3%에 이르고 있다. 박사취득자 가운데 10명중 1명은 포스트 닥에 진학하고 있고, 구직 중에 있는 비율은 2.7%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신규입직자로 국한하여 볼 때, 정규직 취업률은 37%에 그치고 있고, 43%가 비정규직 취업이나 파트타임 취업 등 불완전 취업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은 24%에 그치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은 58%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의 차이는 일정한 정도 계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바, 인문계열의 경우 정규직의 취업률이 낮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취업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학위취득이후 약 6.74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응시횟수는 3.74번으로 나타난다. 정규직에 취업하는 기간은 이공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적게 걸린다.

취업한 박사학위자 가운데 18%가 4년제 대학교원으로 일하고 있고, 19%가 대학 강사로, 18%가 기업연구소에, 9%가 정부출연연구소, 8.5%가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취업하고 있다. 취업한 박사학위자 가운데 41%만이 신규로 입직한 박사로서 나타난다. 현재 직무와 전공과의 유관성에 대하여 관련성이 낮다고 반응한 사람은 4.3%에 지나지 않고 85%는 관련성이 있다고 반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공과 직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수준에 대하여 66%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해 33%의 박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학력수준이 석사이하의 학력수준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현재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직

장을 옮기고자 하고 있고, 이직대상으로 72%가 대학교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직의 동기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이 안정성과 사회적 인정도로 나타난다.

취업한 박사들의 평균 소득은 3933만원으로 나타난다. 평균소득은 성별, 전공계열별,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일수록, 공학계열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박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예상할 수 있듯이 고용형태, 즉 정규직여부로 매우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난다. 성이나 전공계열, 출신대학원등, 관련배경변인들은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정규직 취업자나 시간강사, 구직자 등 불완전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들은 자신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박사에 대한 차별과 전공분야 취업처 부족, 그리고 불공정 임용 등의 구조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취업처를 기다리고 있다는 즉, 자신의 눈높이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실력부족, 인간관계 부족, 자신의 노력 부족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을 지적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희망취업기관으로 10명중 4명은 국공립연구기관, 4명중 1명은 4년제 대학을 들고 있고, 이들의 직업선택기준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정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70%는 논문 등 연구실적쌓기, 그리고 20%는 취업정보수집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미취업자중 57%가 취업정보수집을 위해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고, 30%는 동료나 선배 등 개인적인 네트워킹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도교수나 학교 추천 등 학교의 네트워킹을 이용하는 것은 7%에 불과하였다. 40%의 미취업자는 1년 이내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박사도 4명중 1명을 넘어서고 있다. 예상하는 기간 내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3.5%는 눈높이를 조정하여 취업하겠다고 반응하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20%정도로 나타나며, 17%는 자신의 학위와 상관없는 일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사학위의 효용성에 대하여 대체로 박사들은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자기발전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는 사회적 인정가치나 자기발전측면에서의 유용성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등 기초학문계열의 박사들이 사회계열이나 공학계열 박사들에 비해 경제적인 효용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한다.

향후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전망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자신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이 27%에 불과하고,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10%만이 취업전망이 높다고 반응하고 있어 취업전망을 매우 어렵게 보고 있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학교원으로의 취업전망에 대해 더욱 어렵게 평가하고 있어 8.3%만이 대학교원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인문계열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낮아 4%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2.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득과정, 취득결과, 향후전망 및 계획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와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에서 박사학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현재의 박사과정은 전통적인 기대와는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고자 하는 진학동기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박사취득자들의 향후 취업전망에 대한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박사학위취득자 특히 국내박사학위자들이 3년 이내에 대학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어도 이제 박사학위는 바로 교수라는 등식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적어도 국내 박사의 경우 3분의 1정도는 이미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학위과정을 하고 학위를 취득한다는 사실은 학사취득-석사취득-박사학위취득-교수(연구원)의 경로와 같은 단선적인 커리어이외에 학사취득-석사취득-취업-박사취득-취업 과 같이 학업과 취업간의 관계가 쌍방향으로 연계되는 복합적인 커리어 유형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음을 보인다.

한편,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반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 취득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고 신규입직 박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나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불완전한 취업상황에 있어 박사학위자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박사나 인문계열의 박사들이 경우 시간강사의 비율이 40%에 다다르고 있다. 더욱이 불완전취업자들의 3분의 2 이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박사취득 후 2-3년간의 기간, 특히 신규입직자들의 절반 이상은 매우 불완전한 취업상황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강사의 소득은 1,700여만 원,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자는 2,600여만 원 정도로 학사들의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사후 2-3년간의 불안정한 시기는 박사취득자 개인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또한 고급인력의 활용이라는 국가 인적자원관리라는 관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강사의 지위가 최근 들어 개선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가장 왕성하게 연구 활동과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대로 활용할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트 닥 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강사를 과도기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 자체를 독자적인 지위로 인정하고 대우할 필요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하겠다.

또한, 일정한 정도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감안하더라도, 불완전취업박사들의 불완전취업원인으로 국내 박사 차별의 관행이나 불공정한 임용이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임용과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지속적으로 공정한 임용과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불완전한 취업상황에 있는 박사들의 취업활동에 대한 반응에서나 미취업요인에 대한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과 같은 민간부문의 고급인력채용지원사이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전공별, 학위급별, 성별 등으로 더 다양한 채용지원사이트들

이 개설 운영되어 취업정보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채용지원사이트는 학술진흥의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20개 주요대학의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1,200 여명의 국내 석·박사 취득자의 학위 취득이후 1년 반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들의 취업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석사와 박사는 후자는 중국교육이라는 점, 그리고 학위취득기간이나 경비 등이 전자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양자를 묶어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분석방법이 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II장과 III장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석·박사 학위취득자 취업조사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박사학위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으로 박사학위는 중국교육으로서, 그리고 석사학위는 박사학위의 중간과정으로서, 대학교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조사의 결과, 국내 박사학위자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미 박사학위는 대학교수로의 준비과정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진학동기에서,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이후 교수로의 취업전망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박사학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기대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박사학위자의 공급과 대학교원의 수요 간의 심각한 격차가 현실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진로로 박사 학위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석사학위가 거쳐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인식되어 석사단계에 대한 온전한 관심이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석사학위과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진학 동기나 취업실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전반적으로 학위과정에 대한 진학 동기나 취업실태에서 나타난 전공 계열별 뚜렷한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이라는 중 분류 영역내에서의 차이, 기초학문분야와 응용학문분야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초학문,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학문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교수준비라는 진학동기가 뚜렷한데 비해 취업실태의 여러 측면, 즉, 취업률, 임금, 향후 취업전망 등에서 적어도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학위의 효용가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거시적인 박사인력수급에 관련한 선행연구가 재확인되면서, 기초학문,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노동시장 성취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은 이미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활용 촉진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문차원보호 차원에서 우수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최근에 정책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논의와는 달리, 이공계열의 경우,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진학동기도 실용적이지만, 취업률이나, 소득, 임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정한 정도는 정확한 실태에서 비롯된 논의인지 재검토하고 이를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석·박사 전공에 대한 만족도나 전반적인 효용가치에 있어서 계열을 막론하고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 학위과정은 경제적인 가치이외에도 자기발전이나 자신의 전문성 실현 등 비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선택, 즉 인력공급을 예측할 때 우리 사회의 학력에 대한 문화적 기반과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석사 학위 취업자와 박사학위자 취업자의 3분의 1정도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반응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향후 어떤 대상들이 학력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가? 학력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요청되는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석·박사 취득자, 특히 미취업 학위취득자들의 취업정보원으로 인터넷이 주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에서 다양한 채용지원사이트가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섯째, 석·박사 취업실태에서 나타난 바대로 상당수의 학위취득자가 학위취득이후 2년 가까운 시점에서도 불안정한 취업상황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학위취득자들은 학위취득이후 대학으로부터의 취업지원서비스나 상담서비스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대학들은 석·박사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의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이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취업지원센터의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요청된다 하겠으며 신설되는 각 대학 인력개발종합센터에서 석·박사 대상의 지원활동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는 1,200여명 석·박사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취업률이나 세부전공별 진로현황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박사의 경우, 약 20%로 추정되는 국외박사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급인적자원에 대한 졸업 후 추적조사는 조사의 대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석·박사 등 고급인력의 실태조사는 응답자에 대한 접근율과 거절율도 높아 상당히 난항을 겪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와 밀접한 연계활동을 바탕으로

로 학교를 통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연구기관에서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의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조사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는 즉, 조사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의 인력개발종합센터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중앙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인적자원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이 요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적으로 대학원 세계에 대한 안내서를 개발하고 향후 전공의 확대와 표집수를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각 대학과 대학원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원 진학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원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서 발간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 록>

<부록 1> 석·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대상 학과 및 조사 인원

<부록 2> 석석사학위 취득자 취업실태 조사 설문지

<부록 3> 석박사학위 취득자 취업실태 조사 설문지

<부록 4> 석석·박사 취득자 조사 설문협조 대학 및 담당자 명단

<부록 1> 석·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대상 학과 및 조사 인원

<부록표 1-1>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및 회수율 - 석사

계열	전공	전국			20개 대학			표본			회수(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문 계열	국어국문	107	231	338	52	128	180	16	18	34	16(100.0)	16(88.9)	32(94.1)
	영어영문	104	300	404	47	145	192	17	19	36	16(94.1)	19(100.0)	35(97.2)
	역사학	74	73	147	41	39	80	13	16	29	9(69.2)	12(75.0)	21(72.4)
	철학	57	35	92	37	21	58	16	9	25	13(81.3)	7(77.8)	20(80.0)
	외국어문학	75	212	287	47	125	172	11	21	32	9(81.8)	17(81.0)	26(81.3)
	소계	417	851	1,268	224	458	682	73	83	156	63(86.3)	71(85.5)	134(85.9)
사회 계열	경제학	368	111	479	218	60	278	17	14	31	11(64.7)	9(64.3)	20(64.5)
	경영학	2,067	594	2,661	932	344	1,276	18	21	39	17(94.4)	14(66.7)	31(79.5)
	법학	395	114	509	215	81	296	22	18	40	23(104.5)	17(94.4)	40(100.0)
	행정학	761	255	1,016	469	133	602	18	20	38	18(100.0)	10(50.0)	28(73.7)
	사회학	34	46	80	28	36	64	7	13	20	4(57.1)	11(84.6)	15(75.0)
	심리학	56	175	231	39	111	150	10	14	24	5(50.0)	13(92.9)	18(75.0)
	소계	3,681	1,295	4,976	1,901	765	2,666	92	100	192	78(84.8)	74(74.0)	152(79.2)

116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

계열	전공	전국			20개 대학			표본			회수(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이학 계열	수학	95	96	191	52	61	113	11	18	29	9(81.8)	12(66.7)	21(72.4)
	물리학	279	75	354	150	44	194	21	15	36	14(66.7)	13(86.7)	27(75.0)
	화학	393	275	668	201	171	372	18	50	68	21(116.7)	35(70.0)	56(82.4)
	생물학	219	257	476	103	131	234	14	50	64	16(114.3)	35(70.0)	51(79.7)
	소계	986	703	1,689	506	407	913	64	133	197	60(93.8)	95(71.4)	155(78.7)
공학 계열	기계공학	827	27	854	441	10	451	26	6	32	21(80.8)	5(83.3)	26(81.3)
	전기전자전파	2,255	159	2,414	988	65	1,053	23	18	41	22(95.7)	14(77.8)	36(87.8)
	정보통신컴	2,162	631	2,793	841	291	1,132	18	67	85	27(150.0)	46(68.7)	73(85.9)
	토목	1,183	67	1,250	488	27	515	24	8	32	21(87.5)	7(87.5)	28(87.5)
	건축공학	932	229	1,161	347	106	453	19	44	63	21(110.5)	35(79.5)	56(88.9)
	생명공학	213	156	369	138	95	233	9	19	28	4(44.4)	7(36.8)	11(39.3)
	화공	431	78	509	232	43	275	17	9	26	17(100.0)	6(66.7)	23(88.5)
소계	8,003	1,347	9,350	3,475	637	4,112	136	171	307	133(97.8)	120(70.2)	253(82.4)	
기타	약학	108	131	239	63	90	153	8	12	20	10(125.0)	8(66.7)	18(90.0)
	교육학	1,362	2,574	3,936	337	1,038	1,375	13	22	35	10(76.9)	15(68.2)	25(71.4)
	소계	1,470	2,705	4,175	400	1,128	1,528	21	34	55	20(95.2)	23(67.6)	43(78.2)
총계		14,557	6,901	21,458	6,506	3,395	9,901	386	521	907	354(91.7)	383(73.5)	737(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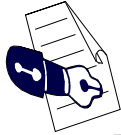
<부록표 1-2> 전공별 표집 현황 - 박사

계열	전공	전국			20개 대학			표본			회수(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문 계열	국어국문	113	91	204	73	53	126	17	15	32	16 (94.1)	12 (80.0)	28 (87.5)
	영어영문	58	63	121	30	32	62	13	14	27	9 (69.2)	10 (71.4)	19 (70.4)
	역사학	51	30	81	28	23	51	13	14	27	10 (76.9)	9 (64.3)	19 (70.4)
	철학	27	11	38	26	8	34	12	7	19	6 (50.0)	5 (71.4)	11 (57.9)
	외국어문학	35	52	87	19	33	52	9	12	21	10 (111.1)	9 (75.0)	19 (90.5)
	소계	284	247	531	176	149	325	64	62	126	51 (79.7)	45 (72.6)	96 (76.2)
사회 계열	경제학	50	7	57	31	5	36	18	5	23	11 (61.1)	2 (40.0)	13 (56.5)
	경영학	261	34	295	83	10	93	26	9	35	19 (73.1)	7 (77.8)	26 (74.3)
	법학	102	11	113	55	9	64	24	7	31	15 (62.5)	2 (28.6)	17 (54.8)
	행정학	103	16	119	42	9	51	22	7	29	13 (59.1)	5 (71.4)	18 (62.1)
	사회학	13	13	26	12	12	24	4	6	10	2 (50.0)	3 (50.0)	5 (50.0)
	심리학	17	13	30	16	12	28	8	6	14	9 (112.5)	6 (100.0)	15 (107.1)
	소계	546	94	640	239	57	296	102	40	142	69 (67.6)	25 (62.5)	94 (66.2)

118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

계열	전공	전국			20개 대학			표본			회수(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이학 계열	수학	60	32	92	31	20	51	11	20	31	7 (63.6)	12 (60.0)	19 (61.3)
	물리학	102	10	112	71	7	78	20	7	27	15 (75.0)	3 (42.9)	18 (66.7)
	화학	108	30	138	66	10	76	20	10	30	13 (65.0)	6 (60.0)	19 (63.3)
	생물학	97	44	141	54	23	77	17	23	40	13 (76.5)	10 (43.5)	23 (57.5)
	소계	367	116	483	222	60	282	68	60	128	48 (70.6)	31 (51.7)	79 (61.7)
공학 계열	넓기계공학	140	1	141	81	0	81	24	0	24	20 (83.3)	0 -	20 (83.3)
	전기전자전파	334	10	344	178	2	180	26	2	28	23 (88.5)	3 (150.0)	26 (92.9)
	정보통신컴	312	44	356	142	23	165	17	23	40	19 (111.8)	13 (56.5)	32 (80.0)
	토목	125	1	126	77	0	77	29	0	29	20 (69.0)	0 -	20 (69.0)
	건축공학	113	8	121	66	6	72	24	6	30	23 (95.8)	4 (66.7)	27 (90.0)
	생명공학	29	8	37	25	7	32	4	7	11	4 (100.0)	2 (28.6)	6 (54.5)
	화공	107	2	109	68	0	68	20	0	20	18 (90.0)	0 -	18 (90.0)
소계	1,160	74	1234	637	38	675	144	38	182	127 (88.2)	22 (57.9)	149 (81.9)	
기타 계열	약학	43	39	82	20	19	39	6	9	15	5 (83.3)	4 (44.4)	9 (60.0)
	교육학	86	89	175	49	60	109	12	17	29	12 (100.0)	12 (70.6)	24 (82.8)
	소계	129	128	257	69	79	148	18	26	44	17 (94.4)	16 (61.5)	33 (75.0)
총계	2,486	659	3145	1343	383	1726	396	226	622	312 (78.8)	139 (61.5)	451 (72.5)	

<부록 2> 석사취득자 취업조사 설문지



석사학위 취득자 취업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인프라 구축 사업(「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고등교육졸업자의 졸업 후 취업실태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학위취득이후 취업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20여개 대학의 24개 학과대상으로 2003학년도 석사학위취득자 900여명을 무선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 : 진미석 연구위원, 김나라 연구원, 박정식 연구원

♣ 연락처 : (135-766)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7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TEL : 02-3485-5322 FAX : 02-3485-5329

I. 석사학위 취득과정

1. 귀하가 석사학위 과정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일치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2. 교수가 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4. 당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5. 전문성 신장(자기발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6.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2. 귀하의 석사학위 전공과 학부전공은 일치합니까?

- ① 일치한다 (☞ 3번으로) ② 일치하지 않는다 (☞ 2-1, 2-2번으로)

2-1. 현재 전공으로 바꾼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적성에 더 맞아서 ② 전망이 더 좋아서
 ③ 입학하기 쉬워서 ④ 현재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공이므로
 ⑤ 전공의 학문적 매력에 이끌려 ⑥ 석사학위 취득이 수월해서
 ⑦ 기타 _____

2-2. 전공을 바꾼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한 결정이다 ② 잘한 결정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못된 결정이다
 ⑤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3. 석사과정 중 귀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 ① 일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했다(☞ 5번으로)
 ②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으로 가끔 일을 했지만 대체로 풀타임으로 학업에 전념하였다(☞ 5번으로)
 ③ 석사과정동안 계속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4번으로)
 ④ 석사과정동안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였다(☞ 4번으로)
 ⑤ 석사과정동안 계속 일하지 않았으나 중간 중간 풀타임으로 취업하였다(☞ 4번으로).

4. 석사과정 중 귀하가 했던 일은 주로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 ① 대학의 유급조교 ②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 ③ 기업(민간)연구소의 연구원 ④ 일반기업체의 회사원
- ⑤ 초·중·고등학교 교사 ⑥ 개인사업(창업)
- ⑦ 학원강사 ⑧ 대학의 시간강사
- ⑨ 기타_____

5. 석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휴학기간은 제외)

석사 _____년 _____개월

6. 귀하는 석사학위과정 입학이후 석사학위 취득까지 중단 없이 학업을 진행하셨습니다가?

- ① 예 (☞7번으로) ② 아니오 (☞6-1번으로)

6-1.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② 가사 및 육아 ③ 질병 ④ 군복무 ⑤ 경제적 이유 ⑥기타

7. 석사학위 취득에 소요된 총 경비는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 ☞ 등록금, 책값, 논문 심사비 등 직접경비_____만원
- ☞ 생활비 _____만원

8. 위의 경비는 주로 어떻게 조달하셨습니다가? (%로 답해주십시오)

장학금	부모지원	배우자지원	석사과정 이전의 저축으로	과정 중에 계속 취업을 하여서	직장의 지원	대출	총합
							100%

8-1. 만약 장학금을 받으셨다면 주로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 ① 정부 ② 학교 ③ 장학재단 ④ 소속 직장 ⑤ 기업 ⑥기타_____

9. 본인의 석사학위 효용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매우 유용하다	유용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유용하지 편이다	전혀 유용하지 않다
9-1. 경제적인 측면	①	②	③	④	⑤
9-2. 사회적 인정 측면	①	②	③	④	⑤
9-3. 자기발전의 측면	①	②	③	④	⑤
9-4.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①	②	③	④	⑤

10. 자신의 석사 전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10-1. 만약 불만스럽다면 그 주된 이유는? _____

11. 귀하는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① 있다(11-1번으로) ② 없다(12번으로) ③ 현재 박사과정 중(11-1번으로)

11-1. 박사학위 취득을 계획하거나 또는 현재 박사 과정 중이라면, 다음 중 어떤 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십니까 (또는 취득 중이십니까)?

- ① 석사와 동일한 대학에서 ② 석사와는 다른 국내대학에서 ③ 외국유학

II. 석사취득이후 진로상황

12. 현재 귀하의 진로상황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 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13번으로)
②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3번으로)
③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13번으로)
④ 구직 중 (☞25번으로)
⑤ 박사과정 중 (☞34번으로)
⑥ 박사과정진학준비 중 (☞34번으로)
⑦ 건강, 집안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34번으로)

※ 13번 ~ 24 번 문항은 취업자 항목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만 응답해 주세요.

13. 귀하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유형은?

- ① 초·중·고등학교 ② 사회교육기관(□□ 학원 등) ③ 국공립 연구기관
④ 민간 대기업체 ⑤ 민간 중소기업체 ⑥ 개인사업체
⑦ 창업 ⑧ 외국인 회사 ⑨ 기타 _____

14. 귀하는 어느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아래의 빈칸에 직업명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아래의 응답을 종합하여 개인별 취업코드가

부여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직업명 (□□ 홍보사무직원, 자동차영업원, 컴퓨터하드웨어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등) :

(2) 직장에서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 및 분야 (□□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등) :

15. 현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16. 귀하의 연평균 근로소득(세금포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17. 귀하는 현재 직업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17-1. 불만스럽다면, 그 주된 이유는? _____

18.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귀하의 석사학위 전공과 관련된 분야입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19. 현재 귀하가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은 석사학위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
②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③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19-1.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석사학위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학력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사 ② 전문대졸 ③고졸 ④ 기타_____

※ 20번 ~24번 문항은 정규직으로 취업하신 분만 응답해주십시오.
비정규직, 파트타임, 구직중인 경우 25번으로 가 주십시오.

20. 귀하의 현 직장은 다음 중 어떤 경우입니까?
 ① 석사학위 취득이후에 얻은 첫직장이다 (☞21번으로)
 ② 석사학위 취득이후에 첫 직장을 얻은 후 옮긴 직장이다 (☞21번으로)
 ③ 석사학위 취득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이다 (☞22번으로)
 ④ 다니던 직장에서 석사학위 취득이후 옮긴 직장이다 (☞22번으로)
21. 석사학위 취득이후 첫 풀타임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기간 및 응시횟수는?
 21-1. _____년 _____개월
 21-2. 응시횟수 _____번
22. 석사학위 취득으로 인해 직장에서 승진이나 급여인상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3. 귀하께서 현 직장을 구할 때 취업정보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①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② 선배, 동료의 도움 ③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④ 신문 광고 ⑤ 기타_____
24. 귀하께서는 현재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가능하면 옮기겠다
 ③ 현재 옮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24-1.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2가지 선택해주세요.
 첫 번째 이유_____ 두 번째 이유_____
- | | | |
|-------------|----------------|-----------|
| ① 보수 | ② 안정성 | ③ 사회적 인정도 |
| ④ 가족거주지와 거리 | ⑤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 ⑥ 직장분위기 |
| ⑦ 업무부담 | ⑧ 직장의 사정상 | ⑨ 기타_____ |
- 24-2. 귀하는 어떤 직장으로 옮기시려 합니까?
 ① 초·중·고등학교 ② 사회교육기관(□□ 학원 등) ③ 국공립 연구기관
 ④ 민간 대기업체 ⑤ 민간 중소기업체 ⑥ 개인사업체
 ⑦ 창업 ⑧ 외국인 회사 ⑨ 기타_____

(☞ 응답을 마친신 정규직 취업자는 문항 34번으로 가 주십시오)

구직자에 관련된 사항 (25번~33번)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자, 파트타임취업자 및 구직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25. 귀하께서는 풀타임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몇 번을 응시하셨습니다?
_____번
26. 귀하께서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은 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첫 번째 요인 _____ 두 번째 요인 _____
- ① 당장 취업할 자리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기다리기 때문에
② 전공분야의 취업처의 부족
③ 취업시 학연, 지연 등 불공정한 임용
④ 전공분야의 자신의 실력부족
⑤ 취업을 위한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부족
⑥ 좁은 인간관계 폭
⑦ 가사와 육아부담
⑧ 취업정보의 부족
⑨ 학부 전공과의 불일치
⑩ 연령
⑪ 성차별관행
⑫ 기타_____
27. 귀하께서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①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② 선배, 동료의 도움 ③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④ 신문 광고 ⑤ 기타_____
28. 귀하가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초·중·고등학교 ② 사회교육기관(□□ 학원 등) ③ 국공립연구기관
④ 민간 대기업체 ⑤ 민간 중소기업체 ⑥ 개인사업체
⑦ 창업 ⑧ 외국계 회사 ⑨ 기타_____
29. 귀하께서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보수 ② 안정성 ③ 사회적 인정도
④ 가족거주지와 거리 ⑤ 직무와 내 전공과의 관련성 ⑥ 기타_____

30. 귀하는 귀하의 석사학위가 정규직에 취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31. 귀하께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어학공부 및 전공공부 ② 교수님과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 ③ 취업정보 수집 ④ 면접 준비
- ⑤ 기타 _____

32. 귀하는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기대하십니까?

- ① 6개월 이내 ② 1년 이내 ③ 1~2년 사이 ④ 2~3년 사이
- ⑤ 3년 이상

33. 예상하고 있는 기간 내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① 계속 기다리겠다 ② 눈높이를 조정해서 풀타임 직장으로 취업하겠다
- ③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 ④ 석사학위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겠다
- ⑤ 기타 _____

III. 석사학위 취득자의 향후 취업전망

34. 귀하의 학위전공분야에서 올해에 배출되는 석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 다	그저 그렇 다	낮은 편 이다	매우 낮다
34-1. 전공분야로의 취업	①	②	③	④	⑤
34-2. 비전공분야포함 전체 취업	①	②	③	④	⑤

35. 귀하의 전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석사들의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많은 석사들이 배출되어서
 - ② 석사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 ③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석사인력의 활용처 개발이 부진하여
 - ④ 석사학위자와 취업처를 연결하는 체제(시스템)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 ⑤ 기타_____
36. 귀하 전공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5년 후, 귀하의 전공분야 학부졸업생들의 취업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망이 매우 밝다 ② 밝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어두운 편이다 ⑤ 매우 어둡다

♠ 일반 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 년도 19__년
3. 거주지 ① 서울·수도권 지역 ② 영남지역 ③ 호남지역 ④ 충청지역 ⑤ 강원지역
4. 출신 학부 및 석사(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4-1. 학부____ 4-2. 석사____

[보기]

- ① 서울의 국립대학 ② 지방 국립대학
- ③ 서울소재사립대학 (남녀공학) ④ 지방소재 사립대학(남녀공학)
- ⑤ 서울소재 사립대학(여자대학) ⑥ 지방소재 사립대학(여자대학)
- ⑦ 외국대학_____ (국명을 기입해주세요)
- ⑧ 기타_____

5. 석사과정 입학 년도 _____년 _____월
6. 석사학위 취득 년도 _____년 _____월

7.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7-1. 학부전공 _____ 석사전공 _____

[보기]				
1) 국문학	2) 영문학	3) 불문학	4) 독문학	5) 중문학
6) 일문학	7) 노문학	8) 역사학	9) 철학	10) 법학
11) 행정학	12) 사회학	13) 심리학	14) 경제학	15) 경영학
16) 교육학	17) 물리학	18) 수학	19) 생물학(생명과학)	
20) 화학	21) 기계공학	22) 건축(공)학	23) 토목(환경)공학	
24) 화학공학	25) 전기전자전파공학	26) 정보통신컴퓨터공학(전산학)		
27) 생명공학	28) 약학	29) 기타 _____		

8. 결혼 여부 ① 결혼 ② 미혼 ③ 기타

9. 자녀수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10. (결혼하셨다면)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취업하고 계십니까?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파트타임직 ④ 미취업 ⑤ 기타

11. 부모의 교육수준

부 _____ 모 _____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전문대졸 이하
④ 대졸 이하 ⑤ 대학원졸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3> 석사취득자 취업조사 설문지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인프라 구축 사업(「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고등교육졸업자의 졸업후 취업실태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학위취득이후 취업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20여개 대학의 24개 학과대상으로 2003학년도 박사학위취득자 700여명을 무선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 : 진미석 연구위원, 김나라 연구원, 박정식 연구원

♣ 연락처 : (135-766)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7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TEL : 02-3485-5322 FAX : 02-3485-5329

I. 박사학위 취득과정

1. 귀하가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일치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2. 교수가 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4. 당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5. 전문성 신장(자기발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6.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2. 귀하의 박사학위 전공과 학부 전공은 일치합니까?

① 일치한다 (☞ 3번으로 가시오) ② 일치하지 않는다(☞ 2-1, 2-2로 가시오)

2-1. 현재전공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에 더 맞아서 ② 전망이 더 좋아서
- ③ 입학하기 쉬워서 ④ 현재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공이므로
- ⑤ 전공의 학문적 매력에 이끌려서 ⑥ 박사학위 취득이 수월해서
- ⑦ 기타 _____

2-2. 전공을 바꾼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한 결정이다 ② 잘한 결정이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잘못된 결정이다
- ⑤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3. 박사과정 중 귀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 ① 일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했다 (☞ 5번으로)
- ②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으로 가끔 일을 했지만 대체로 풀타임으로 학업에 전념하였다 (☞ 5번으로)
- ③ 박사과정동안 계속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 4번으로)
- ④ 박사과정동안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였다 (☞ 4번으로)
- ⑤ 박사과정동안 계속 일하지 않았으나 중간 중간 풀타임으로 취업하였다 (☞ 4번으로).

13. 현재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박사학위 전공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14. 현재 귀하가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은 박사학위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③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 14-1.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박사학위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사 ② 석사 ③ 기타_____
15. 귀하의 현재 직업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 15-1. 불만스럽다면, 그 주된 이유는? _____
16. 귀하의 연평균 근로소득(세금포함)은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17. 귀하는 현재 직장에 얼마동안 근무하고 계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 18번-22번 항목은 정규직으로 취업하시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파트타임, 구직중인 경우 23번으로 가 주십시오.

18. 귀하의 현 직장은 다음 중 어떤 경우입니까?
 ① 박사학위 취득이후에 얻은 첫직장이다(☞19번 문항으로)
 ② 박사학위 취득이후에 첫 직장을 얻은 후 옮긴 직장이다(☞19번문항으로)
 ③ 박사학위 취득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이다(☞20번문항으로)
 ④ 다니던 직장에서 박사학위 취득이후 옮긴 직장이다(☞21번문항으로)

19. 박사학위 취득이후 첫 풀타임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기간 및 응시횟수는?

19-1. _____년 _____개월

19-2. 응시횟수_____번 (☞ 21번문항으로)

20. 박사학위 취득으로 인해 직장에서 승진이나 급여인상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1. 귀하께서 현 직장을 구할 때 취업정보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①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② 선배, 동료의 도움 ③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④ 신문광고 ⑤ 기타_____

22. 귀하께서는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가능하면 옮기겠다

③ 현재 옮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2-1.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2가지 선택해주시시오.

첫 번째 이유_____ 두 번째 이유_____

① 보수

② 안정성

③ 사회적 인정도

④ 가족거주지와 거리

⑤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⑥ 직장분위기

⑦ 업무부담

⑧ 직장의 사정상

⑨ 기타_____

22-2 . 귀하는 어떤 직장으로 옮기시려 합니까?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대학

③ 국공립연구소

④ 기업체연구소

⑤ 일반기업체

⑥ 중·고등학교

⑦ 개인사업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 응답을 마치신 정규직 취업자는 문항 33번으로 가 주십시오.)

구직에 관련된 사항 (23번-32번)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 및 구직자만 응답해주시시오.

23. 귀하께서는 풀타임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몇 번을 응시하셨습니다까?

_____번

24. 귀하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데에는 다음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1. 내가 원하는 직장을 기다리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4-2. 전공분야의 취업처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24-3. 취업시 학연, 지연 등 불공정한 임용	①	②	③	④	⑤
24-4. 전공분야의 자신의 실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24-5. 취업을 위한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부족	①	②	③	④	⑤
24-6. 좁은 인간관계 폭	①	②	③	④	⑤
24-7. 가사와 육아부담	①	②	③	④	⑤
24-8. 포스트닥으로 진학	①	②	③	④	⑤
24-9. 취업정보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24-10. 학부 전공과의 불일치	①	②	③	④	⑤
24-11. 연령	①	②	③	④	⑤
24-12. 성차별관행	①	②	③	④	⑤
24-13. 국내박사차별관행					

기타 _____

25. 귀하께서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 ①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② 선배, 동료의 도움 ③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 ④ 신문광고 ⑤ 기타 _____

26. 귀하는 어떤 풀타임 직장을 구하고자 합니까?

-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대학 ③ 국공립연구소
- ④ 기업체연구소 ⑤ 일반기업체 ⑥ 중·고등학교 교직
- ⑦ 개인사업 ⑧ 정규직이라면 어디든 상관 없음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7. 귀하께서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보수 ② 안정성 ③ 사회적 인정도
- ④ 가족거주지와 거리 ⑤ 직무와 내 전공과의 관련성
- ⑥ 기타 _____

28. 귀하는 귀하의 박사학위가 정규직에 취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도움이 될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 될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29. 귀하가 전업 시간강사이시라면, 현재 몇 개 대학에서 몇 시간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___개 대학 ___ 시간
30. 귀하께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주로 무엇입니까?
 ① 논문작성이나 학회발표등의 연구실적 쌓기
 ② 교수님과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③ 취업정보수집 ④기타_____
31. 귀하는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기대하십니까?
 ① 6개월 이내 ② 1년 이내 ③ 1-2년 사이
 ④ 2-3년 사이 ⑤ 3년-5년 사이 ⑥ 5년 이상
32. 예상하고 있는 기간내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① 계속 기다리겠다 ② 눈높이를 조정해서 풀타임 직장으로 취업하겠다
 ③ 박사학위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겠다 ④ 기타_____

Ⅲ. 박사학위 취득자의 향후 취업전망

33. 귀하의 학위전공분야에서 올해 배출되는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학위 취득이후 3년 이내에 전공분야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은 편이다
33-1. 전체 취업처로 볼 때	①	②	③	④	⑤
33-2. 대학교원으로서의 취업	①	②	③	④	⑤

34. 귀하의 전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박사들의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많은 박사들이 배출되어서
 ② 박사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
 ③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박사인력의 활용처가 개발이 부진하여
 ④ 박사학위자와 취업처를 연계하는 체제(시스템)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⑤ 기타_____

35. 귀하 전공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5년 후, 귀하의 전공분야 학부졸업생들의 취업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망이 매우 밝다 ② 밝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두운 편이다
⑤ 매우 어둡다

♣ 일반 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 년도 19__년
3. 거주지 ① 서울수도권 지역 ② 영남지역 ③ 호남지역 ④ 충청지역 ⑤ 강원지역
4. 출신 학부 및 석사(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4-1. 학부_____ 4-2. 석사_____ 4-3. 박사_____

[보기]

① 서울의 국립대학 ② 지방 국립대학
③ 서울소재사립대학 (남녀공학) ④ 지방소재 사립대학(남녀공학)
⑤ 서울소재 사립대학(여자대학) ⑥ 지방소재 사립대학(여자대학)
⑦ 외국대학_____ (국명을 기입해주세요)
⑧ 기타_____

5. 박사과정 입학 년도 _____년 _____월
6. 박사학위 취득 년도 _____년 _____월
7.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7-1. 학부전공_____ 석사전공_____ 박사전공_____

[보기]

1) 국문학 2)영문학 3) 불문학 4) 독문학 5) 중문학
6) 일문학 7) 노문학 8) 역사학 9) 철학 10) 법학
11) 행정학 12) 사회학 13) 심리학 14) 경제학 15) 경영학
16) 교육학 17) 물리학 18) 수학 19) 생물학(생명과학)
20) 화학 21) 기계공학 22) 건축(공)학 23) 토목(환경)공학
24) 화학공학 25) 전기·전자·전파공학 26) 정보통신·컴퓨터공학(전산학)
27) 생명공학 28) 약학 29) 기타 _____

- 7-2. 박사학위의 세부전공 (기입해주세요. 예시: 분자생물학)_____

8. 결혼 여부 ① 결혼 ② 미혼 ③ 기타
9. 자녀수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10. (결혼하셨다면)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취업하고 계십니까?
①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다 ② 임시직 ③ 파트타임직
④ 취업하지 않고 있다 ⑤ 기타
11. 부모의 교육수준
부_____ 모_____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전문대졸 이하
④ 대졸 이하 ⑤ 대학원졸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4> 석·박사 취득자 조사 설문협조 대학 및 담당자 명단

No.	성 명	소속대학
1	권 중 일	청주대학교
2	김 경 옥	한양대학교
3	김 용 선	중앙대학교
4	김 인 환	경북대학교
5	박 철 수	한남대학교
6	성 두 석	부산대학교
7	송 병 화	연세대학교
8	안 성 식	고려대학교
9	유 정 근	영남대학교
10	윤 소 영	전남대학교
11	이 경 주	호남대학교
12	이 재 수	울산대학교
13	임 승 년	서울대학교
14	정 민 규	충남대학교
15	정 연 종	강원대학교
16	정 혜 련	숙명여자대학교
17	정 혜 선	동아대학교
18	최 기 천	인하대학교
19	한 석 정	성균관대학교
20	홍 승 렬	이화여자대학교

※ 성명 : 가나다순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 2003). 교육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
- 김여수·유초하·강연희(2002). 인문학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환 외(2001). 「학과(전공) 분석 및 학과(전공)분류 체계 연구」.
- 김현철 외(2001). 「중·장기 교육시장 전망연구 : 2002~2011 전문대·대학 졸업생 규모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형만 외(2001). 「대학·전문대학 졸업생 취업실태 조사 연구」.
- 김형만 외(2002). 「전문대·대학 졸업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형만 외(2003). 미래의 직업세계(2003):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탁사업03-5-1.
- 임언 외(2003). 미래의 직업세계2003에 대한 의견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춘익(2001). 인문학 연구 지원 및 학문 후속세대 지원 개선 방안(인문학진흥 심포지움).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 주경철(2001). 인문학 연구소 및 연구원 제도의 개선 방안(인문학진흥 심포지움).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 중앙고용정보원(2003). 2004 학과정보. 중앙고용정보원.
- 진미석·윤형한(2002).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윤형한(2003). 미래의 직업세계(2003): 대학재학생의 희망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윤형한(2003). 고급전문인력 활용대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진미석·한상근(2002).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외(2000). 학문분야별 고급인적자원 수급전망. 교육인적자원부.
-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 학과DB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국외박사학위취득자 통계.

한상근외(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ECD(2003). Education at a Glance.

Golde, Chris M. & Dore, Timothy M.(2000). At Cross Purposes: What the experiences of today's doctoral students reveal about doctoral educatio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1995). Reshaping the Graduate Education of Scientists and Engineers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00). Survey of Doctor Recipients.NSF

■ 저자 약력

·진미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김나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

·발행연월일	2004년 12월 일 인쇄 2004년 12월 일 발행
·발 행 인	김 장 호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인 쇄 처	정문출판 (02)2269-9301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비 매 품 >